

# 이 리 소리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web magazine

# 012

- 시가 있는 마당(詩感想) / 대서국의 옛터 ● 김새갈
- 세상사는 이야기(時論) / 빈부격차와 제세이화 ● 최윤수
- 기행문(國學踏查記) / 단군, 만주 그리고 국학 ● 김종성
- 국학 선열의 가르침(先烈高談) / 조선상고사총론(신채호) ● 편집부
- 국학논고(研究論文) / 김교헌 민족사학의 의의2 ● 김동환
- 아름다운 생각(隨想) / 단군묘중건기 ● 강호석
- 책으로 사색하다(책소개) / 『역경의 행운』 ● 편집부
- 연구소 소식 / 회원동정 ● 편집부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KOREANOLGY

# 우리소리

## 012

- 시가 있는 마당(詩感想) / 대서국의 옛터 ● 김새갈
- 세상사는 이야기(時論) / 빈부격차와 제세이화 ● 최윤수
- 기행문(國學踏查記) / 단군, 만주 그리고 국학 ● 김종성
- 국학 선열의 가르침(先烈高談) / 조선상고사총론(신채호) ● 편집부
- 국학논고(研究論文) / 김교헌 민족사학의 의의2 ● 김동환
- 아름다운 생각(隨想) / 단군묘중건기 ● 강호석
- 책으로 사색하다(책소개) / 『역경의 행운』 ● 편집부
- 연구소 소식 / 회원동정 ● 편집부

발행일 | 단기4347(2015)년 1월 10일

발행인 | 박 성 신

편집인 |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주 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3

전 화 | 02) 3210-1333

전 송 | 02) 3210-1333

홈페이지 | [www.gukhak.org](http://www.gukhak.org)

본 잡지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시가 있는 마당 | 詩感想

대서국<sub>大徐國</sub>의 옛터

한비

산동<sub>山東</sub>부터 광동<sub>廣東</sub>까지  
기름지고 넓은 들에  
장강<sub>長江</sub>대하<sub>大河</sub> 면직<sub>綿織</sub>하고  
광호<sub>廣湖</sub>심택<sub>深澤</sub> 수밀<sub>繡密</sub>한데  
대서국<sub>大徐國</sub>의 건아<sub>健兒</sub>들이  
밭을 갈고 고기 잡다

주목왕<sub>周穆王</sub>을 정벌하고  
삼십육국 조공받아  
우리 환족<sub>桓族</sub> 굳센 힘을  
영예롭게 뽐내이던  
그 터 밟는 내 마음이  
그 얼마나 느낄손야

(『倍達公論』 第四號, 1923.)

문득 맥수지탄(麥秀之嘆)이라는 말을 떠올려본다. 옛 도읍의 황폐함을 보고 고국이 멸망한 것을 한탄하는 말이다. 『사기』「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는 이렇게 전한다. 기자가 조선에서 오다가 폐허가 된 은(상)나라 도읍 터를 지나면서 궁전의 폐허에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 팬 것을 보고 한탄하여 「맥수가(麥秀歌)」를 지었다. 백성들이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한다. 이 시에서 유래하여 맥수지탄은 망한 조국을 생각하며 탄식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고사가 동이왕조(東夷王朝)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 그리고 왕족인 미자(微子), 기자(箕子), 비간(比干) 등의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다. 은나라의 멸망 이후 산동을 거점으로 한 동이족의 무대는 서서히 종막을 고하게 된다.

동북아는 동이의 문화소(文化素)가 넘치는 곳이다. 그 역사성이 유구하고 다양한 삶의 흔적이 지천이다. 그 문명 속에 호흡하며 살아온 인간들 역시 남달리 많다. 더욱이 세계 4대문명 중의 하나로 기록된 황하문명보다 훨씬 앞선 동이문명(東夷文明, 紅山圈文明)이 발굴되면서, 인류문명의 발상지로까지 회자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동이문화는 산동으로부터 만주 그리고 한반도까지, 말굽형으로 나타나 있다. 동북아 문화소의 중심이자 주변으로, 시공간적으로도 가장 폭넓은 문화지층을 만들며 잠재되어 온 것이 동이문화다. 선부르지만 고조선문명권과 일치하는 문명권이 바로 동이문명권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동이문화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넘어서는 동북아 문화의 요람으로, 동북아의 종교·철학·언어·예술 등의 산파 역할을 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다. 가령 동이의 천신신앙과 제천, 오행·역법, 갑골문자, 원시가무(原始歌舞) 등은 동북아 제반 문화의 토양이 되었음은 물론, 몸통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 있다.

특히 동이의 정신문화는 동북아 고대 종교의 뿌리로서만이 아니라, 도덕과 철학의 근간이 되면서, 이 지역 윤리사상을 살찌워 왔다. 유교나 도교 심지어는 많은 제자백가의 가치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교의 인사상(仁思想) 역시 동이의 정신적 이상과 직결되는 가치다. 동이의 가치를 유·불·선이 융화된 현묘지도로 보는 이유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특히 동이의 인본주의적 가치야말로, 그 정수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고전에서 ‘동방예의지국’이나 ‘군자국(君子國)’이라 하여 동이를 흠모했던 것도 이러한 정신문화에 대한 동경이었다. 같은 동이문화권인인 고조선문명권의 ‘홍익인간’이 그렇고, 은(상)문명권의 ‘인(仁)’이 바로 그것이다. ‘홍익인간’과 ‘인’은 한 뿌리에서 뻗은 서로 다른 가지로, 이음동의적 가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동이인의 정신적 이상으로서의 ‘인’을, 자신의 정치적 이상으로 연결시켜 살았던 인물이 대서국(大徐國)의 언왕(偃王)이다. 서언왕은 중원대륙에 진출한 동이족의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로서, 전형적인 동이족의 난생신화를 통해 등장한다. 『후한서』 「동이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박물지(博物志)』에 '서군(徐君)'은 궁인이 임신하여 알에서 태어났다. 이를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물가에 버렸다. '곡창(鵠倉)'이라는 천한 이름의 외로운 어미가 버려진 알을 얻어 받들어 어미에게 돌려보내니, 어미가 이를 품어 어린 아이나 태어나 늙었다. 그러므로 언(偃)이라 이름하였다. 궁인이 이를 들어 이에 고쳐 기록하니 오래도록 '서'가 군을 이었다.”

서언왕은 눈으로 말머리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곱추였다.(『荀子』「非相篇」) 그러나 자혜(慈惠)를 내세워 몸소 인의를 행하여, 조공하는 나라가 32국이나 되었으나, 몸은 죽고 나라는 망했으며 자손도 없었던 인물이 서언왕이다. 『회남자』「설산훈(說山訓)」에는, 서언왕이 역설적이게도 인의(仁義)로 인해 나라를 망쳐버린 군주로 나온다. 『염철론』「화친(和親)」에도 서언왕

이 의(義)를 행하다 망해 버린 군주로 기록되어 있다.(『회남자』「범론훈(汎論訓)」) 또한 『후한서』에는 이렇게 전한다.



徐偃王像

“언왕은 황지(潢池)의 동쪽에 살았다. 그 강역이 5백리였으며, 인의를 행하니 육로로 와서 조회하는 국가가 36국이나 되었다. 목왕(穆王)이 뒤에 적기(赤驥) 및 록이(駮耳) 등의 말을 얻어서 조부(造父)로 하여금 그 말을 몰고 초(楚)에 달려서 서(徐)를 공격하려하였는데, 조부는 하루만에 도착하였다. 이에 초문왕(楚文王)이 대거 군대를 일으켜 서를 멸망시켰다. 언왕이 어질기만 하고 권도(權道)가 없어서 차마 그 백성을 데리고 싸우지 못하였으므로 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북으로 팽성(彭城) 무원현(武原縣) 동산(東山) 아래로 달아났는데, 함께 따라간 백성이 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산의 이름을 서산(徐山)이라 하게 되었다.”

서언왕은 인의를 닦는 것은 알았지만, 무(武)를 쓰는 것을 알지 못하여 끝내 나라를 망친 것이다.(『중론(中論)』「지행(智行)」)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나라를 말아먹은 역설의 주인공이 서언왕이다. 동이인의 정신적 이상으로서의 ‘인’을 추구한 서언왕의 이상이, 적자생존이라는 정치·군사적 현실 앞에 붕괴되는 모습이다.

일찍이 신채호는 고대 지나(支那)의 양자강과 회하(淮河) 지역에 조선인이 많이 옮겨가 다 양한 소왕국을 건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언왕이 굴기(崛起)하여 인의를 행하여, 지나 36국이 조공한 시기를 조선의 전성시대로 보았다.(『조선상고사』) 또한 서언왕의 출현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회하 부근에서 종교계의 위인이라 할는지, 정치계의 위인이라 할는지 이름 짓기 어려운 한 위인이 나서, 당시 조선 사람의 대표가 되어 지나천지(支那天地)를 한 번 들었다 놓았으니, 또한 암흑 한 가운데의 빛이라, 독사자(讀史者)의 깊이 歡迎할 만한 사람이다.”(『조선상고문화사』) 신채호는 서언왕의 아픔을 이렇게 탄식했다.

“비록 周가 강성한 때라도 오히려 칼을 겨눌만한 원수이거든, 하물며 이 때에 周穆王이 음탕하여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미워하여 의지할 데 없는 판이니, 언왕의 한 호령이면 천하가 모여들어 周를 베일 날이어늘, 이에 그 애걸에 흐느껴 간계에 속아 망하게 된 周를 놓아 후일의 근심을 장만하니, 또한 어리석도다. 萊菴 將卒의 녀이 周를 향하여 울며, 西山義士의 뼈가 周를 위하여 뒹구나니, 언왕

이 어찌 이를 보지 못하였는가. 鯀이 죽지 안하면 夫妻의 五行을 전할 곳이 없으며, 有扈가 망치 안하면 조선의 殖民이 살지 못하였으리니, 언왕이 어찌 이도 듣지 못하였는가. 또는 徐와 周가 양립하지 못할 줄은 아무라도 알 것이어늘, 언왕이 어찌 이를 몰랐는가. 仁義가 종교에 있어서는 값이 있으나, 정치에 있어서는 도리어 자살제가 된다. 슬프다, 언왕이여.”

종교적 인자함은 정치적 현실 앞에서는 독약과도 같다는 말이다. 이어 신채호는 ‘인’으로 집을 짓고 ‘의(義)’로 문을 내어 천하를 호령하던 서언왕이 칼과 활을 막을 만한 연장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나라의 백성들은 인의의 삶에 젖어 차마 언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언왕은 백성의 피와 고기로 적국의 칼을 막지 못할 줄 알며, 또 자기 한 몸을 위하여 살륙의 피비린내를 역사에 끼치지 아니하려 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서언왕의 인의를 이렇게 추앙했다.

“서언왕의 역사를 보매, 어찌 그리 어질고 차마 못함이 많으뇨. 처음에 周의 간계에 속아 그의 和好를 허락함은 말 말고라도, 곧 周楚 양국의 군사가 都城에 닥칠 때에 城中에 죽기로 싸우려는 인민이 많으니, 이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웠다면 그 승패가 오히려 알 수 없는 판이라, 언왕이 이를 하지 않고 달게 몸을 죽이도다. 만일 언왕으로 하여금 예수와 같이 천민의 계급에서 낫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석가가 淨飯太子의 자리를 버리듯이, 그 왕위에 앉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才와 德으로 萬世의 信仰을 받을 만한 大宗教家가 되어 人道에 빛을 끼쳤으리로다.”

위의 시는 ‘한비’라는 인물이 쓴 또 다른 맥수지탄이다. 기자의 「맥수가」가 은나라의 멸망을 한탄하는 맥수지탄이라면, 이 시는 서나라의 멸망을 탄식하는 맥수지탄의 감회다. ‘한비’는 일우(一雨)라는 한자어의 순우리말이다. 일우는 정신(鄭信, 혹은 鄭潤이라고도 함)이라는 인물의 아호로, ‘한비’는 곧 정신을 말한다. 정신은 북로군정서 인사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임시정부 활동과 만주무장항일운동의 거물이었다. 그 역시 대종교의 핵심 인물로 『사지통속고(史誌通俗攷)』라는 저술도 남겼다. 특히 『배달족역사강역도(倍達族歷史疆域圖)』라는 책도 남긴 듯하나 전하지 않는다.

위의 시를 발표할 당시(1923년 무렵) 정신은 상해에 거주하고 있었다. 정신은 그곳(상해)를 대서국의 고토로 회억하면서 그 전성기의 위용을 되새김하고 있다. 그의 기억에는 대서국이 산동과 광둥 지역을 호령하면서 주나라의 기세를 꺾어버린 강국이다. 36국의 조공을 받던 대서국이 아닌가. 또한 그의 시에 오른 환족(桓族)은 누구인가. 바로 동이족으로 구이족(九夷族), 배달족과 같은 말이다. 즉 ‘배달족의 군센 힘을 영예롭게 뽐내던’ 그곳에서, 정신은 끝내 오열하고 만다. 모든 것이 무너진 역사의 허적(虛寂)을 안고 통곡한 것이다. 더욱이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 온 망국민의 처지에서야 어떠했으랴.

(김새갈 - 시인)

세상사는 이야기 | 時論

# 빈틈없는 자세기이화

최윤수  
(국방과학연구소연구원)

최근에 백화점의 VVIP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 고객이 고가의 옷을 골라 매장의 작은 방에 들어가 입어보면서 매장의 점원에게 너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방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 점원이 속이 상했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다. 잠깐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하면 되는데 각 개인의 평등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심한 말을 해서 점원을 차별지은 것이다.

옛날부터 장사를 하려면 쓸개 빠진 인간이 되어 자기주장을 하면 안 되고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열 번 절을 해야 한다고 한다. 주인이라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서 이문을 남겨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인이라면 그러한 인간차별적인 말을 들으면 물건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 월급받아 일하는 종업원은 그런 말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하니 감정노동의 정도가 심해서 자살소동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차별적인 말을 듣는 종업원은 당장에 힘들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표시는 안 나지

만 더욱 안 좋은 것이다. 남을 무시하고 사람차별하는 것은 허망한 재물에 현혹되어 자기의 타고난 참성품을 망각하고 또 사람성품을 해치기 때문이다. 세상은 한울이고 만인은 하느님의 품속에서 다 형제자매들이며 우리의 참성품은 남을 사랑하고 베풀을 기뻐하니 그렇지 못하면 본성에 위배되어 스스로 외롭고 위태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므로 사회적으로 백화점의 VVIP 고객관리를 용인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관청의 관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이므로 공적인 규정을 정해서 특별하게 경호도 하고 그들만이 회의도 하고 업무를 본다. 공적인 것이라 그들의 임기가 지나고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맡으면 그 사람이 한다. 말하자면 누구라도 그런 대우를 받을 기회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적으로 그렇게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남을 무시하고 사람차별하는 것은 허망한 재물에 현혹되어 자기의 타고난 참성품을 망각하고 또 사람성품을 해치기 때문이다. 세상은 한울이고 만인은 하느님의 품속에서 다 형제자매들이며 우리의 참성품은 남을 사랑하고 베풀을 기뻐하니 그렇지 못하면 본성에 위배되어 스스로 외롭고 위태하게 되기 마련이다.

우리 겨레는 옛날부터 겨레가 하나라는 일체감이 있었다.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겨레의 천제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여에서는 10월에 천제를 올린다. 온 나라가 한데 모여 며칠씩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이름하여 영고라 한다. 이때는 형벌과 옥사를 끊고 감옥을 열어 죄수의 무리들도 풀어준다. 전쟁 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톱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고 생각 한다. 고구려에서는 10월에 천제를 벌이는데 온 나라가 크게 모인다. 이를 동맹이라 한다. 예에서는 10월에 천제를 올리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춘다.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삼한에는 5월 파종과 10월 추수가 끝나면 밤낮으로 술 마시고 춤을 춘다. 국읍(國邑)마다 천군(天君)을 뽑아 제를 주재케 한다. 또 국읍마다 소도라는 별읍을 두는데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단다. 이 소도를 성스러이 여겨 도망자가 그 안에 들어와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가을에 추수한 후 나라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한데 모여 하늘에 제사지내고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를 벌였다. 『동방삭신이경』에도 서로 존중해 주는 아름다운 도덕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동방의 사람들은 남자는 모두 검은 모자와 요대를 찬다. 여자는 색깔 있는 옷을 입고 항상 공손하게 앉는다. 그들은 상대의 명예를 존중하여 이를 훼손하는 일이 없으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죽을 데라도 뛰어들어

구해준다.”

삼국유사의 건국신화에 기록된 바와 같이 환웅도 못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가련하게 여겨 땅에 내려와 재세이화(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되게 함)하였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 할만해서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내려와 인간 360 여 일을 주관하고 재세이화 즉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환웅천왕이 인간을 구하고자 하여 내려온 것은 진리를 모르고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교화하고 다스려 홍익인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경전인 삼일신고도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명과 정기의 세 참을 다 같이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귀함을 가르치고 있고 참전계경도 제 248 일 공아(空我)에서 밝은이는 못사람과 함께한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공아란 내가 나를 생각지 않는 것이다. 밝은이는 못사람에 처해서는 못사람을 편케 하고 나를 수고롭게 하며 못사람과 나눌 때는 못사람을 후하게 하고 나를 박하게 한다. 근심을 못사람과 같이 하되 홀로 당한 것처럼 한다.”

밝은이는 근심을 못사람과 함께 하되 홀



로 당한 것처럼 한다고 해서 참성품을 돌아보는 밝은이는 사람차별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밝은이가 남의 근심을 함께 나누니 기쁠 때나 평상시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남과 함께 하는 것이다.

밝은이는 근심을 못사람과 함께 하되 홀로 당한 것처럼 한다고 해서 참성품을 돌아보는 밝은이는 사람차별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밝은이가 남의 근심을 함께 나누니 기쁠 때나 평상시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남과 함께 하는 것이다.

삼일신고의 가르침처럼 감정은 성품과 마음을 잇는 길의 하나이다.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접할 때 감정이 반드시 수반되어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니 감정은 인간이 외부 세계로 통하는 길이고 문이기도 하다. 이 감정을 통해서 사물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또 동질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람이 서로 같이 있을 때는 기분도 같아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면 '당신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같이 지낼 수는 있지만 느낌이 다르면 같이 있기 어렵다. 친구가 기분이 우울한데 나는 좋은 일 있다고 그 앞에서 웃으며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상갓집 가서 위로의 말을 하고 같이 슬퍼해줘야 하지 복권이

라도 되었다고 웃고 다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때 웃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혼자 웃어야 한다. 또 다들 기쁘는데 나만 혼자 슬프다면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오기 마련이다. 서로 대화하다가 기분이 상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고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배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피지배자로 생각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며 또 자기가 피지배자라는 느낌이 들면 분개하며 상대방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공감하고 같이 느껴야 한다.

우리 겨레의 훌륭한 가르침과 전통을 이어받으면 사람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감정노동을 강요시키면서 사람을 혹사시키지 않고 같이 느끼고 더불어 살 것이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 시대에 건국신화의 재세이화 흥인인간 이념에 공감하면서 동행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기행문 | 國學踏查記

# 단군, 만주, 그리고 국학

-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기 위해 4박 5일 걸었다-

김 종 성 | 본연구소이사

이 기행문은 본연구소가 단기4347(2014)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본연구소의 이사진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행한 만주국학유적답사 후기를, 본연구소의 김종성 이사가 '단군민족 정신회복 국학답사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것이다.(편집자주)

## 첫째 날 | 8월 13일(수)

요즘의 여행의 의미는 옛날에 비하여는 많이 퇴색해 보인다. 오늘날은 예전보다 여행의 기회도 많다 보니 여행에 대한 즐거움 자체로 끝나고 의미에 대한 회상은 덜 한 것 같다.

여행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고 한가로운 여정을 통하여 마음과 정신을 충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의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높은 산을 오르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또한 광활한 벌판을 달리면서 천지(天地)의 드넓은 기운을 마시고 웅대한 기상을 기르는 일 또한 여행이 가지는 묘미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책과 얘기로만 간접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대대손손

변치 않는 강역을 돌아보며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물의 상황에 비추어 고금에 변해온 자취를 찾아 보는 것은 참으로 여행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여행은 단순한 리프레시의 차원을 뛰어 넘어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자리 잡은 터전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금을 반추해 보고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의 망국의 시기에 국권회복을 위하여 몸을 던져 독립투쟁을 전개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체험을 해봄으로써, 민족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찾는 작업이 되리라는 확신이 든 것은, 이번 여행의 의무감이 컸다는 반증이리라.

이러한 의무감을 마음에 품고 독수리 같은 매서운 시력과 넓은 시야, 냉철한 가슴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고 약간 몽롱한 상태로 집을 나서 공항으로 향하였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리프레시의 차원을 뛰어 넘어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자리 잡은 터전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금을 반추해 보고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의 망국의 시기에 국권회복을 위하여 몸을 던져 독립투쟁을 전개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체험을 해봄으로써, 민족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찾는 작업이 되리라는 확신이 든 것은, 이번 여행의 의무감이 컸다는 반증이라.

약속 장소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다. 누군가가 가져온 백설기 떡을 나누어 먹으며 설렘으로 가득 찬 허기진 배를 달래어 본다.

일행 20명은 중국 남방항공을 타고 (오후 1시 20분 출발) 인천국제 공항에서 장춘(長春)으로 향하였다. 2시간에 걸쳐 도착하여 일본 만주 괴뢰정부의 박물관인 위만(爲滿)황궁 박물관을 관람하였다.(입장료 80위안, 1만 3,600원 상당)

장춘은 일제가 만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급조한 도시로 만주국의 수도로 삼았으며 초기의 명칭은 신경(新京)이었다.

일제는 꼭두각시 만주국(괴뢰정부)을 만들고 푸이(溥儀: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일본의 의도대로 만주를 지배하

였다.

서기 1931년 일본 관동군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1932년 3월 1일 푸이를 황제로 내세워 괴뢰국을 세웠던 것이다. 만주국은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에 따라 서기 1945년 8월 18일에 붕괴되었다.(관동군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를 조차지로 확보하고 이곳에 주둔할 부대 1개 사단을 파견하였는데 이것이 관동군의 시초였다. 처음에는 여순, 대련 지역에 주둔하였으나 만주 사변 이후에는 만주 전 지역을 관장하였다. 일본은 만주국 설립이전에 이미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국경을 두만강으로 양보하고 만주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여 만주의 경제적 지배권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푸이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간섭할 수 있도록 만든 위만황궁의 설계구조와 시설들을 보면서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려는 일제의 간악하고 사악한 지배방식의 전형을 볼 수 있었다.



위만황궁건물 앞에  
장쩌민의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

박물관 입구 앞뜰에는 강택민(장쩌민) 전 주석이 새겨 놓은 “잊지말자 9.18”(勿忘 9.18)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음을 볼 때 일본

의 침략에 대한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이리라.

장춘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일행은 이도백하로 향하였다. 전세버스로 7시간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날은 어둑해졌다. 이도백하로 향하는 길은 한국의 60~70년대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을 달리는 기분이었다.

장춘에서 이도백하(二道白河)로 가는 길목에는 길림(지린)시와 돈화시가 있는데 길림성의 성도가 길림시가 아닌 것이 이상해 보인다.

특히 돈화시는 발해 고왕 대조영이 서기 698년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대진국의 국호로 발해를 건국한 동모산이 있는 곳이다. 한 마디로 발해의 수도였던 곳이다.

일제 패망 시 장춘이 점령당하자 최후 항전을 계획했던 곳이 돈화시였음을 볼 때 동모산을 중심으로 한 돈화 지역이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요새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일정상에는 빠졌지만 언젠가는 한번 꼭 가봐야 할 곳이다. 발해의 체취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침이 못내 아쉽다.

새벽3시에 백두산아래 이도백하 마을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첫째날 여장을 풀은 이도백하의 明湖호텔

## 둘째 날 | 8월 14일(목)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5시에 일어나 조식 후 6시에 백두산으로 출발하였다.

캄캄한 새벽에 도착하느라 보지 못했던 시내의 모습이 보인다. 백두산 아래 첫 동네라는 이도백하(二道白河),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송화강 상류가 이도백하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이도백하의 거리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모든 간판은 한글과 한문이 병용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선족 연변자치주이므로 모든 상호의 병용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한글을 먼저 쓰고 한문을 나중에 쓰도록 되어 있다.(위아래로 쓸 경우 위에는 한글, 아래는 한문으로, 좌우로 쓸 경우에는 좌측에 한글, 우측에 한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요 독립군의 후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매우 편안해짐을 느낀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백두산(중국인들은 長白山으로 불렀다) 길가의 나무들은 장백낙엽송이라고 하며 늘씬늘씬하게 짝짝 뻗은 미인송(美人松)이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뽐낸다. 백두산에 가까워 올수록 삼림(침엽수)은 더욱더 우거져 마치 열대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강수량이 적은 미국 서부지역이나 유럽, 중국의 해안지역의 민둥산과 비교하면 마음의 풍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일행을 4박 5일 동안  
편안히 이동시켜준 버스

아침 7시 임에도 백두산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길은 중국 쪽에서는 북파 코스와 서파 코스인데 우리 일행은 북파코스를 선택하였다.



백두산 초입부터 늘어서 있는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백두산은 6월부터 8월까지가 관광 성수기라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막바지 8월은 방학에 휴가철까지 겹쳐 관광의 절정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리라.

진행요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정한 단위로 입구를 통과하니 또다시 사람의 산과 사람의 바다를 만났다. 인산인해에 몸을 맡기니 사람들의 부딪힘이 구름 가듯 하도다. 저절로 버스 승강장에 도착하니 30인승 셔틀버스에 몸

을 맡기게 되었다(입장료 120위엔, 셔틀버스비 80위엔).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비친 백두산의 삼림은 하늘을 찌르는 자작나무의 위용이 매섭고 길 중간 중간에 맹수의 출현을 경계하는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자연의 세계가 여기 있고 동물조차 인간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연의 낙원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중간에서 다시 10인승 봉고차로 갈아타고(일인당 80위엔) 백두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운전하는 운전사는 곡예단의 마술사 같고 타고 있는 승객은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었다. 이들은 분명 보통 운전면허증이 아닌 특수 운전면허증의 소유자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올라가는 중간 차 안에서 바라보는 아래의 광경은 분명 천평(天坪)이리라.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저 넓은 들판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땅을 일구며 천신을 받들며 하늘을 노래하고 말을 달리며 천하를 호령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쳤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흥익인간의 인류 보편 철학과 자연의 이치로 다스리는 이화세계를 펼쳤던 것이다.

백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북한쪽의 장군봉으로 2,750미터이고 우리는 중국지역 북파쪽으로 올라갔는데 천문봉이 있는 곳이다. 천지의 최대 수심은 373미터, 평균수심은 204 미터, 천지둘레는 14킬로미터, 호수의 물의 양은 20억 입방미터이다.

드디어 백두산 정상은 우리는 반기고 우리는 백두산의 따뜻한 품안에 안기었다.





우리 일행이 운종계도 볼 수 있었던  
백두산 천지의 장엄한 모습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기슭의 흙을 긁어 냄새 맡고 입맞춤하니 백두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 백두산은 상봉을 중심으로 남북 1천여리, 동서 6백리의 면적에 주로 현무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백두산 정상에도 흙과 함께 현무암의 돌들이 같이 뒹굴고 있다.

정상에서 내려다 본 천지(天池)의 모습은 백두산의 크고 작은 봉우리에 둘러 쌓여 보호받는 느낌이라. 이는 성스러운 보물을 지키는 천군(天軍) 대장들의 모습이라. 이는 한민족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번성하리라는 뜻이리라.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지는 주변의 오빠들의 보호를 받는 어린 소녀처럼 쪽빛 치마를 걸치고 수줍어하며 넘실대는 모습이 봄바람에 일렁이는 아지랑이와 같다.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백두산 천지의 장대한 모습은 나의 허전한 마음을 일시에 채워주니 이것이 바로 배달의 혼이요 단군 한배검의 정신이리라. 배달민족의 영광과 회한이 함께 밀려오는 벅찬 감정을 어찌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저절로 서원심(誓願心)이 우려

나왔다.

배달민족의 혼의 뿌리요 정신의 기원인  
민족의 시원 단군 한배검께 원도하오니  
올바른 민족의식을 자각하여  
본연의 혼을 되찾아  
한민족의 자발적 증진과  
세계 인류의 올바른 도덕적 인도를  
이루게 하소서!  
이 한 몸 비록 미약하나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보내 주시고  
전위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일심단결하여  
홍익의 길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백두산 천지는 변화무쌍한 기후 때문에 등정한 사람들이 대부분 천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기 일쑤이다. 안내자는 백두산의 이름의 유래가 백번 가면 천지를 두 번밖에 볼 수 없다 하여 지어졌다는 농담으로 특별한 일자와 시간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보통사람들에게는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백두산 천지의 모습은 국학연구소 답사단 20명에게 커다란 행운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현존하는 신시의 모습처럼 환웅님, 단군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어 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 주시니 이런 홍은(弘恩)이 어디 있을 것인가! 답사단 일행은 참으로 복 받은 단군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된다.

호반에 내려가서 천지의 쪽빛 물을 만지며 배달국의 체취를 직접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경비원이 막아서니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가족들과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기념 선물 몇 개 사고 있는데 가이드는 하산준비를 하자고 재촉을 한다.(오전 10시에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후 등정자들은 천지를 볼 수 없었다)

다시 10인승 차량을 타고 중간 주차장 도착지로 내려와 다시 장백 폭포행 30인승 버스를 타고 폭포에 다다르니 온천수로 익힌 계란 반숙도 팔고 인절미도 팔고 장뇌삼도 판다. 관광객과 상인들이 어울어져 한바탕 왁지지껄거리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활력이 넘치는 생존의 공간이리라.



달문을 넘쳐흐르는 장백폭포의 모습

장백폭포는 백두산 천지를 넘쳐 떨어지는데 처음에 달문을 빠져 나온 천지의 물은 천문봉과 용문봉 사이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통천하를 따라 흐르다가 장백폭포에 도착하는데 68미터의 수직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 낙하의 폭포 물이 엄청난 양이라 백두산 천지에서 자연적으로 샘솟는 지하 샘물의 양이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었다.

장엄한 폭포수의 위엄처럼 우리 한민족의 위엄이 다시 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다시 백두산 입구로 내려오니 장사진을 치던 입장객은 간 데 없고 벌써 뿔하니 텅 비어 있는 상황을 보노라니 인간의 대중이 시간에 맞추어 다니는 속성을 느끼게 한다.

다시 전세 말을 달려 백두산 아래 첫째 마을 내두산촌에 다다르니 마을의 흔적은 간데 없고 항일유적지 석비만 우리를 반겨준다. (항일운동 근거지의 하나로 지목되어 일제군인에 의하여 마을이 토벌되어 없어졌다고 함)

내두산촌은 1920년 서로군정서 김동삼 장군이 항일투쟁활동을 전개했던 곳이며 이도백하에 속해 있다.

점심을 이도백하촌 강원도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 음식 맛이 한국의 맛과 매우 비슷하고 한국말을 쓰는 강원도 할머니의 많이 먹으라는 성화에 포식하게 되었다. 또한 백두산 술이 맛있다하여 한잔씩 마시니 백두산 선경에 선인이 따로 없다. 식사 중에 흥이 났는지 박종민 군이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기에 정식으로 노래를 청해 들으니 '바위섬' 과 '동반자'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불러 일행들을 즐겁게 하였다.

백두산 영산에서 우리 민족의 시원을 확인하고 국조 단군님을 영적으로 뵈었으니 이제 대중교 선열들의 살아 있는 숨결을 찾아 청산리, 봉오동, 청호촌, 왕청현으로 떠나보자.

청산리 전투 격전지를 찾아가는 길은 험로 그 자체였다. 직진 길은 비포장에 공사 중이라 우회하여 길을 가다 보니 1시간 거리가 3



청산리대첩기념비 앞에선 필자의 모습 시간에 걸렸다. 도착하니 청산리 대첩비가 우리를 반긴다.

청산리 전투는 봉오동 전투와 함께 항일 독립운동사에 길이 빛날 사건이다. 우리 독립 투사들이 혁혁한 전공을 세워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전투였다.

일제 군에 맞서 열위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전투를 이끌어낸 탁월한 전략 전술의 승리라 할 수 있다.(나중에 경신참변과 북벌 장작림의 토벌을 당하여 민간인이 피해를 당하는 화를 당하였다)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참모장)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의 대부대로 맞아 소수의 병력으로 물리친 전투였다.

삼가 독립군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 됨을 너무나 감사드린다.

청산리전투지를 나와 해란강을 건너 화룡

현 삼중사묘역으로 향했다. 삼중사 묘역은 용정 방면의 청호(청파호)에 위치에 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삼중사 묘역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반갑다기 보다는 만감이 교차했다. 정신적 교감으로는 35년이 되었으나 실물(형상)의 뵈움은 처음이라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슴을 억눌렀다.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제(祭)를 지내니 죄인의 마음을 만에 하나라도 씻었을까?



삼중사묘역이라는 아니라 '반일지사무덤'으로 적혀 있는 표지석

박성신 이사장(국학연구소)의 분향과 삼배에 이어 김동환 위원의 발제 원도문 낭독으로 이어지고 참배자 모두 삼배를 공손히 드리니 공식행사는 끝나고 제사떡을 모두 나누어 먹었다. 그 떡이 왜 그리 맛있던지, 삼중사님들의 눈물의 공적을 우리가 받아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죄스럽게 느낄 뿐이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선조의 죄를 다 대속할까?

**“정신적 교감으로는 35년이 되었으나 실물(형상)의 뵈움은 처음이라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슴을 억눌렀다.”**





삼종사의 묘소(상)와 제를 올리는 광경(중),  
그리고 삼종사묘역 안내문(하)

홍암 대종사님, 무원종사님, 백포종사님, 너무나 존경스럽고 경의스러우신 분들!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인의 마음이라, 가슴으로 울고 마음으로 울고 머리로 울고 생각으로 우나니 흘러내리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하직하니 언제 다시 뵈옵지! 다시 꼭 뵈옵겠다고 다짐하였다.

떠남이 아쉬워 묘역에 잡초를 뽑으며 손으로 어루만지고 아쉬움을 달래고 천수로 묘역



둘째날의 숙박장소였던 연변대주호텔 주변에 흠향하도록 뿌리니 마음이 조금은 안정됨을 느꼈다.

발해 3대 왕 문왕께서 동묘산에서 천도하신 발해 중격현덕부는 저녁이 되어 보지 못하였다.

용정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시내 대주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화룡 용정은 연변자치주에 속하여 모든 간판이 한글표기를 의무화하여 한글 밑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 셋째 날 | 8월 15일(금)

3일 째는 아침식사 후 7시30분에 봉오동 전투 전적지를 출발하였다. 봉오동계곡은 댐 건설로 수몰되었고 전적지 비석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청산리 전투에 앞선 봉오동 전투는 흥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일본군을 패퇴시킨 독립군 최초의 승리 전투였다.

신호철이사(민족문제연구소 대구 지부 홍보국장)가 가져온 플래카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봉오동전적지 입구에 세워진 저수지 표석(상)과 전적기념비 앞에서의 필자(하)

왕청으로 이동하여 북로군정서 사관 양성소와 부대가 주둔한 십리평과 지휘부가 있어 덕원리를 답사하였다.

왕청현 시내에서 서대하를 지나 40키로(100리)를 달리니 십리평이 나오고 북로군정서 독립군이 주둔한 훈련소와 사관연성소가 있었던 잣덕 언덕이 나타난다.

도로변에는 십리평 소학교의 팻말만이 옛 영

광을 말없이 지키고 있다.



폐곡 된 십리평소학교 정문 앞에 선 필자

십리평 독립군 주둔지는 1년의 시간 동안 제1회 사관 양성 298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청산리 전투를 마지막으로 주둔지를 떠났고 나중에 중국 북벌 정작림 부대에 의해 폐허되었다.(장작짐은 사전에 독립군에게 토벌사실을 알리고 토벌하여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00리를 들어가는 계곡은 갈수록 협곡이 되어 일본군이 들어오면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로써 지리적 지형을 감안하여 장소를 정했음을 알 수 있다.

왕청시내 반대편으로 20리 정도 들어가면 북로군 정서 지휘부와 대중교 동도 본사가 있는 덕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덕원리는 원래 서일 백포종사님이 함경도 경흥에서 6식구(부친 처 여식 2 아들)를 데리

고 1911년경 이주해 와 정착한 곳으로 동명 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도 같이 해오시던 곳이다.



덕원리의 언덕에서 필자의 內子인  
나도숙 여사(홍암대종사의 증손녀)

이곳으로 이주 후 1911년에 대종교에 봉교하여 대교에 헌신하였고 교리와 수행을 병행하였다.

또한 대종교 봉교 후 증광단의 독립군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정의단 그리고 군정부를 거쳐 상해 임시정부로 일원화 시키기로 한 결정에 따라 북로군정서를 개편하고 김좌진 장군과 이범석장군을 영입하여 체계적인 군사훈련과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본 토벌대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접수하고 서둘러 사관학생 제1회 졸업식을 필하여 청산리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한편 덕원리 지휘부는 무기구입과 대외정보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와 타 독립군 조직과의 연계등을 통한 종합적 지휘를 담당하였다. 또한 서일 백포종사님은 군교일치(軍敎一致)를 통하여 독립군 활동과 대종교활동을 같이 하면서 수전병행(修戰並行)을 실천하였다.

북로군정서 총재로서 독립군을 지도함과

동시에 대종교 종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자신도 단군 한배검의 영정을 모신 수도실에서 삼법수행을 실천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본분도 충신했다.(서일 백포종사님은 자유시침변 이후 젊은이들의 죽음에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밀산현 당벽진 뒷산에서 폐기 조식법으로 귀천하셨다. 폐기 조식법은 나철 홍암 대종사님이 1916년 8월황해도 구월산에서 무수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썼던 방법이다)

덕원리에는 지금 집 한 채만 남아있고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군의 토벌에 의해 폐허로 되어 지금은 밭으로 변해 있다. 세월의 무상함과 당시의 망국의 무력을 느낄 뿐이다. 가슴으로 백포종사님의 패기와 정신을 느끼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모시는 양심 있는 배달 한국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왕청 시내에서 식사를 하였다. 운남 쌀국수집인데 2인분 한그릇이 5위엔으로 맛있었는데 매우 저렴하였다. 20명이 50위엔으로 점심을 해결하였다.

점심 후 영안현으로 이동하여 동경성에 도착하였다. 동경성은 발해 용성기에 황궁이 있던 곳으로 그 크기로 미루어 장안성과 같은 규모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발해역사 박물관에는 말갈에 의하여 지배한 지방국가로 표시해놓고 말갈은 만주국의 선조로 표기해 놓았으나 잘못된 표현이다.

발해는 220년만에 거란족에 의해 멸망했지만 (임찬경박사는 정권해체로 지칭했는데 이유는 중앙정권은 침공당했지만 지방정권은 건재하여 2년만에 거란족이 철수하고 이후



여진족 아골타에 의하여 금나라가 세워진 다.(여진족은 고구려에 의하여 복속됐던 북옥저와 읍루의 후예이다)



발해역사박물관 앞에 선 필자

발해는 중국에 까지 해동성국으로 칭송 받던 만주의 강대국이다. 영토로는 서만주, 한반도 북부까지 아우르는 대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사방 둘레가 16킬로미터 의 광대한 황궁은 외성입구에서 내성까지의 대주작로의 넓이가150미터에 달하고 길이가 2.5킬로 까지 바닥이 돌로 포장되어 있어 그 웅장한 규모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당시 발해 동경성 상경 용천부 황궁을 방문한 외국 사신은 그 위엄에 놀려 저절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왕궁터와 현무암 기단, 회랑터 등이 당시의 웅대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 크기로 보면 동서 4킬로 남북 4킬로

이며 대주작은 2.5킬로 이며 황궁은 1.5킬로 에 위치해 있다. 기단석의 크기로 미루어볼 때 기둥의 두께가 어마 어마 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위용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겠다.



황궁남쪽으로 뻗은 길(상)과 상경용천부 조성계획도(중), 조성계획 평면도(하)

황궁 서편으로 목단강이 흘러 자연 해자를 형성하고 있어 외세 침략에도 유리한 지형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쪽에는 해자

가 없어 침략의 대비책이 별도로 있었는지는 궁금하다.



상경용천부 황궁 안 뜰(상)과  
성루의 주춧돌 앞(하)에 선 필자

동경성 외곽 북서지역에 목단강과 접한 부

분에 백산 안희제 대형이 운영하던 발해 농장이 있었는데 목단강으로 부터 관계수로의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애 윤세복 종사님은 대중교를 이곳으로 이사하여 대중교 총본사와 발해 보통학교를 세웠는데 그 터는 동경성내 동남쪽에 위치해있었다.



김좌진 장군 기념관 앞에선 필자(상)와  
김좌진 장군 흉상 앞에 선  
신영태 이사의 장자 신규도군의 모습(하)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오니 여기는 김

좌진 장군의 역사 박물관이 자리잡은 해림(海林)의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관내 숙소였다.(이 기념관은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손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사재와 정부의 예산을 받아 건립하였다고 한다)

넷째 날 | 8월 16일(토)

4일째 아침 식사를 기념관 별관에서 하고 문화중심(센터)으로 간판이 걸린 만주 독립운동관인 백야 김좌진장군을 중심으로 꾸며 놓은 역사 전시관을 견학하였다.

현재 관리인이 설명을 들었는데 1관부터 4관까지 잘 정리된 모습이었다. 대종교 삼종사님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관, 독립운동조직을 체계 있게 정리한 전시관이였다.

이제 액하감옥으로 향한다. 대종교 21인이 체포되어 무진 고문을 받고 일제에 의하여 이루 형언 할 수 없는 체벌과 학대를 받으며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고문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대종교 선열 열 분(十賢)이다. 일제에 의하여 저질러진 이 만행이 곧 임오년에 일어나 임오교변이라 한다. 이 때 순교하신 열분의 대종원로들을 임오십현으로 부른다.

지금도 붉은 벽돌로 지은 담벽이 남아있고 담위에는 고압전력이 흐르는 철조망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 가슴을 조이게 한다. 일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독립군 간부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겠다.

본 건물은 2개동이 남아 있으나 앞동은 앞쪽에 약간 현대식으로 시멘트로 개축하여 염색 공장으로 최근까지 사용하였다 하며 주위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사 중에 있

어 (이미 액하 감옥내에서 아파트건축중임) 앞으로 이 건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목단강 액하감옥의 남아있는 모습

일제는 고문을 하여 사람이 죽으면 건너편 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다고 한다.(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이 지역은 만인갱(萬人坑)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 만큼 사람을 죽인 구덩이가 많았다는 뜻이다)

홍암 대종사님의 장자 나정련 대형과 차자 나정문 대형도 이 액하감옥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시신마저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분통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소희(필자의 장녀), 김민지(필자의 3녀) 양이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사와 액하감옥 주위에 억울하게 죽은 선열들께 위로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를 올렸다. 참으로 기특하지 않을 수 없다.

홍암 나철 대종사의 증손녀이자 임오십현의 한 분인 나철 선생 장자 나정련 대형의 손녀인 나도숙 여사는 대성통곡을 하며 발길을 옮기지 못하여 남편(필자)과 신호철 이사가 부축하며 자리를 뜨게 하였다.

민족선열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우리



는 아무것도 아닐 진 데 우리에게 지워진 사명은 너무 무겁기만 하다.



액하감옥의 담벽(상)과 당시 탈출 방지장치로 사용되던 담 위의 전기 애자(하)

이제 하얼빈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광활한 대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껏 넓혀 주거늘 한반도의 답답한 모습과 좁은 영토에서 싸우는 정치인들과 비교가 되도다. 원래 광활한 만주 영토에 기반을 둔 우리 단군 민족들은 이제 웅대한 기상으로 호연의 뜻으로 갖고 세계의 인류를 구하는 도덕과 철학을 지지하여 흥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그리하여 세계 인류가 전쟁이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해야겠다

하얼빈시 아성지역에 도착하니 금태조박물관과 금태조왕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나라는 120년밖에 존속하지 못했지만 만주의 여진족 (북옥저, 읍루의 후예) 으로서 거란족이 2년만에 발해지역에서 물러나니 범단국민족의 후예 금 아골타가 금나라를 창건하였다.(金史에 의하면 아골타는 평주 김한복의 5대손이라 기록함)

아성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별칭으로 금원(金源)이라 부르고 있었다.



금나라의 태조인 완안아골타의 상

창건하자마자 거란을 평정하고 중원지역까지 장악하여 양자강 이남의 남송과 견웅을 겨루었다. 이 후 몽고의 강세로 원나라에 패망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지만 단군 민족의 후예로써 북조시대(발해, 금나라, 청나라)의 맥을 잇게 되었다.(남조는 고려, 근세조선)

금태조 황제릉은 둘레가 1 키로미터 에 달하며 박은식 선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



금태조의 능 앞에 서있는 비문

에서도 금태조를 단군민족의 후예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로 포함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역사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임찬경 박사께서는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발해, 금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대륙사관의 맥을 이어오는 역사관을 정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麗金시대의 강역을 나타내는 지도

이제 하얼빈 시내로 들어간다. 하얼빈은 1900년대 러시아의 조차지였다. 이제 하얼빈 시내의 중앙대가의 상권을 구경해야겠다.

중앙대가는 러시아 조차지 시절 러시아인들이 조성한 상권거리이다. 바닥은 돌로 포장하였는데 그 깊이가 매우 깊어(20센티-30센티로 추정) 오래되었음에도 그 견고성이 대단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중앙 대가를 통하여 20분정도 걸어가니 송화강이 나왔다. 송화강은 서울의 한강보다도 훨씬 넓은 크기의 강으로 보이며 물의 넘실거림으로 보아 물의 유량도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송화강은 백두산 장백폭포로부터 발원한 백두산 유일의 직원(直源)의 강으로써, 만주에서 단군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강이기도 하다.(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지만 장백폭포 처럼 직원은 아니다)



송화강에서 임찬경 연구원과 함께

중앙대가 구경을 마치고 만두 전문집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 오늘은 답사일정 마지



막 밤이라 만두로 포식을 하였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였다.

게다가 송태화 고문께서 고량주를 특별히 제공해 주셔서 흥을 돋우며 즐거운 만찬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1차(식사), 2차(노래방) 개념이 없고 식사 장소에서 식사와 여흥을 동시에 즐기는 현지 관습에 따라, 최순연 교장 선생님(정길영 박사님 부인)의 사회로 여흥 시간을 가졌다.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면서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도 각오와 회환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속연해지기도 하였다.

홍암 나철 대총사의 증손녀인 나도숙 여사는 액하 감옥에서 일제의 혹독한 고문 끝에 할아버지 나정련 대형과 작은 할아버지 나정문 대형을 잃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쳐 흘러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바다가 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종민군이 바위섬과 유행가 노래를 참으로 구성지게 부르며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다.

김종성 이사와 박성신 이사장, 임찬경 박사의 소감을 듣고 끝마쳤다. 하얼빈 곤륜(KUNLUN)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다섯째 날 | 8월 17일(일)**

곤륜호텔은 하얼빈 역에서 매우 가까이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200미터 앞 하얼빈 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기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요청하여

2014년 금년에 세워짐)을 방문하니 하얼빈역 앞에는 이른 아침임에도 오고가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흑룡강성의 성도임을 짐작케 한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철도역 내 현장을 목격하고 기념관을 둘러 보면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안익사기념과(상), 친필회호(중), 그리고 역안에 있는 저격 장소(하)

안익사는 이등박문 저격 후에도 심판대에

서 일본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동북아 평화론을 주장하며 강개비분하며 대한의 아들로서 담대한 모습으로 대한국민의 기개를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내에 전시된 여러 유물들 중 유독 경천(敬天)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3대 정신이 경천(敬天), 송조(崇祖), 애인(愛人)의 정신이 아닌가.

하얼빈 박물관을 견학코자 하였으나 정전으로 입장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답사 마지막 코스인 일본군의 생체실험장인 731부대를 방문하였다.

일제는 2차대전 전쟁물자에 대비하여 사람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고 화학무기를 만들어 테스트하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체포된 독립투사, 중국의 항일투사, 심지어 중국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3000명이 희생되는 잔혹한 악행이 이루어 졌다.



731부대의 모습

『펠로폰네소스(Peloponnesian)전쟁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전쟁은 폭력교사이며 인간을 잔인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27년 동안의 전쟁의 환경이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듯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경우에도 명치유신이라는 근대화의 좋은 기회를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국가관으로 전쟁의 환경으로 몰아감으로써 일본은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물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인들도 근본적으로는 순종적인 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전국시대에서 순종적이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다고도 한다.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도 보아 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작금의 아베 총리처럼)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알게 되고 정치가들은 국민들을 호도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어 국제사회의 협조자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파괴자로서 죄를 짓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려는, 특히 힘 앞에서는 무조건 굴복하는 일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순종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전쟁에 끌어 들이고 순진한 백성들도 전쟁의 논리에 빠져들어 잔인해져 가는 극한의 경우를 우리는 731부대 생체 실험 현장에서 목도하게 된다.

그들이 전쟁에 몰입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를 힘썼다면 지금은 매우 평화로운 세상에서 정다운 이웃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민족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점심을 '한라산'이라는 한식당에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으로 오랜만에 김치와 함께 먹으니 힘이 솟는 것 같다.

이제 하얼빈 공항으로 출발한다. 헤어진다 고 생각하니 조금의 섭섭함이 있었는지 임찬경 박사께서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

우리의 귀염둥이 신규도군(신영태 이사 장남, 8살)이 마이크를 잡고 텍사스 아저씨(필자)로부터 배운 '무법의 도시 텍사스'를 멋지게 읊조리며 황금박쥐로 노래로 마무리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나와 금번 답사의 소감을 밝히면서 내년의 답사(아마 몽골과 중국북부의 북부여지역이 될 것 같다)를 기

약하고 참여를 약속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을 마감하였다.

하얼빈에서 중국남방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니 다시 반도사관에 사로잡힌 기존 식민사학계의 역사관에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 단군 배달민족의 터전이었던 광활한 별판의 만주처럼 호연지기와 심연한 사고가 한반도의 남단과 북단에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본다.

금번 국학 만주 답사에 기획하고 끝까지 일정상에 큰 누나처럼 챙겨 주신 최경주 이사님, 그리고 연구소의 여러 이사님들, 이번 국학기행의 해설을 맡아주신 임찬경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산리항일전적비 앞에서 답사단 일행 기념 촬영

국학 선열의 가르침 | 先烈高談

# 역사를 바르게 보려면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총론’에서—



이 글은 국학 선열인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총론」에 나오는 글이다. 역사를 쓰는 자들과 역사를 읽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를 일깨우는 것으로, 누구나 숙지해야 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총론」의 1장은 생략하고 2장부터 5장까지를 싣는다.(편집자주)

## 제 2 장

### 史의 3대 원소와 조선 舊史의 결점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지으란 것이요, 역사 이외에 무슨 딴 목적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사회의 유동상태와 거기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요, 저작자의 목적을 따라 그 사실을 좌우하거나 덧붙이고 혹은 달리고칠 것이 아니다.

화가가 사람의 상을 그릴 때 연개소문(淵蓋蘇文)을 그리자면 모습이 괴걸(魁傑)한 연개소문을 그려야 하고, 강감찬(姜邯贊)을 그리자면 몸집이 왜루(矮陋)한 강감찬을 그려야 한다. 만일 이것과 저것을 억제하고 드날릴 마음으로 털끝만큼이라도 서로 바꾸어 그리면 화가의 본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인

의 면목도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영국사(英國史)를 지으면 영국사가 되고 노국사(露國史)를 지으면 노국사가 되며, 조선사를 지으면 조선사가 되는 것인데, 기왕에 조선에 조선사라 할 조선사가 있었더냐 하면 수궁하기 어렵다.

안정복(安鼎福)이 『동사강목』을 짓다가 개연히 내란의 잣음과 외적의 출몰이 동국(東國)의 고사(古史)를 흔적도 없게 하였음을 슬퍼하였으나, 나로서 보건대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적의 전쟁에서보다 곧 조선사를 저술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더 없어졌다고 본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역사란 머리에 쓴 말과 같이 시간적 공간적 발전으로 되어오는 사회 활동 상태의 기록이므로 때[時], 곳[地], 사람[人] 세 가지는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원소라. 이 원소들이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신라가 신라됨은 박(朴), 석(昔), 김(金) 세 성과, 돌산 고허(突山古墟) 등 육부(部)의 ‘人’으로써뿐 아니라, 또한 경상도인 그곳[地]과 고구려, 백제와 한 시대로써 신라가 됨이니, 만일 그보다 더 올라가 2천 년 전인 왕검(王儉)과 같은 연대이거나 더 내려와서 2천 년 뒤인 오늘과 같은 시국이면, 비록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성지(聖智)와 육부(六部) 사람들의 질직(質直)과 계림(鷄林:慶州)의 땅을 가졌을지라도 당시의 신라와 똑같은 신라가 될 수 없으며 또 신라의 위치가 유럽에 놓였거나 아프리카에 있었을지라도 또한 다른 면목의 나라는 되었을지언정 신라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명백한 이치인데 기왕의 조선의 역사가들은 매양 그 짓는 바 역사를 자기 목적의 희생으로 만들어서 도깨비도 떠 옮기지 못한다는 땅을 떠 옮기는 재주를 부려 졸본(卒本)을 떠다가 성천(成川) 혹은 영변(寧邊)에 놓으며, 안시성(安市城)을 떠다가 용강(龍岡) 혹은 안주(安州)에 놓으며, 아사산(阿斯山)을 떠다가 황해도의 구월산(九月山)을 만들며 가슬라(迦瑟羅)를 떠다가 강원도의 강릉군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허다한 빙거(憑據)가 없는 역사를 지어 더 크지도 말고 더 작지도 말라고 한 압록강 이내의 이상적 강역을 획정(劃定)하려 하며(我邦疆域考曰 不大不少 克符帝心), 무극(無亟) 일연(一然) 등 불자(佛子)가 지은 역사책(三國遺事)에는 불법이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은 왕검시대(王儉時代)부터 인도의 범어(梵語)로 만든 지명, 인명이 가득하며, 김부식(金富軾) 등 유가(儒家)가 적은 문자

(三國史記)에는 공자, 맹자의 인의를 무시하는 삼국(三國) 무사의 입에서 경전(經典)의 문구가 관용어처럼 외워지고, 삼국사열전에 수백 년 동안 조선 전역의 인심을 지배하던 영랑(永郎), 술랑(述郎), 안상(安祥), 남석행(南石行) 등 사대성(四大聖)의 논설은 볼 수 없고 지나 유학의 한 학생인 최치원(崔致遠)만 세세히 서술하였으며, 여사제강(麗史提綱)에 원효(元曉), 의상(義湘) 등 여러 철인들의 불학(佛學)에 영향된 고려 일대의 사상의 어둠은 볼 수 없고, 왕태조(王太祖) 통일 이전에 죽은 최응(崔凝)이 통일 이후에 그가 올렸다는 간불소(諫佛疎)만 적혀 있다.

조선사를 지은 기왕의 조선의 史家들은 매양 조선의 흑을 베어내고 조선사를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이 쓴 안경이 너무 볼록하므로, 조선의 눈이나 커나 코나 머리 같은 것을 흑이라 하여 베어버리고 어디서 수 없는 무수한 흑을 가져다가 붙여놓았다.

...

조선인이 읽는 조선사나 외국인이 아는 조선사는 모두 흑 붙은 조선사요, 옳은 조선사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허다한 때[時]의 구속을 받지 않는 역사를 지어 자가의 편벽한 신앙의 주관적 심리에 부합시키려 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람[人]까지 속여 신라의 금왕(金王)을 인도의 찰제리종(刹帝利種:왕족)이라 하며(三國遺事), 고구려의 추모왕(鄒牟王)을 고신씨(高辛氏)의 후손이라 하며(三國史記), 게다가 조선 전민족을 진한(秦漢)유민(동국통감 삼국사기 등)혹 韓人之東來者(동사강목)라 하기까지 하였다. 이조 태종에 이르러서는 더욱 조선 사상의 근원이 되는 서운관(書雲觀:觀家臺)의 책들을 공자의 도(道)에 위배된다하여 불태워버렸다.

이두형(李斗馨)이 말하기를, “근일의 어느 행장(行狀)과 묘지명(墓誌銘)을 보든지, 그 주인공이 반드시 용모는 단엄(端嚴)하고 덕성은 충후(忠厚)하며, 학문은 정주(程朱)를 조종으로 삼고 문장은 한유(韓柳)를 숭상하여 거의 천편일률(千篇一律)이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그 글도 가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개인 전기(傳記)의 실상을 잃은 데 대한 개탄일 뿐이지마는, 이제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천대하는 춘추(春秋)의 부월(斧鉞)아래에서 자라난 후세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과 습속으로 삼국의 풍속을 이야기하며 문약(文弱) 편소(偏小)에 스스로 만족한 이조 당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주관으로 상고지리(上古地理)를 그리니, 이에 조선(단군)이나 부여나 삼국이나 동북국(東北國:渤海)이나, 고려나 이조-5천 년 이래의 모든 조선이 거의 한도가니로 부여낸 것같이 땅이 늘고 줄어듬에 따라 민족 활동의 활발하고 약해진 점이나 시대의 고금을 좇아 국

민사상이 갈린 금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크롬웰이 화가가 자기의 상을 그릴 때 그 왼쪽 눈 위의 흑을 빼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나를 그리려면 나의 본 얼굴로 그리라고 하였으니, 이말은 화가의 아첨함을 물리칠 뿐 아니라 곧 자기의 참된 상을 잃을까 함이었다.

조선사를 지은 기왕의 조선의 사가(史家)들은 매양 조선의 흑을 베어내고 조선사를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이 쓴 안경이 너무 불룩하므로, 조선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 같은 것을 흑이라 하여 베어버리고 어디서 수없는 무수한 흑을 가져다가 붙여놓았다. 흑 붙인 조선사도 기왕에는 읽는 이가 너무 없다가, 세계가 서로 크게 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왕왕 조선인을 만나 조선사를 묻는데 어떤 이는 조선인보다 조선사를 더 많이 아는 고로 부끄러운 끝에 돌아와 조선사를 읽는 이도 있다.

그러나 조선인이 읽는 조선사나 외국인이 아는 조선사는 모두 흑 붙은 조선사요, 옳은 조선사가 아니었다. 기왕에 있는 기록이 그와 같이 다 틀린 것이라면 무엇에 의거하여 바른 조선사를 짓겠는가? 사금(沙金)을 아는 사람이 모래 한 말[一斗]을 일면 좁쌀만한 금을 하나 얻거나 흑은 하나도 얻지 못하기도 하나니, 우리의 문적(文籍)에서 사료를 구하기가 이같이 어려운지라, 흑 어떤 사람은 조선사를 연구하자면 우선 조선과 만주 등지의 땅 속을 파서 많은 발견이 있어야 하고, 금석학(金石學).고전학(古錢學).지리학.미술학.계보 등의 학자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가 많은데, 그도 그러하거니와

현금에는 우선 급한 대로 있는 사책(史策)을 가지고 득실을 평하며 진위를 비교하여 조선사의 앞길을 개척함이 급무인가 한다.

### 제 3 장

#### 舊史의 종류와 그 득실의 略評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찾는다면 신지(神誌)부터 비롯되겠는데, 신지는 권람(權擘: 선조 때 사람)의 응제시(應製詩: 임금의 명에 의해 지은 시)주에서 단군 때 사관(史官)이라고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로서 보건대 단군은 곧 수두[蘇塗] 임금이고, 신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두 임금의 수좌(首佐)인 벼슬 이름 신치[臣智]이니 (蘇塗와 臣智의 자세한 것은 思想史에 보임), 역대의 신치 들이 해마다 10월 수두 대제(大祭)에 우주의 창조와 조선의 건설과 산천지리의 명승과 후세 사람의 거울 삼을 일을 들어 노래하였는데, 후세의 문사들이 그 노래를 혹은 이두문(吏讀文)으로 편집하고 혹은 한자의 오언시(五言詩)로 번역하여 왕궁에 비장하였으므로 신지비사(神誌秘詞) 또는 해동비록(海東秘錄) 등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 와서는 저작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삼한고기(三韓古記), 해동고기(海東古記), 삼국사(三國史) 등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一然)의 삼국유사가 있었으나, 지금에 전하는 것은 삼국사기와 일연유사뿐인데, 그 전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원인을 생각하건대, 김부식, 일연 두 사람만의 저작이 우수하여 전해진 것이 아니라, 대개 고려 초엽부터 평

양(平壤)에 도읍을 정하고 나아가 북쪽의 옛 땅을 회복하자는 화랑의 무사가 한 파를 이루고, 사대(事大)로 국시(國是)를 삼아서 압록강 안에 구차히 편안하게 있을 것을 주장하는 유교도(儒敎道)가 한 파가 되었다.

두 파가 대치에서 논전을 벌이기 수백 년 만에 불교도 묘청(妙淸)이 화랑의 사상에다가 음양가(陰陽家)의 미신을 보태어 평양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북벌을 실행하려다가 유교도 김부식에게 패망하고, 김부식은 이에 그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삼국사기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 북 두 부여를 떼어버려 조선 문화가 유래한 곳을 진토(塵土) 속에 묻고 발해를 버려 삼국 이래 결정된 문명을 초개(草芥)속에 던지고 이두문(吏讀文)과 한역(漢譯)의 구별에 어두워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한 곳이 몇 군데가 된 것이 많으며, 내사(內史)나 외적(外籍)의 취사(取捨)에 흘러서 앞뒤가 모순되고 사건이 중복된 것이 많아 거의 사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불행히 그 뒤 얼마 안 가서 고려가 몽고에 패하여 흠필렬(忽必烈: 쿠빌라이)의 위풍이 전국을 놀라게 하여 황궁(皇宮)이니 제궁(帝宮)이니 하는 명사(名詞)들이 철폐되고, 해동천자(海東天子)의 팔관악부(八關樂府)가 금지되고, 이로부터 만일 문헌에 독립자존(獨立自存)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일체 꺼려 피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때라 허다한 역사 저서 중에서 유일한 사대사상의 고취자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에 딸려 있는 삼국유사만이 전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당대의 사승(史乘)을 말한다면, 고려 말엽에 임금과 신하들이 고종(高宗)이전의 나라 형세가 강성하던 때의 기록은 더욱 몽고의 꺼리고 싫어함에 걸릴까보아 두려워서 깎아버리거나 고치고, 오직 말을 낮추고 후한 예폐(禮幣)로 북쪽 강대국들에게 복종하여 섬기던 사실만을, 혹은 부연하고 혹은 지어내서 민간에 퍼뜨렸다. 이러한 기록들이 곧 이조의 정인지(鄭麟趾)가 찬술한 고려사(高麗史)의 원전이 되었고, 이조 세종(世宗)이 비상하게 사책(史冊)에 유의하였으나, 다만 그의 할아버지인 태조(太祖)와 아버지인 태종(太宗)이 호두재상(虎頭宰相) 최영(崔瑩)의 북벌군 중에서 모반하여 사대(事大)의 기치를 들고 혁명의 기초를 세웠으므로 권근(權近)·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조선사략(朝鮮史略),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등을 편찬하게 함에 있어 몽고의 압박을 받던 고려 말엽 이전의 조선의 각종 실기에 의거하여 역사를 짓지 못하고 몽고의 압박을 받은 이후 외국에 아첨한 글과 위조한 고사에 의거하여 역사를 지어 구차스럽게 사업을 마치고, 정작 전대(前代:고려)의 실록은 민간에 전해짐을 허락하지 않고 규장각(奎章閣) 안에 비장해두었는데 임진왜란의 병화(兵火)에 죄다 타버렸다. 그 뒤에 세조(世宗)가 단종(端宗)의 자리를 빼앗고, 만주 침략의 꿈을 품고서 강계(江界)에 둔병(屯兵)을 경영하다가,

1) 자기네 태조의 존명건국(尊明建國)의 주익에 충돌되어 여러 신하들이 다투어 간하는 일이 분분하고,

2) 지나 대륙에 용맹하고 억센 명나라 성조(成祖)가 있어 조선에 대한 감시가 엄중하고,

3) 마침내 명나라 사신 장영(張寧)이 엄중히 둔병의 이유를 힐문하므로,

세조의 그 무(武)를 숭상하고 공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조선 문헌의 정리를 자임(自任)하여 불경을 간행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외에 사료의 수집에도 전력하여 조선 역대 전쟁사인 동국병감(東國兵鑑)과 조선 풍토사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고(동국병감은 文宗때, 여지승람은 成宗때 편찬), 그밖에도 허다한 서적을 간행하였으니, 비록 큰 공헌은 없으나 얼마간 공적은 있었다 할 것이다. 선조(宣祖), 인조(仁祖) 이후에는 유교계에 철학, 문학의 큰 인물이 배출되고 사학계도 차차 진보되어 허목(許穆)의 단군, 신라 등 각 세기(世紀)가 너무 간략하기는 하나 왕왕 독특한 견해가 있으며, 유형원(柳馨遠)은 비록 역사에 관한 전문 저서가 없으나, 역대 정치제도를 논술한 반계수록(磻溪隋錄)이 또한 사학계에 보탬이 적지 않았으며, 한백겸(韓百謙)의 동국지리설(東國地理說)이 비록 수집 줄에 지나지 않는 간단한 논문이지마는 일반 사학계에 큰 광명을 열어서 그 뒤 정약용(丁若鏞)의 강영고(疆域考)며, 한진서(韓鎭書)의 지리(地理)며,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실린 강역론(疆域論)이며, 그 밖의 조선 역사 지리를 설(設)하는 사람은 모두 한 선행의 그 간단한 지리설을 부연하였을 분이다.

나로서 보건대, 그 지리설 중에 삼한과 조



선을 분리함이 범엽(范曄:後漢書의 저자)이 전한 동이열전(東夷列傳)의 지리를 설명함에는 족하나, 이로써 조선 고대 3천 년 동안의 지리를 단정하여, “동국(東國)은 옛날부터 한강 이남을 삼한(三韓)이라 하고 한강 이북을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은 너무도 맹목적이요, 무단적(武斷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선생이 삼신(三神) .삼경(三京) .삼한(三韓). 삼조선(三朝鮮).의 연락적 관계와 발조선(發朝鮮). 발속신(發肅愼). 부여조선(夫餘朝鮮). 예맥조선(濊貊朝鮮). 진국(震國). 진번조선(眞番朝鮮). 진한(辰韓). 마립간(麻立干). 마한(馬韓). 모한(慕韓) 등이 동음이역(同音異譯)임을 몰랐으므로 이 같은 큰 착오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이열전에 보인 삼한의 위치는 선생이 비로소 간단명료하게 분석해서 밝혀 기왕에 역사의 기록만 있고 역사의 연구는 없었다고 할 만한 조선사학계에서 선생이 처음으로 사학의 실마리를 열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안정복은 평생을 열사 한 가지에만 노력한, 5백 년 이래 유일한 빈한한 선비로서 서적의 열람이 부족하여 삼국사기 같은 것도 그 늘 그막에야 겨우 남이 베낀 틀린 글자가 많은 것을 얻어 보았으므로 그가 저술한 동사강목에 궁예(弓裔)의 국호를 마진기(摩震紀)라 한 웃음거리를 남겼으며, 지나의 서적 중에서도 참고에 필요한 위략(魏略)이나 남제서(南濟書)를 같은 것이 있음을 몰라서 고루한 구절이 적지 아니하다.

게다가 시대에 유행하는 공구(孔丘:孔子)

의 춘추(春秋)며, 주희(朱熹:朱子)의 강목(綱目)의 옹덩이에 빠져 기자본기(箕子本紀) 아래 단군과 부여를 덧붙이로 하였으며, 신라 마지막 판에 궁예와 왕건을 참주(僭主)로 한 망발도 있고 너무 황실 중심의 주의를 고수하여 정작 민족 자체의 활동을 무시함이 많았었다.

그러나 연구의 정밀하기로는 선생 이상 가는 이가 없었으므로 지지(地志)의 잘못된 교정과 사실의 모순의 변증(辯證)에 가장 공이 많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종휘의 수산집(修山集)은 단군 이래 조선 고유의 독립적 문화를 노래하여 김부식 이후 사학가의 노예 사상을 갈파하였는데, 특별한 발명과 채집은 없다 하더라도, 다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또한 영원히 남을 일이다.**

유혜풍(柳惠風)의 발해고(渤海考)는 대씨(大氏) 3백 년 동안 문치(文治)와 무공(武功)의 사업을 수록하여 1천여 년이나 사학가들이 압록강 이북을 베어버린 결함을 보충하였고 이종휘(李鍾徽)의 수산집(修山集)은 단군 이래 조선 고유의 독립적 문화를 노래하여 김부식 이후 사학가의 노예 사상을 갈파하였는데, 특별한 발명과 채집(採集)은 없다 하더라도, 다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또한 영원히 남을 일이다.

한치운(韓致淵)의 해동역사(海東繹史)는

오직 지나. 일본 등의 서적 가운데 보이는 우리역사에 관한 문자를 수집하여 거연히 방대한 저술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삼국사(三國史)에서 빠진 부여. 발해. 가락(駕洛). 속신(肅愼) 등도 모두 한 편의 세기(世紀)를 구성하였으며,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없는 저근(姐瑾). 사법명(沙法名). 혜자(慧慈). 왕인(王仁) 등도 각각 몇 줄씩의 전기(傳記)가 있고 궁중어(宮中語). 문자. 풍속. 등의 부문이 있다.

게다가 그의 조카 한진서(韓鎭書)의 지리속(地理續)이 있어서 뒷사람들의 고증의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또한 역사학에 두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1) 너무 글자 사이에서 조선에 관한 사실을 찾다가 민족 대세의 관계를 잃었으니 곧 부루(夫妻)와 하우(夏禹)의 대 국제교제로 불오월춘추(吳越春秋)의 주신(州愼)의 창수사자(蒼水使者)와 2천 년 동안 흥노와 연(燕)과 삼조선(三朝鮮)이 혹은 화의하고 혹은 싸운 전후 큰 일들을 다 빠뜨렸고,

2) 유교의 위력에 눌러 고죽국(孤竹國)이 조선족의 갈래임을 발견치 못하는 동시에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성명을 빠뜨렸고,

3) 서적의 선택이 정확하지 못하였으니, 진서(晉書)의 속석전(束皙傳)에 의하면, “우(禹)임금이 백익(伯益)을 죽이고, 태갑(太甲)이 이윤(伊尹)을 죽였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이 죽서기년(竹書紀年)의 진본(眞本)이요, 현존한 죽서기년은 가짜인데, 이제 그 가짜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무릉서(武陵書)는 당나라 사람의 위

조인데, 그대로 인용하여 인용하였고, 이 밖에 지나인이나 일본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서 우리 나라를 속이고 모욕한 것을 많이 그대로 수입하였으니, 이것이 그 책의 결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조 일대의 일을 적은 역사로 말하면, 내가 일찍이 정종조(正宗朝) 한때의 기록을 엮은 수서(修書)라는 아주 잔글자로 쓴 2백 권의 거질(巨帙)을 보았었고, 만일 관서(官書)인 국조보감(國朝寶鑑), 조야첨재(朝野僉載) 등을 비롯하여 허다한 개인 저술의 역사서까지 친다면 몇 백의 수레에 찰 것이다.

이태조(李太祖) 이하의 사실을 적은 역사로는 조야집요(朝野輯要),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 몇몇 책을 대강 훑어본 이외에는 자세히 다 읽어본 것이 없으므로 아직 그 낯고 못함을 말하지 못하거니와, 대개 열에 일고여덟이 사색(四色)의 당쟁사(黨爭史)임은 단언할수 있을 것이니 아, 이조 이래 수백 년 동안의 조선인의 문화사업은 이에 끊어졌도다.

이상에 열거한 역사서를 다시 말한다면 대개가 정치사요, 문화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이 못 됨이 첫째 유감이요, 정치사 중에서도 동국통감, 동사강목 이외에는 고금을 회통한 저서가 없고, 모두 한 왕조의 흥하고, 망한 전말로 글의 수미(首尾)를 삼았음이 유감이요, 공구의 춘추(春秋)를 역사의 절대적인 준칙으로 알아 그 의례를 본받아서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기를 위주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나라까지 비방하는 편벽된 논란을 벌임이 셋째 유감이요, 국민의 자감(資

鑑)에 이바지하려 함보다 외국인에게 아첨하려 한 의사가 더 많고(李修山 일파를 제하고) 자기 나라의 강토를 조각조각 베어주어 마지막에 가서는 건국 시대의 수도까지 모르게 만들었음이 넷째 유감이다.

우리의 사학계가 이와 같이 눈멀고, 귀먹고, 절름발이 등 온갖 병을 죄다 가져서 정당한 발달을 얻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 너무 자주 내란과 외환(비교적 오래 편안했던 이조 일대는 제외)과 자연의 재난이 잦았던 것은 그만두고라도 인위(人爲)의 장애를 이룬 것을 들건대,

1) 신지(神誌) 이래의 역사를 비장해두는 버릇이 역사의 고질이 되어 이조에서도 중엽 이전에는 동국통감, 고려사 등 몇몇 관에서 간행한 책 이외에는 사사로이 역사를 짓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이수광(李睟光)은 내각에 들어가서야 고려 이전의 비사(秘史)를 많이 보았다 하였고, 이언적(李彦迪)은 사벌국전(沙伐國傳)을 지어가지고도 친구에게 보임을 꺼려했다. 당대 왕조의 잘잘못을 기록하지 못하게 함은 다른 나라에도 간혹 있거니와, 지나간 고대의 역사마저 사사로이 짓거나 읽는 것을 금함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다. 그리하여 역사를 읽는 이가 별로 없었고,

2) 송도(松都)를 지나다가 만월대(滿月臺)를 쳐다보라. 반쪽의 기와가 남아 있는가? 한 개의 주초가 남아 있는가? 막막히 넓은 밭에 이름만 만월대라 할 뿐이 아닌가? 슬프다, 만월대는 이조의 아버지뻘로 멀지 않은 고려조의 대궐인데, 무슨 병화에 탔다는 설도 없이 어찌 이와 같이 정(情)이 없는 빈터

만 남았는가?

이와 똑같은 예로서 부여에서 백제의 유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평양에서 고구려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서 나오는 결론은 뒤에 일어난 왕조가 앞의 왕조를 미워하여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태워버리기를 위주한 것이다. 신라가 일어나매 고구려·백제 두 나라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었고, 고려가 되매 신라의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었으며, 이조가 대신하매 고려의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어 매양 현재로서 과거를 계속하려 아니하고 말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에 쓰일 자료가 박약해졌으며,

神誌 이래의 역사를 비장해두는 버릇이 역사의 고질이 되어 이조에서도 중엽 이전에는 동국통감, 고려사 등 몇몇 관에서 간행한 책 이외에는 사사로이 역사를 짓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이수광은 내각에 들어가서야 고려 이전의 비사를 많이 보았다 하였고, 이언적은 沙伐國傳을 지어가지고도 친구에게 보임을 꺼려했다.

3) 현종(顯宗)이, “조총(鳥銃)의 길이가 얼마나 되오?”하니, 유혁연(柳赫然)이 두 손을 들어, “이만합니다.”하고 형용하였다. 기주관(記注官:기록을 맡은 관리)은 그 문답한 정형(情形)을 받아쓰지 못하고 붓방아만 찧고

있었다. 유혁연이 그를 돌아보며, “전하께서 유혁연에게 조총의 길이를 물으시니(相問鳥銃之長於柳赫然) 혁연이 손을 들어, ”자, 남 짓이 하고 이만합니다.“고 대답하였다(然舉手尺餘以對曰如是)라고 쓰지 못하느냐?” 하고 구짚었다. 숙종(肅宗)이 박태보(朴太輔)를 친히 문초하는데, “이리저리 잔뜩 결박하고 몽우리돌로 때려라.”하니, 주서(注書) 고사직(高司直)이 서슴없이, 필(必)자 모양으로 결박하여 돌로 때려라(必字形縛之無隅石擊之).“라고 썼다 그래서 크게 숙종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들이 궁정의 한 가화(佳話)로 전하는 이야기이지마는, 반면에 남의 글로 내 역사를 기술하기 힘들음을 볼 것이다. 국문이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 나온 뒤에도 한문으로 저술한 역사만 있음이 또한 기괴하다. 이는 역사 기록의 기구가 부족함ियो,

4) 회재(晦齋:李彥迪)나 퇴계(退溪:李滉)더러 원효나 의상의 학술사상(學術史上) 위치를 물으면 한 마디의 대답을 못 할 것이요, 원효와 의상에게 소도(蘇塗:숫대)나 내을(奈乙:박혁거세의 탄생지)의 신앙적 가치를 말하면 반분의 이해를 못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조의 인사들이 고려 시대의 생활의 취미를 모르며, 고려나 삼국의 인사들은 또 삼한 이전의 생활의 취미를 모를 만큼 반식(飯食). 거처(居處). 신앙. 교육 등 일반 사회의 형식과 정신이 모두 몹시 변하여 오늘의 아메리카 사람으로 내일 러시아 사람됨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이는 역사 사상의 연락이 끊어짐이라, 어디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구명할 동기가 생기랴? 이상

몇 가지 원인으로 하여 우리의 역사학이 올바르게 발달하지 못한 것이다.

3백 년 동안 사색(四色)의 당파 싸움이 크게 국가에 해를 끼쳤다 하지마는, 당론이 극렬할수록 제각기 나는 옳고 저는 그르다는 것을 펴뜨리기 위하여 사사로운 기술이 성행하고 당의 시비가 매양 국정에 관계되므로 따라서 조정의 잘잘못을 논술하게 되어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사사로운 저작의 금지가 깨뜨려져서 마침내 한백겸. 안정복. 이종휘. 한치윤 등 사학계에 몇몇 인물이 배치되었음도 그 결과이다.

혹 어떤 이는, “사색 이후의 역사는 피차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서 가장 역사의 난관이 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시비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 당이 이조의 충신이니, 역적이니, 아무 선생이 주자학의 정통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들뿐이라,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서릿발 같은 칼을 휘둘러 임금의 시체를 두 동강이 낸 연개소문을 궤남아라 할 것이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명륜당(明倫堂) 기둥에 공자를 비평한 글을 붙인 윤백호(尹白湖)를 걸물(傑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냉정한 두뇌로써 회재. 화담. 퇴계. 율곡 등의 학술상 공헌의 많고 적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자학의 정통이 되고 안 됨은 희담(戲談)이 될 분ियो, 노론(老論).소론(少論).남인(南人).북인(北人)의 다툼은 그 정치상에 미친 영향의 좋고 나쁨을 물을 뿐이며, 이조의 충성된 종 되고 못 됨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뿐ियो, 개인

의 사사로운 덕의 결점을 지적하여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혹은 애매한 사실로 남을 모함하여 죽인 허다한 사건들은 그 반면에 있어서 당시 사회 알력의 나쁜 습속으로 국민과 나라를 해친 일종의 통탄할 사료가 될 뿐이다.

“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서릿발 같은 칼을 휘둘러

임금의 시체를 두 동강이 낸

연개소문을

쾌남아라 할 것이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明倫堂 기둥에

공자를 비평한 글을 붙인

尹白湖를

傑物이라 할 것이다.

”

만일 시어머니의 역정과 며느리의 푸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일에 낱낱이 재판관을 불러 그 굵고 곧음을 판결하려 한다면 이는 스펜서의 이른바 이웃집 고양이 새끼 낳았다는 보고 같아서 도리어 이로써 사학계의 다른 중대한 문제를 등한히 할 염려가 있으니, 그냥 던져둬야 옳다. 그리고 빨리 지리 관계라든가, 국민생활 관계라든가, 민족의 성쇠라든가 하는 큰 문제에 주의하여 잘못을 바로 잡고 참된 것을 구하여 조선 사학계의 표준

을 세움이 급무 중의 급무라 생각한다.

## 제 4 장

### 사료의 수집과 선택에 대한 商權

만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여야 하겠느냐 하면 그 대답이 매우 곤란하나, 우선 나의 경과부터 말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16년 전에 국치(國恥)에 발분하여 비로소 동국통감(東國痛鑑)을 읽으면서 사평체(史評體)에 가까운 독사신론(讀史新論)을 지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지상에 발표하고, 이어서 수십 학생들의 청구에 의하여 지나식(支那式)의 연의(演義)를 본받은 역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대동사천녀사(大東史千年史)란 것을 짓다가, 두 가지 다 사고로 인하여 중지하고 말았었다.

그 논평의 독단(獨斷)과 행동의 대담하였음을 지금까지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니와, 그 이후 얼마만큼 분발하여 힘쓴 적도 없지 아니하나 나아간 것이 촛보(寸步)쯤도 못 된 원인을 오늘에 와서 국내 일반 독사계(讀史界)에 호소하고자 한다.

#### 1) 옛 비석의 참조에 대하여

일찍이 서곽잡록(西郭雜錄:저자미상)을 보다가 “신립(申砮)이 선춘령(先春嶺)아래에 고구려 옛 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申砮聞先春嶺下有高句麗舊碑), 몰래 사람을 보내 두 만강을 건너가서 탁본(拓本)을 떠왔는데(潛遣人 渡豆滿江 模本而來), 알아볼 만한 글자가 3백여 자에 지나지 않았다(所可辨識者

不過三百餘字). 그 글에 황제라고 한 것은 고구려왕이 스스로를 일컬은 것이요(其曰皇帝 高句麗王自稱也), 그 상가(相加)라고 한 것은 고구려의 대신을 일컫는 것이었다(其曰相加 高句麗大臣之稱也). “고 한 일절이 있음을 보고 크게 기뻐서, 만주 깊은 산중에 천고(千古) 고사(故事)의 이 빠진 것을 보충할 만한 비석 쪽이 이것 하나뿐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해외에 나간 날부터 고구려 발해의 옛 비석을 답사하리라는 회포가 몹시 깊었다.

그러나 해삼위(海參威: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프스크를 왕래하는 선객들에게 그 항로 중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석혁산악(錫赫山嶽)에 우뚝 서 있는 윤관(尹瓘, 혹은 蓋蘇文)의 기공비(紀功碑)를 보았다는 말이며, 봉천성성(奉天省成)에서 간접으로 이통주(伊通州)를 유람하였다는 사람이 그 고을 동쪽 70리에 남아 있는 해부루(解夫婁: 夫餘의 왕)의 송덕비(頌德碑)를 보았노라는 이야기며, 발해의 옛 서울에서 온 친구가 폭이 30리인 경박호(鏡泊湖: 古史에는 忽汗海)의 앞쪽(북쪽)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와 겨를 만한 1만 길 비폭(飛瀑)을 구경하였다고 하는 말이며, 해룡현(海龍縣)에서 나온 나그네가 죽어서 용이 되어 일본의 세 섬을 가라앉히겠노라고 한 문무대왕(文武大王: 신라)의 유묘(遺廟)를 예배하였다는 이야기 등이 나에게서 귀로 들을 인연만 있었고 눈으로 볼 기회는 없었다.

한번 네댓 친구와 동행하여 압록강 위의 집안현(輯安縣), 곧 고구려 제2의 환도성(丸都城)을 얼씬 보았음이 나의 인생에 기념할

만한 장관이라 할 것이나, 그러나 여비가 모자라서 능묘(陵墓)가 모두 몇인지 세어볼 여가도 없이 능으로 인정할 것이 수백이요, 묘가 1만 내외라는 억단(臆斷)을 하였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이 주는 댓잎 그린 금척(金尺)과 그곳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박아서 파는 광개토왕 비문을 값만 물어보았으며(깨어진 그 땅 위에 나온 부분만), 수백의 왕릉 가운데 천행으로 남아 있는 8층 석탑, 사면이 네모진 광개토왕릉과 그 오른편의 제천단(祭天壇)을 붓으로 대강 그려서 사진을 대신하였고 그 왕릉의 넓이와 높이를 발로 재고 몸으로 견주어서 자로 재는 것을 대신하였을 뿐이었다.(높이 10길 가량이고, 아래층의 둘레는 80발인데, 다른왕릉은 위층이 파괴되어 높이는 알 수 없고 그 아래층의 둘레는 대개 광개토왕과 같음). 왕릉의 위층에 올라가 돌기둥이 섰던 자취와 덮은 기와의 남은 조각과 드문드문 서있는 소나무, 잣나무를 보고 후한서(後韓書)에,

“고구려 사람들은 금은과 재백(財帛)을 다하여 깊이 장사지내고, 돌을 돌려 봉하고 또한 소나무, 잣나무를 심는다(高句麗人金銀財帛 盡於厚葬 環石爲封 亦種松柏).”

고 한 아주 간단한 문구의 뜻을 비로소 충분히 해석하고, ‘수백 원만 있으면 묘 하나를 파볼 수 있을 것이요, 수천 원 혹은 수만 원이면 능 하나를 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천 년 전 고구려 생활의 활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꿈 같은 생각만 하였다. 아! 이와 같은 천장비사(天藏秘史)의 보고(寶庫)를 만나서 나의 소득이 무엇이었던



가? 인재(人材)와 물력(物力)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하루 동안 그 외부에 대한 어설픈 관찰만 있었지마는 고구려의 종교 예술. 경제력 등의 어떠한이 눈앞에 살아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집안현을 한번 봄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한번 읽는 것보다 낫다.” 하는 단안을 내렸다.

그 뒤 항주(杭州)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금석학자 김정희(金正喜:秋史)가 발견한 유적을 가져다가 지나인이 간행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보니, 신라말 고려초의 사조(思潮)와 속상(俗尙)의 참고가 될 것이 많았고, 한성의 한 친구가 보내준 총독부 발행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도 그 조사한 동기의 어떠한이나 주해의 억지로 끌어다 붙인 몇몇 부분만을 제외하면, 또한 우리 고사 연구에 도움될 것이 많았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우리 한미한 서생(書生)의 손으로는 도저히 성취하지 못할 사료임을 스스로 깨달았다.

## 2) 각 서적의 호증(互證)에 대하여

① 일찍이 고려 최영전(崔瑩傳)에 의거하건대, 최영이 말하기를, “당나라가 삼십만 군사로 고구려를 침범하여, 고구려는 승군(僧軍) 삼만을 내어 이를 대파하였다.” 고 했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 50권 중에 이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승군이란 무엇인가 하면, 서궁(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재가(在家)한 화상은 가사도 입지 아니하고 계율도 행하지 아니하며, 조백으로 허리를 동이고 맨발로 걷고, 아내를 가지고,

자식을 기르며, 물건의 운반, 도로의 소재, 도랑의 개척, 성실(城室)의 수축 등 공사(公事)에 복역하며, 국경에 적이 침입하면 스스로 단결하여 싸움에 나서는데, 중간에 거란(契丹)도 이들에게 패하니, 그 실은 죄를 지어 복역한 사람들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았으므로 이인(夷人:오랑캐)이 그들을 화상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에서 승군의 면목을 대강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력이 어디서 비롯하였느냐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통전(通典). 신당서(新唐書) 등 이름 있는 책에 의하면, 조의선인이라는 관명(官名)이 있었고, 고구려사에는 명림답부(明臨答夫:고구려 재상)를 연나조이라 하였고, 후주서(後周書)에는 조의선인을 예속선인이라고 하였으니, 선인(先人) 선인(仙人)은 다 국어 ‘선인’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고, 조의 혹은 백의(帛衣)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른바 조백으로 허리를 동이므로 이름함이다.

선인(仙人)은 신라 고사(故事)의 국선(國仙)과 같은 종교적 무사단(武士團)의 단장이요, 승군(僧軍)은 국선 아래 딸린 단병(團兵)이요, 승군이 재가한 화상(和尚)이라 함은 후세 사람이 붙인 별명이다.

서궁이 외국의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을 보고 그 단체의 행도를 서술함에 있어서, 그 근원을 물으니 복역한 사람이라는 역축의(名詞)를 말해준 것이다.

이에 고려사로 인하여 삼국사에 빠진 승군을 알게 되고, 고려도경으로 인하여 고려사에 자세치 않은 승군의 성질을 알게 되고 통전. 신당서. 후주서와 신라의 고사 등으로 인

하여 승군과 선인(先人)과 재가의 화상이 같은 단체의 무리임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당나라의 30만 침입군이 고구려의 종교적 무사단인 선인군(先人軍)에게 크게 패하였다는 몇 십 자의 약사(略史)를 6, 7가지 서적 수천 권을 뒤진 결과로써 비로소 알아낸 것이다.

② 당나라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안시성(安市城)에서 화살에 맞아 눈이 상하였다는 전설이 있어 후세 사람이 매양 이것을 역사에 올리는데, 이색(李穡)의 정관음(貞觀吟; 정관은 당나라 태종의 연호)에도, “어찌 현화(玄花: 눈)가 백우(白羽)에 떨어질 줄 알았으리(那知玄花落白羽).”라고 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였으나,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지나인의 신구당서(新舊唐書)에서는 보이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만일 사실의 진위를 묻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버렸다가는 역사상의 위증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의 눈 상한 사실을 지나의 사관(史官)에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구하였다.

명(明)나라 태종(太宗)이 거란을 치다가 흐르는 화살에 상하여 달아나 돌아가서, 몇 해 후에 필경 그 상처가 덧나서 죽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송사(宋史)나 요사(?史)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건이 여러 백 년 지난 뒤에 진정이 고증(考證)하여 발견한 것이다.

이에 나는 지나인은 그 임금이나 신하가 다른 민족에게 패하여 상하거나 죽거나 하면 그것을 나라의 수치라 하여 숨기고 역사에

기록하지 않은 실증을 얻어서 나의 앞의 가설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지나인에게 국치(國恥)를 숨기는 버릇이 있다 하여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에서 화살에 맞아 눈을 상하였다는 실증은 되지 못하므로, 다시 신구당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태종본기(太宗本紀)에 태종이 정관(貞觀) 19년 9월에 안시성에서 군사를 철수하였다 하였고, 유박전(劉泊傳)에는 그 해 12월에 태종의 병세가 위급하므로 유박이 몹시 슬퍼하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으며, 본기(本紀)에는 정관 20년에 임금의 병이 낫지 아니하여 태자에게 정사를 맡기고, 정관 23년 5월에 죽었다고 하였는데, 그 죽은 원인을 강복(綱目)에는 이질(痢疾)이 다시 악화한 것이라고 하였고,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요동에서부터 병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개 높은 이와 친한 이의 옥보를 꺼려 숨겨서, 주천자(周天子)가 종후(鄭侯)의 화살에 상했음과 노(魯)나라의 은공(隱公), 송공(昭公) 등이 살해당하고 쫓겨났음을 춘추(春秋)에 쓰지 아니하였는데, 공구(孔丘)의 이러한 편견이 지나 역사가의 버릇이 되어, 당나라 태종이 이미 빠진 눈을 유리쪽으로 가리고, 그의 임상병록(臨床病錄)의 기록을 모두 딴 말로 바꾸어놓았다.

화살의 상처가 내종(內腫: 몸 속으로 굼)이 되고 눈병이 항문병(肛門病)으로 되어 전쟁의 부상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이질이나 늑막염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삼국사기에는 어찌하여 실제대로 적지 않았는가? 이는 신라가 고구려·백제, 두 나라를 미워하여 그 명예로운 역사를 소탕하



여 위병(魏兵)을 격파한 사법명(沙法名)과 수군(隨軍)을 물리친 을지문덕(乙支文德)이 도리어 지나의 역사로 인하여 그 이름이 전해졌으니(을지문덕의 이름이 삼국사기에 보이는 것은 곧 김부식이 지나사에서 끌어다 쓴 것이므로, 그 논평에 "을지문덕은 중국사가 아니면 알 도리가 없다"고 했음), 당태종이 눈을 잃고 달아났음이 고구려의 전쟁사에 특기할 만한 명예로운 일이라 신라인이 이것을 빼버렸음이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태종의 눈 잃은 일을 처음에 전설과 목은집(牧隱集)에서 어렵듯이 찾아내어 신구당서나 삼국사기에 이것을 기재하지 않은 의문을 깨침에 있어서—진정의 야산묵담(兩山墨談)에서 같은 종류의 사항을 발견하고, 공국의 춘추(春秋)에서 그 전통의 약속을 적발하고, 신구당서, 통감강목(痛鑑綱目) 등을 가져다 그 모호하고 은미(隱微)한 문구 속에서

첫째로 당태종 병록(이질 등) 보고가 사실이 아님을 갈파하고,

둘째로 목은의 정관음(貞觀吟: 당태종의 눈 잃은 사실을 읊은 시)의 신용할 만함을 실증하고,

셋째로 신라 사람이 고구려 승리의 역사를 말살함으로써 당태종의 패전과 부상한 사실이 삼국사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단정하고 이에 간단한 결론을 얻으니,

이른바, '당태종이 보장왕(寶藏王)3년(서기644)에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하여, 돌아가서 당시 외과 의사의 불완전으로 거의 30달을 앓다가, 보장왕 5년에 죽었다.'라는 것이었다. 이 수십자를 얻기에도 5,6종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읽어보고 들며 나며 혹은 무의식중에서 얻고 혹은 무의식중에서 찾아내어 얻은 결과이니 그 수고로움이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

승군(僧軍)의 내력을 모르면 무엇이 해로우며 당태종이 부상한 사실을 안들 무엇이 이롭기에 이런 사실을 애써서 탐색하느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학(史學)이란 것은 하나하나를 모으고 잘못 전하는 것을 바로잡아서 과거 인류의 행동을 여실하게 그려내어 후세 사람들에게 깨쳐주는 것이니, 승군 곧 선인군(先人軍)의 내력을 모르면 다만 고구려가 당나라 군사만을 물리친 원동력뿐 아니라, 뒤따른 명림답부(明臨答夫)의 혁명군의 중심과 강감찬의 거란을 격파한 군대의 주력(主力)이다.

무엇이었던지 모르고, 따라서 삼국에서부터 고려까지의 1천여 년 군제상(軍制上) 중요한 점을 모를 것이며, 당태종이 눈을 잃고 죽은 줄을 모른다면 안시성 전국(戰局)이 속히 결말이 난 원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라와 당나라가 연맹하게 된 배경이요, 당나라 고종(高宗)과 그 신하가 모든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고구려와 흥망을 겨룬 전제(前提)요,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손을 맞잡게 된 동기이던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위에 든 것은 그 한두 예일 뿐이고, 이 밖에도 이 같은 일이 얼마인지를 모를 것이니, 그러므로 조선사의 황무지를 개척하자면 도저히 한두 사람의 힘으로 단시일에 완결시킬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 3) 각종 명사(名詞)의 해석에 대하여



이같이 자질구레한 고증이 무슨 역사상의 큰 일이 되는가? 이것은 자질구레한 듯하나 지지(地誌)의 잘못도 이로서 바로잡을 수 있고, 사료의 의혹도 이로서 보충할 수 있으며 고대의 문학에서부터 모든 생활 상태까지 연구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해모수(解募漱)와 우화왕후(柳化王后)가 만난 압록강이 어디인가? 지금의 압록강이라 하면 당시 부여의 서울인 합이빈(哈爾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곳이라면 달리 또 압록이 없어 그 의문을 깨뜨리지 못하였더니, 첫 걸음에 광개토태왕(廣開土好太王)의 비에 지금의 압록강을 아리수(阿利水)라 하였음을 보고 압록의 이름이 아리(阿利)에서 나왔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요사(遼史)에 ‘요흥종(遼興宗)이 압자하(鴨子河)를 혼돈강(混同江)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한 것을 보고 ‘압자(鴨子)가 곧 ‘아리’인즉, 혼돈강 곧 송화강(松花江)이 고대의 북압록강(北鴨綠江)인가?’ 하는 가설을 얻었고, 다음에 동사강목(東史綱目) 고이(考異)에, ‘삼국유사의 요하(遼河)–일명 압록(鴨綠)–와 주희의 여진이 일어나 압록강에 웅거하였다.’고 한 것을 들어 ‘세 압록(鴨綠)이 있다.’고 하였음을 보고 송화강이 고대에 한 압록강이었음을 알고, 따라서 해모수 부부가 만난 압록강이 곧 송화강임을 굳혔다.

마한전(馬韓傳)에 ‘비리(卑離)’를 건륭제(乾隆帝)의 삼한정류(三韓訂謬)에는 만주의 패륵(貝勒:패리)과 같은 관명(官名)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생각하기를 삼한의 비리는 삼국지리지(三國地理志)백제의 부리(夫里)이니, 비리나 부리는 다 ‘울’의 취음(取音)이요,

도회(都會)의 뜻이다. 마한의 비리와 백제의 부리를 참조하면, 마한의 벽비리(壁卑離)는 백제의 파부리(波夫里)요, 여래비리(如來卑離)는 이릉부리(爾陵夫里)요, 모로비리(牟盧卑離)는 모량부리(毛良夫里)요, 감해비리(鑑奚卑離)는 고막부리(古莫夫理)요, 초산도비리(楚山途卑離)는 미동부리(未冬卑離)요, 고랍비리(古臘卑離)는, 고막부리(古莫夫里)니, 비록 이 음과 저 뜻이 이역(異譯)이 있기는 하나 그 대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조선이 관중(管仲)과 싸우던 때에 지나 산서성(山西省)이나 영평부(永平府)에 비이(卑耳)의 계(谿)를 두었으니, 비이는 비리 곧 ‘울’의 번역이다. 이에서 조선 고대의 ‘울’이 곧 산해관(山海關)서쪽까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질구레한 고증이 역사상의 큰 일이 아니지마는 도리어 역사상의 큰 일을 발견하는 연장이라 하겠다. 만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훈몽자회(訓蒙字會), 처용가(處容歌), 훈민정음(訓民正音) 등에서 옛 말을 연구하고, 삼국유사에 씌어있는 향가에서 이두문의 용법을 연구하면 역사상 허다한 발견이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일찍이 이에 유의한 바 있었는데, 해외에 나간 뒤로 부터는 한 권의 책을 얻기가 심히 어려워서, 10년을 두고 삼국유사를 좀 보았으면 하였으나 또한 얻어볼 수 없었다.

#### 4) 위서(僞書)의 판별과 선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고대에 진귀한 책을 태워버린 때(이조 太宗의 焚書같은)는 있었으나 위서를 조작한 일은 별로 없었으므로, 근래에 와

천부경(天符經), 삼일신고(三一神誥) 등이 처음 출현하였으나 누구의 변박(辨駁)도 없이 고서로 인정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책은 각 씨족의 족보 가운데 그 조상의 일을 혹 위조한 것이 있는 이외에는 그다지 진위의 변별에 애쓸 필요가 없거니와, 우리와 이웃해 있는 지나. 일본 두 나라는 예로부터 교제가 빈번함을 따라서 우리 역사에 참고될 책이 적지 않지마는 위서 많기로는 지나 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니, 위서를 분간하지 못하면 인용하지 않을 기록을 우리 역사에 인용하는 착오를 저지르기 쉽다.

그렇지마는 그 가짜에 구별이 있다. 하나는 가짜 중의가짜이니, 예를 들면 죽서기년(竹書紀年)은 진본이 없어지고 위작이 나왔음을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니와, 옛날 사학가들이 늘 고기(古記)의, '단군은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섰다(檀君 興堯竝立戊辰).'고 한 글에 의하여 단군의 연대를 알고자 하는 이는 항상 요 임금의 연대에 비교 하고자 하며 요 임금의 연대를 찾는 이는 속강목(續綱目: 金仁山저술)에 고준(考準)한다.

그러나 주소(周召: 周公과 召公)의 공화(王이 달아나고 주공과 소공이 의논하여 정치를 행한 14년)이전의 연대는 지나 역사가의 대조(大祖)라 할 만한 사마천(司馬遷)도 알지 못하여, 그의 사기(史記)연표에 쓰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보다도 더 요원한 요임금의 연대랴. 그러므로 속강목은 다만 가짜 죽서기년에 의거하여 적은 연대이니, 이제 속강목에 의거하여 고대의 연대를 찾으려 함은 도리어 연대를 흐리게 함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에, '구

려 한맥(句麗? 貊)'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고구려와 삼한이 지나의 주무왕(周武王)과 교통하였음을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家)에, "안국(安國)이 지금의 황제의 박사(博士)가 되었는데 일찍 죽었다(安國爲今皇帝博士蚤卒)."고 하였으니, '지금의 황제'는 무제(武帝)이다. 무제를 '지금의 황제'하 한 것은 사마천이 무제가 죽어서 무제라는 시호를 받은 것을 못 보았기 때문이고, 안국을 '일찍 죽었다.'고 한 것은 사마천이 생전에 안국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공안국은 사마천보다 먼저 죽고 사마천은 무제보다 먼저 죽었음이 명백한데, 상서전에는 무제의 아들인 소제(昭帝)시대에 창설한 금성군(金城郡)이란 이름이 있으니, 공안국이 그가 죽은 뒤에 창설된 지명을 예언할 만한 점쟁이라면 모르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서대전(尙書대전)이 위서(僞書)임이 또한 분명하고 거기 기록된 구려, 한맥 등도 자연 명백해질 것이다.

다음은 진짜 중의 가짜인데, 이것을 다시 들로 나누면,

① 하나는 본서의 위증(僞證)이니, 초학집(初學集), 유학집(有學集) 등은 전겸익(錢謙益)이 저술한 실제로 있는 것이지마는, 그 글 가운데 씌어 있는 우리 나라에 관한 일은 대개 전겸익의 위조요, 실제로없는 것이 많으니, 이런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역사에 그것을 반박할 확고한 증거들이 있거니와, 만일 우리 역사의 반박할 재료가 없어지고 저네의 거짓

기록만 유전(流轉)된 것이 있으면 다만 가설의 부인만으로는 안 될 것이니 어찌하면 옳을까?

옛날에 장유(長維)가 사기(史記)의,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였다(武王封箕子于朝鮮).”고 한 것을 변정하는데, 첫째로 상서(尙書)에, “나는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한 말을 들어 기자가 이미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였으니, 무왕의 봉작(封爵)에, “기자가 조선으로 몸을 피하였다(箕子避地朝鮮).”고 한 것을 들어 반고(班固)는 사기를 지은 사마천보다 성실하고 정밀한 역사가로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기자의 봉작설을 빼버리고 봉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을 내렸으니, 이는 인증(人證)이다.

삼국 이후 고려 말엽 이전(몽고 침입 이전)에 우리 나라 형세가 강성하여 지나에 대하여 전쟁으로 맞설 때에도 저에게 보낸 국서에 우리를 낮추어 한 말이 많이 있었거니와, 그들은 다른 나라가 사신을 보내면 반드시 내조(來朝:조공왔다)라고 썼음은 지나인의 병적인 자존성에 의한 것이니, 이는 근세 청조(淸朝)가 처음 서양과 통할 때 영(英).로(露) 등 여러 나라가 와서 통상한 사실을 죄다 “모국이 신하를 일컫고 공물을 바쳤다(某國稱臣奉貢).”고 썼음을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는 일이니, 그네의 기록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지나인이 만든 열조시집(列朝詩集), 양조평양록(兩朝平讓錄) 등 시화(詩話) 가운데 조선 사람의 시를 가져다가 게재할 때에 대담하게 한 구절 한 줄을 고쳤음을 볼 수 있으니, 우리의 역사를 적을 때에도 자구를 고

쳤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몽고의 위력이 우리 나라를 뒤흔들 때, 우리의 악부(樂府).사책(史冊)을 가져다가 황도(皇都).제경(帝京).해동천자(海東天子). 등의 자구를 모두 고친 사실이 고려사에 보였으니, 그 고친 기록을 바로잡지 못한 삼국사. 고려사 등도 지나와 관계된 문제는 실제의 기록이 아님을 알 것이다. 이것은 사증(事證)이다.

연전에 김택영(金澤榮)의 역사집략(歷史輯略)과 장지연(張志淵)의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에 , 일본의 신공여주(神功女主) 18년에 신라를 정복했다는 것과, 수인주(垂仁主) 2년에 임나부(任那府)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모두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그대로 따다가 적고 그 박식함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신공 18년은 신라 내해왕(奈解王) 4년(서기 199년)이요, 내해왕 당년에는 신라가 압록강을 구경한 이도 별로 없었을 테인데, 이제 내해왕이 아리나례(阿利那禮:압록강)을 가리키며 맹세하였다 함이 무슨 말이며, 수인주는 백제와 교통하기 이전의 일본의 임금이니, 백제의 봉직(縫織)도 수입이 안 된 때인데, 수인주 2년에 임나국(任那國) 사람에게 붉은 비단[赤絹] 2백 필을 주었다 함은 어떤 말인가?

이 두 가지 의문에 답하기 전에 그 두 사건의 기사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증(異證)이다. 이렇게 고인의 위증(僞證)을 인(人)으로 사(事)로 또 이(理)로 증명하여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임을 알 것이다.

② 후세 사람의 위증이니, 원서에는 본래 거짓이 없었는데 후세 사람이 문구를 보태어



위증한 것이다. 마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려 하여, 그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등에 보인 조선에 관한 사실을 가져다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안사고(顔師古) 등으로 하여금 곡필(曲筆)을 잡아 고치고 보태고 바꾸고 역지의 주를 달아서, 사군(史郡:樂浪.臨屯.眞番.玄?)의 연혁이 가짜가 진짜로 되고, 역대 두 나라의 국서가 더욱 본래대로 전해지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본편 제2장 지리연혁(地理沿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가짜 가운데 진짜니, 마치 관자(管子)같은 것은 관중(管仲)의 저작이 아니고 지나 육국(六國) 시대의 저작인 위서(僞書)이나 조선과 제(齊)의 전쟁은 도리어 그 실상을 전한 자이니, 위서로서도 진서(眞書)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5) 만(滿). 몽(蒙). 토(土) 여러 종족의 언어와 풍속의 연구이다.

김부식은 김춘추(金春秋). 최치원(崔致遠) 이래의 모화주의(慕華主義)의 결정(結晶)이니, 그가 저술한 삼국사기에

“고주몽(高朱蒙)은 고신씨(高辛氏:고대 중국 5제의 한 사람)의 후예다”

“김수로(金首露)는 금천씨(金天氏:皇帝의 아들 少昊)의 후예다”

“진한(辰韓)은 중국 진인(秦人)이 동래(東來)한 것이다”

하여, 말이나 피나 뼈나 교나 풍속이 한가지도 같은 것이 없는 지나족을 동종(同宗)으로 보아, 말살에다 쇠살을 문힌 어림없는 붓을 놀린 뒤로 그 편벽된 소견을 간파한 이가 없었으므로, 우리 부여의 계(族系)가 분명치 못하여 드디어는 조선사의 위치를 캄캄한 구석에 둔 지가 오래였다.

인축(人畜). 회계(會計)하는 곳을 담림 혹은 대림이라 함이 ‘살임’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고, 휴도(休屠)는 소도(蘇塗)와 음이 같을 뿐 아니라, 나라 안에 대휴도(大休屠)를 둔 휴도국(休屠國)이 있고, 각처에 또 소휴도가 있어서 더욱 삼한의 소도와 틀림이 없었다.

언제인가 필자가 사기(史記) 흉노전(匈奴傳)을 보니, 삼성(三姓)의 귀족 있음이 신라와 같고, 좌우 현왕(賢王) 있음이 고려나 백제와 같으며, 5월의 제천(祭天)이 마한과 같고, 무기일(戊己日)을 숭상함이 고려와 같으며, 왕공(王公)을 한(汗)이라 함이 삼국의 간(干)과 같고, 벼슬 이름 끝 글자에 치라는 음이 있음이 신지(臣智)의 지(智)와 한지(旱支)의 지(支)와 같으며, 후(后)를 알씨(關

氏)라 함이 곧 ‘아씨’의 번역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생겼다.

인축(人畜). 회계(會計)하는 곳을 담림 혹은 대림이라 함이 ‘살임’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고, 휴도(休屠)는 소도(蘇塗)와 음이 같을 뿐 아니라, 나라 안에 대휴도(大休屠)를 둔 휴도국(休屠國)이 있고, 각처에 또 소 휴도가 있어서 더욱 삼한의 소도와 틀림이 없었다.

이에 조선과 흉노가 3천 년 전에는 한방안의 형제였다는 의안(疑案)을 가져 그 해결을 구하다가, 그 뒤에 건륭제(乾隆帝)가 명하여 지은 만주원류고(滿洲源流告)와 요(遼). 금(金). 원(元) 세 역사의 국어해(國語解)를 가지고 비교하여보았더니, 비록 그 가운데 부여의 대신 칭호인 ‘가(加)’를 음으로 풀이하여 조선말 김가 이가 하는 ‘가와’ 같은 뜻이라 하지 않고 뜻으로 주석하여 가(家)의 잘못이라 하였으며, 금사(金史). 발극렬(勃極烈)을 음으로 맞는 신라의 불구래(弗矩래內)에 상당한 것이라 하지 않고 청조(淸朝)의 패륵(貝勒:패리)의 동류라 한 것 등의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주몽(朱蒙)이 만주어(滿洲語) ‘주림물’ 곧 삼림의 뜻이라 하고, 삼한의 벼슬 이름의 끝 자 지(支)가 곧 동몽고(東蒙古)의 중을 만나 동몽고 말의 동. 서. 남. 북을 물으니 연나. 춘나. 우진나. 회차라고 하여, 고려사의, “동부를 순나라 하고(東部曰順那), 서부를 연나라 하고(西部曰涓那), 남부를 관나라 하고(南部曰灌那), 북부를 절나라 하고(北部曰絶那)”고 한 것과 같음을 알았다.

또 그 뒤 일본인 조거용장(鳥居龍藏)이 조

사 발표한 조선. 만주. 몽고. 토이기 네 종족의 현행하는 말로 같은 것이 수십 종(이에 나의 기억하는 바는 오직 귀자(貴子)를 ‘아기’라, 건장(乾醬)을 ‘메주’라 하는 한두 가지 뿐임)이 있음을 억단(臆斷)을 내렸고, 지나 24사(史)의 선비. 흉노. 몽고 등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그 종교와 풍속의 같고 다름을 참조하고, 서양사로서 흉노의 유종(遺種)이 토이기(土耳其:터키). 흉아리(匈牙利:헝가리) 등지로 옮겨간 사실을 고열(考閱)하여, 조선. 만주. 몽고. 토이기 네 종족은 같은 혈족이라는 또 하나의 억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억단의 옳고 그름은 고사하고 조선사를 연구하자면 조선의 고어뿐 아니라 만주어. 몽고어. 등도 연구하여 고대의 지명. 벼슬 이름의 뜻을 깨닫는 동시에, 이주(移住)하고 교통한 자취며, 싸우고 빼앗은 자리며, 풍속의 같고 다른 차이며, 문야(文野:문명과 야만)의 높고 낮은 원인을 구명하고, 그 밖에 허다한 사적의 탐구와 잘못된 문헌의 교정 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재료의 수집과 그 선택 등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나 자신의 경력을 말한 것이다. 조선. 지나. 일본 등 동양 문헌에 대한 대 도서관이 없으면 조선사를 연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학자들은 국내에 아직 십분 만족하다 할 도서관은 없으나, 동양으로는 제일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또 조선의 소유가 그 외부(外部)의 곳집이 되고 또 서적의 구독과 각종 자료의 수집이 우리같이 표랑생활 중에 있는 한사(寒士)보다 월등히 나올 것이요, 게다가 새 사학에 상당한 소양까지 있다고 자랑하기

에 이르렀으나, 지금까지 동양학(東洋學)에 위걸(偉傑)이 나지 못 함은 무슨 까닭인가.

저들 중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자가 백조고길(白鳥庫吉)이라 하지마는, 그가 저술한 신라사(新羅史)를 보면, 배열. 정리의 새로운 형식도 볼 수 없고 한두 가지 발명도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좁은 천성(天性)이 조선을 헐뜯기에만 급급하여 공평을 결함으로 인한 것인가?

조선 사람으로서 어찌 조선 사학이 일본인으로부터 개단(開端)하기를 바라리오마는 보장(寶藏)을 남김없이 가져다가 암매(暗昧) 중에 씩임을 개탄하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 제 5 장

### 史의 개조에 대한 愚見

역사 자료에 대하여 그 없어진 것을 채우고 빠진 것을 기우며, 거짖을 제거하고 헐뜯은 것을 밝혀서 완전하게 하는 방법의 대략을 이미 말하였거니와, 편찬하고 정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옛날 역사의 투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근일에 왕왕 새로운 체제의 역사를 지었다는 한두 가지 새 저서가 없지 아니하나, 그것은 다만 신라사. 고려사. 하던 왕조 독립의 식을 고쳐 상세(上世). 중세(中世). 근세(近世)라 하였고, 권1, 권2라 하던 통감(痛鑑). 분편(分編)의 이름을 고쳐 제1편, 제2편이라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재기(才技).이단(異端)이라 하던 것을 예술이라 학술이라 하여 그 귀천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요, 근왕

(勤王)이라 한외(外:외적을 막음)라 하던 것을 애국이라 민족적 자각이라 하여 그 신구(新舊)의 명사(名詞)가 다를 뿐이니, 털어놓고 말하자면 한장책(韓裝冊)을 양장책(洋裝冊)으로 고쳤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나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우리 역사의 개조 방법의 대강을 말하자면,

#### 1) 그 계통을 찾을 것이다

구사(舊史)에는 갑(甲)대왕이 을(乙)대왕의 아버지요 정(丁)대왕이 병(丙)대왕의 아우이니 하여 왕실의 계통을 찾는 외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계통을 찾지 않았으므로, 무슨 사건이든지 공중에서 거인이 내려오고, 평지에서 신산(神山)이 솟아오른 듯하여, 한편의 신괴록(神怪錄)을 읽는 것 같다.

역사는 인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인데, 만일 이와 같은 인과 이외의 일이 있다 하면 역사는 하여 무엇하랴. 그것은 지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요, 본질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사에는 그 계통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찾을 수 있으니, 삼국사기, 신라사에 적힌 신라의 국선(國仙)이 진흥대왕(眞興大王) 때부터 문무대왕(文武大王)때까지 전성하여, 사다함(斯多含) 같은 이는 겨우 열 대 여섯 살의 소년으로 그 제자의 수가 지나의 대성(大聖) 공구와 겨루게 되었고,

이밖에 현상(賢相). 양장(良將). 충신. 용사가 모두 이 가운데서 났다(삼국사기에 인용한 金大問의 설)고 하였으나, 그 동안이 수십 년에 지나지 않고 성식(聲息)이 아주 끊어져서, 국선 이전에 국선의 개조(開祖)도

볼 수 없고, 국선 이후 국선의 후계자도 볼 수 없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갔으니, 이것이 어찌 신라의 신괴록이 아니라?

고기(古記)에서 왕검이 국선의 개조임을 찾으며, 고구려사에서 조의선인 등을 알 것이며, 고려사에서 이지백(李知白)이, “선랑(仙郎)을 중흥시키자.”고 한 쟁론과, 예종(睿宗)이, “사선(四仙)의 유적을 영광스럽게 하라.”하고, 의종(毅宗)이, “국선의 복로(伏路)를 다시 열라.”고 한 조서를 보매, 고려에까지도 오히려 국선의 유통(遺統)이 있었음을 볼지니 이것을 계통을 찾는 방법의 한 예로 든다.

## 2) 그 회통(會通)을 구할 것이다

회통이란 전후. 피차의 관계를 유취한다는 말이니, 구사에도 회통이라는 명칭은 있으나, 오직 예지(禮志), 과목지(科目志)-회통의 방법이 완미하지 못하지만-이 밖에는 이 명칭을 응용한 곳이 없다. 그러므로 무슨 사건이든지 홀연히 모였다가 홀연히 흩어지는 구름과도 같고, 돌연히 불다가도 그치는 선풍(돌개바람)과도 같아서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다.

고려사 묘청전(妙淸傳)을 보면, 묘청이 일개 서경(西京:평양)의 한 중으로서, “평양에 도읍을 옮기고 금국(金國)을 치자.” 하며, 일시에 군왕 이하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기세가 혁혁하다가, 마침내 평양에 웅거하여 나라 이름을 대위(大爲)라 하고, 연호를 천개(天開)라 하고, 인종(仁宗)더러 대위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협박장 식의 상소를 올렸는데 반대당의 수령인 한낱 유생 김부식

이 왕사(王師)로서 와서 문죄(問罪)하니, 묘청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하에게 죽었으므로 묘청을 미친 자라고 한 사평(史評)도 있지만, 당시의 묘청을 것처럼 신앙한 이가 많았음은 무슨 까닭이며, 묘청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패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고려사의 세기(世紀)와 열전(列傳)을 참고하여 보면 태조 왕건이 거란(契丹:뒤의 遼)과 국교를 끊고 북방의 옛 강토를 회복하려 하다가 거사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그 후예 되는 임금 광종(光宗).숙종(肅宗) 같은 이는 다 태조의 유지를 성취하려 하였고, 신하에도 이지백(李知白), 곽원(郭元), 왕가도(王可道) 같은 이들이 열렬하게 북벌을 주장하였으나 다 실행치 못하고 윤관(尹瓘)이 군신이 한마음으로 두만강 이북을 경영하려는 창끝을 약간 시험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 이미 얻은 땅의 구성(九城)까지 금(金)의 태조에게 다시 돌려주니 이는 당시 무사들이 천고의 한이 되는 일로 여겼다.

그 뒤에 금의 태조가 요(遼)를 토멸하고 지나 북방을 차지하여 황제를 일컫고 천하를 노려보았다. 금은 원래 백두산 동북의 여진(女眞)부락으로서 우리에게 복종하던 노민(奴民:高麗圖經에, “여진은 종으로 고려를 섬긴다(女眞奴奉高麗).”고 하였고, 고려사에 실린 김경조(金景組)의 국서에도,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女眞以高麗爲父母之邦)”고 하였는데, 갑자기 강성해져서 형제의 위치로 바뀌었다.(고려사에 실린 金景組의 국서에, 형 大金皇帝가 글을 아우 고려 왕에게 보낸다(兄大金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고 하였음) 이에 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국치에 눈물을 뿌렸다.

요청은 이러한 틈을 타 고려 초엽부터 전해오는 "평양에 도움을 정하면 36나라가 조공온다(定都平壤三十六國來朝).“하는 도참(圖讖)을 가지고 부르짖으니, 사대주의의 편벽된 소견을 가진 김부식 등 몇몇 사람 이외에는 모두 요청에게 호응하여, 대문호인 정지상(鄭知常)이며, 무장(武將)인 최봉심(崔逢深)이며, 문무가 겸전(兼全)한 윤언이(尹彦頤:尹瓘의 아들)등, 이 모두 북벌론을 주창함으로써 요청의 세력이 일시에 전성하였다.

오래지 않아 요청의 하는 짓이 미치고 망령되어 평양에서 왕명도 없이 나라 이름을 고치고 온 조정을 협박하니, 이에 정지상은 요청의 행동을 반대하였고, 윤언이는 도리어 주의가 다른 김부식과 함께 요청 토벌의 선봉이 되었다. 이것이 요청이 실패한 원인이다. 그런데 김부식은 출정하기 전에 정지상을 죽이고 요청을 토벌한 후에 또 윤언이를 내쫓아서 북벌론자의 뿌리를 소탕해버렸다.

김부식은 성공하였으나 이로 하여 조선이 쇠약해질 터전이 잡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여 보면, 요청의 성패한 원인과 그 패한 뒤에 생긴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가. 이로써 회통(會通)을 구하는 한 예를 보인 것이다.

### 3) 심습(心習)을 제거할 것이다

영국 해군성(海軍省)의, “세계 철갑선(鐵甲船)의 비조(鼻組)는 1592년경의 조선 해군 대장 이순신이다.”라고 한 보고가 영국사에 실려 있는데, 일본인들은 모두 당시 일본

배가 철갑(鐵甲)이요, 이순신의 것은 철갑이 아니라면서 그 보고는 틀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조선의 집필자들은 이것을 과장하기 위하여 그 보고를 그대로 인용해서 조선과 일본 어느 나라가 먼저 철갑선을 창조하였는가를 논쟁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말은 아무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위안(僞案)이라 족히 따질 것이 없거니와 이 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설명한 귀선(龜船)의 제도를 보건대, 배는 널빤지로 꾸미고 철판으로 꾸민 것이 아닌 듯하니, 이순신을 장갑선의 비조라고 함은 옳으나, 철갑선의 비조라 함은 옳지 않을 것이다. 철갑선의 창조자라 함이 보다 더 명예가 되지마는, 창조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진화(進化)계급을 어지럽힐 뿐이다. 가령 모호한 기록 중에서 부여의 어떤 학자가 물리학을 발명하였다는가, 고려의 어떤 명장(名匠)이 증기선을 창조하였다는 문구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용치 못한 것은 속일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이겠다.

### 4) 본색(本色)을 보전할 것이다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 “국선(國仙) 구산(瞿山)이 사냥을 나가서 어린 짐승이나 새끼 가진 짐승을 함부로 낭자하게 죽였는데, 주막의 주인이 저녁 밥상에 자기의 다리살을 베어놓고, 공(公)은 어진 이가 아니니 사람의 고기도 먹어보라고 하였다.”고 한말이 있다. 이는 대개 신라 당시에는 영랑(永郎), 술랑(述郎) 등의 학설이 사회에 침투되어 국선 오계(五戒)의 한 가지인, ‘살상



은 골라서 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실행하던 때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사람의 고기도 먹으리라는 반감으로 주막의 주인이 이렇게 참혹하게 무안을 준 것이다. 그것이 수십자에 지나지 않는 기록이지만, 신라 화랑사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고구려사 미천왕기(美川王記)에,

“봉상왕(烽上王)이 그 아우 돌고(固)가 탄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여 죽이니, 돌고의 아들 을불(乙弗:美川王의 이름)이 겁이 나서 달아나 수실촌(水室村) 사람인 음모(陰牟:당시 부호의 이름인듯)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음모가 밤마다 기와와 돌을 집 옆의 늪에 던져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라 하고, 낮이면 나무를 해오라고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을불은 견디다 못 하여 1년 만에 달아나서 동촌(東村)사람 재모(再牟)와 소금장수가 되어 압록강에 이르러 소금 짐을 강동(江東) 사수촌사람의 집에 부렸다. 한 노파가 외상으로 소금을 달라고 하므로 한 말쯤 주었더니, 그 후에 또 달라고 하므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노파는 앙심을 품고 몰래 짚신 한 켤레를 소금 짐 속에 묻었다가 을불이 길을 떠난 뒤에 쫓아와서 도둑으로 몰아 압록제(鴨綠宰)에게 고발하여 짚신 한 켤레의 값으로 소금 한 짐을 빼앗고 매질까지 한 뒤에 놓아 보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불과 몇 줄 안 되는 기록이지만 또한 봉상왕 시대의 부호의 포악과 시민과 수령의 사악한 행위를 그린 약도이니, 그 시대 풍속사의 일반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고려사는 아무 맛있는, ‘어느 임금이 즉위하였다’, ‘어느 대신이 죽었

다.’하는 등의 연월이나 적고, 보기 좋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사신을 보내왔다.’ 하는 등의 사실이나 적은 것들이요, 위의 3), 4) 두 절과 같이 시대의 본색을 그린 글은 보기 어렵다. 이는 유교도의 춘추필법과 외교주의가 편견을 낳아서, 전해 내려오는 고기를 제멋대로 고쳐서 그 시대의 사상을 흐리게 한 것이다.

옛날 서양의 어느 역사가가 이웃집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말을 역력히 다 들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남들이 말하는 그 두 사람의 시비는 자기가 들은 것과는 전연 달랐다. 이에, ‘옛날부터의 역사가 모두 이 두 사람의 시비와 같이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가 저술한 역사책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탐보원이 들어다가 보고하고 편집원이 다시 교정하고 그러고도 잘못이 생기는 예가 있는 신문. 잡지의 기사도 오히려 그 진상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허다할 뿐 아니라, 잡지의 신문이 이러하다 하면 을의 신문은 저러하다 하여, 어느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 많으니, 하물며 고대의 한두 사학가가 자기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로 아무 책임감 없이 지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랴?

그리고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 우(禡)의 목을 베고 그 자리를 빼앗을 때, 후세 사람이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죄를 나무랄까 하여 백방으로 우는 원래 왕씨의 왕통을 잊지 못할 요망한 중 신돈의 천첩 반야의 소생이라 하고, 경효왕(敬孝王:慕愍王?)이 신돈의 집에서 어떻게 데려왔다는니, 반야가 우를 궁인 한씨 소생으로 정하는 것을 보고 통

한하여 울부짖어 우니 궁문도 그 원통함을 알고 무너졌다느니 하여 아무쪼록 우가 신씨 임을 교묘하게 증명하였다.

그러나 우는 오히려 송도 유신들이 있어 굴속에 숨어서까지 우의 무함 당함을 절규하였으므로, 오늘날 사학가들이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오히려 우가 왕씨요, 신씨가 아님을 믿는 이도 있다. 또 왕건이 궁예의 장군으로 궁예의 은총을 받아 대병을 맡게 되자 드디어 궁예를 쫓아내어 객사케 하고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죽였다는 죄를 싫어하여 전력을 집중하여 궁예를 죽여 마땅한 죄를 구하였으니, ‘궁예는 신라 헌안왕(憲安王)의 아들인데, 왕이 그를 5월5일에 낚음을 미워하여 버렸더니, 궁예가 이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도둑을 쳐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어느 절에서 벽에 그려진 헌안왕의 상까지 칼로 쳤다.’고 하였고, 다시 확실한 증거를 만들고자, ‘궁예가 나자 헌안왕이 엄명을 내려 궁예를 죽이라고 하여 궁녀가 누각위에서 아래로 내던졌는데, 유모가 누락 아래에서 받다가 손가락이 잘못 아이의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 그 유모가 데려다가 비밀히 길렀는데, 10살이 되자 장난이 몹시 심하므로 유모가 울면서 말하기를, 왕이 너를 버리신 것은 내가 차마 버려둘 수 없어서 데려다 길렀는데, 이제 네가 이렇듯 미치광이 짓을 하니 만일 남이 알면 너와 내가 다 죽을 것이다. 하였다. 궁예가 이 말을 듣고 울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 후에 신라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군사를 모아 큰 뜻을 성취하리라 하고 도둑의 괴수 양길에게로 가서 후한 대우를 받고 군사를 나누어 동으로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가령 위의 말이 다 참말이라면 이는 궁예와 유모의 평생 비밀일 것인데, 그것을 듣고 전한 자가 누구이며, 가령 궁예가 왕이 되어 신라의 형법(刑法)밖에 있게 된 뒤에 스스로 발표한 말이라 하면, 그 말한 날짜나 곳은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데리고 말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부모를 부모라 함은 나를 낳은 은혜를 위함인데, 만일 나를 낳음이 없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 부모야 무슨 부모이겠는가?

궁예가 헌안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만일 사관(史官)의 말과 같이 그가 세상에 나오던 날 죽으라고 누각 위에서 내던진 날로부터 아버지라는 명의를 끊어졌으니, 궁예가 헌안왕의 몸에 칼질을 하여도 아버를 죽인 죄가 될 것 없고 신라의 서울과 능(陵)을 유린한다 할지라도 조상을 모욕한 논란이 될 것 없거늘 하물며 왕의 그림을 치고 문란한 신라를 혁명하려 함이 무슨 큰 죄나 논란이 되랴 마는 고대의 좁은 논리관으로는 그 두 가지 일, 헌안왕의 초상과 신라에 대한 불공(不恭)만 하여도 궁예는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이니, 죽어도 죄가 남을 궁예를 죽이는 데야 무엇이 안 되었으랴? 이에 왕건은 살아서 고려 통치권을 가지고 죽어서도 태조문성(太祖文聖)의 존시(尊諡)를 받아도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고려 사관이 구태여 세달사(世達寺)의 한 비렁뱅이 중이던 궁예를 가져다가 고귀한 신라 왕궁의 왕자로 만듭인가 한다.

제왕이라 역적이라 함은 성패의 별명일 뿐

이요, 정론이라, 사론이라 함은 많고 적은 차이일 뿐인데, 게다가 보고 들은 데 잘못이 있고, 쓰는 사람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섞이지 않았는가?

사실도 흘러가는 물과 같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간 사실을 그리는 역사를 저술하는 이도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그 써놓은 것을 가지고 앉아서 시비곡직을 가리려는 역사를 읽는 이가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다, 역사는 개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의 성이 왕(王)인가? 신(辛)인가를 조사하여 바로잡느니보다 다만 당시의 지나에 대하여 선전(宣戰)하고, 요동 옛 땅을 회복하려 함이 이루어질 일인가? 실패할 일인가, 성패 간에 그 결과가 이로우까 해로우까부터 정한 후에 이를 주장한 우와 반대한 이성계의 시비를 말함이 옳을 것이고, 궁예의 성이 궁(弓)인가 김(金)인가를 변론하는 것보다, 신라 이래 숭상하던 불교를 개혁하여 조선에 새 불교를 성립시키려 함이 궁예 패망의 도화선이니, 만일 왕건이 아니라면 궁예의 그 계획이 성취되었을까? 성취되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이를 계획하던 궁예와 대적하던 왕건의 옳고 그름을 말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만드느냐? 사회로부터 개인을 만드느냐?’ 이는 고대로부터 역사학자들이 논쟁하는 문제다. 이조 전반기의 사상계는 세종대왕의 사상으로 지배되고, 후반기의 사상계는 퇴계산인(李滉) 사상으로 지배되었다.

그러면 이조 5백 년 동안의 사회는 세종, 퇴계가 만든 것이 아닌가? 신라 후기로부터 고려 중엽까지의 6백 년 동안은 영랑, 원효가 각기 당시 사상계의 한 방면을 차지하여 영랑의 사상이 성해지는 때에는 원효의 사상이 물러나고 원효의 사상이 성해지는 때에는 영랑의 사상이 물러나서 일진일퇴 일왕일래로 갈아들어 사상계의 패왕이 되었으니, 6백 년 동안의 사회는 그 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백제의 정치 제도는 온조대왕이 마련하여 고이대왕(古爾大王)이 마무리하였고, 발해의 정치 제도는 고제(高帝)가 마련하여 선제(宣帝)가 마무리하였으니, 만일 온조왕과 고이왕이 아니었더라면 백제의 정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었을는지, 고제와 선제가 아니었더라면 발해의 정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었을는지 또한 모를 일이다.

삼경(三京) 오도(五都)의 제도가 왕검과 부루(夫妻)로부터 수천 년 동안 정치의 모형이 되었으니, 이로써 보면 한 사람의 위대한 인격자의 손끝에서 사회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회의 자주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시 한편으로 살펴보자. 고려 말엽에 불교의 부패가 극도에 이르러 원효종은 이미 쇠미해지고 임제종(臨濟宗)에도 또한 뛰어난 이가 없고, 다만 10만 명의 반승회(飯僧會:중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임)와 백만 명의 팔관회(八關會:천신에 제사 지내어 나라와 왕실의 태평을 빌고 온갖 놀이도 즐기는 모임)로 제물과 곡식을 낭비하여 국민이 머리를 앓을 뿐 아니라, 사회는 이미 불교 밖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안유(安裕).우탁(禹倬)이며 정몽주가 유교의 목탁을 들었고. 그 밑에서 세종이 나고 퇴계가 났으니, 그러면 세종의 세종됨과 퇴계의 퇴계됨이 세종이나 퇴계 그 자신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함이 옳지 않을까?

삼국 말엽, 그 수백 년 동안에 찬란히 발달한 문학과 미술의 영향을 받아 소도천군(蘇塗天君)의 미신이나 율종소승(律宗小乘)의 하품(下品) 불교로는 영계(靈界)의 위안을 줄 수가 없어서 사회가 그 새 생명을 찾는 지가 또한 오래이므로 신라의 진흥대왕이나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다 여러 교종 통일 의 새로운 안을 내놓으려 한 일이 있었다. 그 때에 영랑이 도령(徒領)의 노래를 부르고 원효가 화엄(華嚴)의 자리를 배풀었으며, 최치원이 유도에서 불도로 불도에서 선도로 바꾸는 신통한 재주를 보이니 이에 각계가 갈채하여 이 세 사람을 맞았다. 그러니 영랑이나 원효나 최치원이 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원효는 신라 그대에 났기에 원효가 된 것이요, 퇴계는 이조 그대에 났기에 퇴계가 된 것이다. 만일 그들이 희랍 철학의 강단에 났더라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지 않았을까? 프랑스나 독일의 현대에 났더라면 베르그송이나 오이켄이 되지 않았을까? 나파룬(拿破崙:나폴레옹)의 뛰어난 재주와 큰 계약으로도 도포 입고 대학(大學)읽던 시절에 도산사원(陶山書院)부근에 태어났더라면, 물러가 송시열이 되거나 나아가 홍경래가 되었을

뿐이 아니었을까?

크고 작은 분량으로 그와 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면목이 아주 달라졌을 것은 단언할 수 있다. 논조가 여기에까지 미쳤으나, 개인은 사회라는 불무에서 이루어질 뿐이니, 개인의 자주성은 어디에 있는가? 개인도 자주성이 없고 사회도 자주성이 없으면 역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볼 때 개인이나 사회의 자주성은 없으나 환경과 시대를 따라서 자주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이며 만주며 토이기며 헝거리가 3천 년 전에는 다 뚜렷한 한 혈족이었다. 그러나 혹은 아시아에 그대로 있고 혹은 유럽으로 옮겨가서 대륙의 동서가 달라지고, 혹은 반도 혹은 대륙으로 혹은 사막 혹은 비옥한 땅으로, 혹은 온대 혹은 한대로 분포하여 땅의 멀고 가까움이 다르고, 목축이나 농업, 침략이나 보수 등으로 생활과 풍속이 해와 달을 지내는 대로 더욱 간격이 생겨서 각자의 자주성을 가졌다. 이것이 곧 환경을 따라 성립한 민족성이라 하는 것이다.

같은 조선으로도 이조 시대가 고려 시대와 다르고, 고려 시대는 또 동북국(東北國:渤海.滅貊등)과 다르고, 동북시대는 삼국과 같지 아니하며, 왕검. 부루 시대와도 같지 아니하다. 멀면 1천년의 전후가 다르고, 가까우면 1백 년의 전후가 다르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문명의 진보가 더욱 빨라서, 10년 이전이 홍황(鴻荒:오랜 옛날)이 되고, 1년 이전이 먼 옛날이 될는지 모르는 일이니, 이것이 이른바 시대를 따라 성립하는 사회성(社會性)이다.

원효와 퇴계가 시대와 경우를 바꾸어 냈다 하면, 원효는 유자(儒者)가 되고 퇴계는 불자(佛者)가 되었을는지 모르는 일이거니와, 도양(跳揚) 발달한 원효더러 주자(朱子)의 규구(規矩)만 삼가 지키는 퇴계가 되라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충실하고 용졸(庸拙)한 퇴계더러 불가의 별종(別宗)을 수립하는 원효가 되라 한다면 이도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니, 왜냐하면 시대와 경우가 인물을 낳는 원로 됨과 같으나 인물이 시대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민족도 개인과 같이 어느 곳 어느 때에 갑이라는 민족이 가서 그 성적이 어떠하였으니, 을이라는 민족이 갔더라도 마찬가지로 성적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대개 개인이나 민족이 두 가지 개성이 있으니, 그 하나는 항성(恒性)이요, 다른 하나는 변성(變性)이다, 항성은 제1의 자주성이요, 변성은 제2의 자주성이니 항성이 많고 변성이 적으면 환경에 순응치 못하여 절멸(絶滅)할 것이요, 변성이 많고 항성이 적으면 나은 자에게 정복당하여 패할 것이니, 늘 역사를 회고하여 두 가지 자주성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고 무겁고 가벼움을 평균하게 하여, 그 생명이 천지와 한 가지로 장구하게 하려면 오직 민족적 반성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상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결론을 지었으니,

- ① 사회의 이미 정해진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 매우 곤란하고,
- ② 사회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 아주 쉽다는 것이다.

정여립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 하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하는 유교의 윤리관을 여지없이 말살하고, “인민에게 해되는 임금은 죽이는 것도 가하고 행의(行義)가 모자라는 지아비는 버리는 것도 가하다,”고 하고 “하늘의 뜻,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주실(周室)을 떠났는데, 존주(尊周: 주나라를 존중함)가 무엇이며, 군중과 땅이 벌써 조조(曹操)와 사마(司馬)에게로 돌아갔는데, 구구하게 한 구석에서 정통이 다 무엇 하는 것이냐.”하며 공자, 주자의 역사 필법을 반대하니, 그의 제자 신극성(辛克成) 등은, “이는 참으로 전의 성인이 아직 말하지 못한 말씀이다.”하고 재상과 학자들도 그의 재기와 학식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가 많았으나, 세종대왕의 삼강오륜의 부식(扶植)이 벌써 터를 잡고 퇴계 선생의 존군모성(尊君慕聖)의 주위가 이미 깊이 박혀 전 사회가 안돈된 지 오래이니, 이같이 엉뚱한 혁명적 학자를 어찌 용납하랴.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한 자의 고발장에 목숨을 잃고 온 집안이 폐허가 되었으며, 평생의 저술이 모두 불 속에 들어갔다. 이는 곳 ①에 속하는 것이다.

최치원이 지나 유학생으로 떠나갈 때 그의 아버지가, “10년이 되어도 과거를 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여 하나의 한문 졸업생이 되는 것을 바랐을 뿐이었고, 최치원이 돌아와서, “무협(巫峽)첩첩한 봉우리를 헤치고 중원에 들어가 급제하여 벼슬에 놀기3년, 금의로 동국에 돌아왔다.”하고 노래하여, 또한 스스로 하나의 한문 졸업생 되었



음을 자랑하였다.

그 사상은 한(漢)나라나 당(唐)나라에만 있는 줄로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은 모르며, 학식은 유서(儒書)나 불전(佛典)을 관통하였으나, 본국의 고기(古記) 한 편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주의는 조선을 가져다가 순 지나화하려는 것뿐이고, 그 예술은 청천(靑天)으로 백일(白日)을 대하며, 황화(黃化)로 녹초(綠草)를 대하는 사육문(四六文: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문 문체의 하나)에 능할 뿐이었다.

당시 영랑과 원효의 두 파가 다 노후하여 사회의 중심이 되는 힘을 잃고,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구함과 같았으니 그래서 대선생의 칭호가 한낱 한문 졸업생에게로 돌아가고 다음에는 천추(千秋)의 혈식(血食:나라에서 제사를 지냄)까지 그에게 바쳐, 고려에 들어와서는 영랑과 원효 두 파의 자리를 마주 대하게 되었다. ‘때를 만나면 더벅머리도 성공한다.’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니, 이는 ②에 속하는 것이다.

어찌 학계뿐이라. 모든 사업이 그러하니, 기훤(箕萱)과 양길(梁吉)도 한때에 크게 펼쳐짐은 신라 말엽의 안정되지 않은 판국에서 일어남이요, 이징옥(李澄玉)이나 홍경래가 거연히 패망함이 이조의 안정되어 있는 판국에서 그리 된 것이다.

백호(白湖) 임제(林悌)가 말하기를, “나도 중국의 육조(六朝:後漢이 망한 뒤에 일어난 吳.東晉.宋.濟.梁.陳의 여섯 왕조)나 오계[五季:後五代, 곧 唐과 宋 사이 53년 동안에 일어났다]가 사라진(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

최치원의 사상은 漢나라나 唐나라에만 있는 줄로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은 모르며, 학식은 儒書나 佛典을 관통하였으나, 본국의 古記 한 편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주의는 조선을 가져다가 순 지나화하려는 것뿐이고, 그 예술은 靑天으로 白日을 대하며, 黃化로 綠草를 대하는 四六文(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문 문체의 하나)에 능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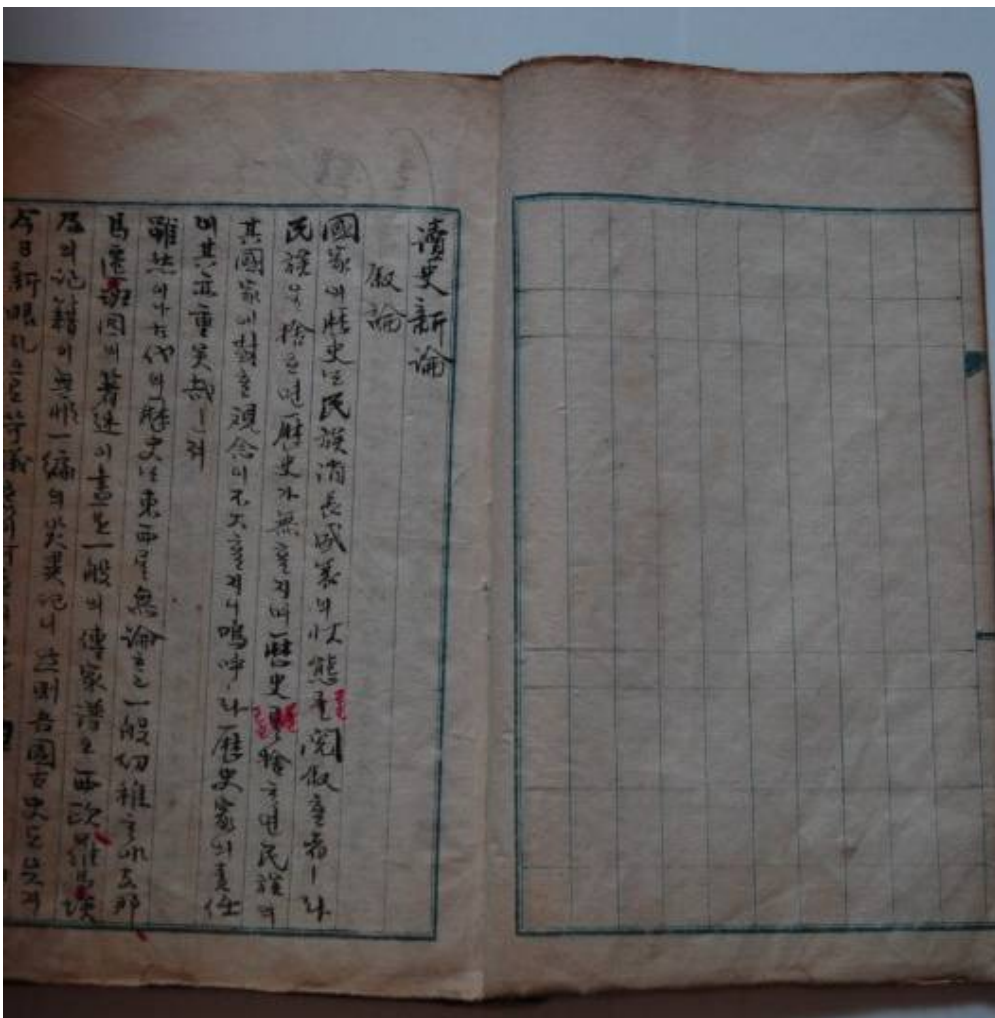
周의 다섯 왕조)]를 만났더라면 돌림천자는 얻어 했겠다.”고 하였다.

임백호 같은 시인에게 육조. 오계의 유유(劉裕:南宋의 武帝). 주전충(朱全忠:後梁의 太祖) 같은 도둑의 괴수와 같이 되어 돌림천자나마 돌아오게 할 위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지나의 천자를 경영하려면 한. 당의 치세보다 육조, 오계의 난세가 더 쉬울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미 안정된 사회의 인물은 늘 전의 사람의 필법을 배워서 이것을 부연하고 이것을 확장할 뿐이니, 인물 되기는 쉬우나 그 공이나 죄는 크지 못하며, 혁명성을 가진 인물(정여립 같은)은 매양 실패로 미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여 한 말이나, 한 일의 종적까지 없애버리므로 후세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영도(零度)가 되고, 오직 3백 년이나 5백 년 뒤에 한두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가 있어 그의 유음(遺

音)을 감상할 뿐이요, 안정되지 않은 사회의  
 듯하나, 어떤 때에는 꼭 그렇지도 아니하여,  
 작은 칼로 잔재주를 부리는 하품의 재주꾼  
 (최치원같은)으로서 외국인의 입을 흥내내서  
 말하고 웃고 노래함이 그럴듯하여 사람들을  
 움직일 만하면 거연히 인물의 지위를 얻기도  
 하나, 인격적 자주성의 표현은 없고 노예적

인물은 반드시 창조적. 혁명적 남아야 할  
 습성만 발휘하여 전 민족의 항성(恒性)을 파  
 문어버리고, 변성(變性)만 조장하는 나쁜 기  
 계가 되고 마나니, 이는 사회를 위하여 두려  
 워하는 바요, 인물 되기를 뜻하는 사람이 경  
 계하고 삼가야 할 일이다.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론』 친필본 이 글은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8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  
 지 연재된 사론으로, 1908년 전후의 신채호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민족주  
 의사학의 효시로 꼽히는 이 글은 미완성의 논문으로서, 완결편이 『조선상고사』와 『조선상고문화  
 사』로 이해된다. 체재는 서론과 상세(上世)로 나뉘며, 서론에서 인종과 지리를 논하면서 그의 사  
 관을 피력하였고, 상세에서는 단군에서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 김교현

## 민족사학의 의의(2)

- 『檀祖事攷』를 중심으로-

김동환[사)국학연구소연구원]

### (2) 『단조사고』의 체재와 내용

#### 1)체재

『단조사고』는 전체(겉표지 제외) 69쪽의 프린트본[謄印本]으로 되어 있으며 순한문으로 씌어졌다. 더 정확히 분석해 보면, 도표 2장[倍達族源流圖(檀君血統) 1圖와 三千團部(檀君疆域) 1圖) 각 1쪽과 ‘단조사고범례’ 1쪽, 그리고 내편 26쪽과 외편 40쪽으로 엮어진 책이다.

먼저 도표 1의 ‘배달족원류도(단군혈통)’는 배달민족이 여섯 지파로 나뉘어 남방족(조선)과 북방족(금)으로 모아지는 계통도이며, 도표 2의 ‘삼천단부(단군강역)’는 만주와 연해주를 망라하는 배달민족의 강역형세도라 할 수 있다. ‘단조사고범례’는 일곱 항목의 일러두기를 적은 것이며, 내편과 외편의 각 쪽은 13줄 4백자 내외로 적혀 있다

본문의 전체 구성은 두 권(내편.외편)의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내편과 외편의 맨 앞에는 저술자(大倥敎編)를 밝혔으며 각 권 모두(冒頭)에 전체 내용의 대강을 적은 후

내용 전개를 꺾하고 있다.

먼저 내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항목은

- ① 삼신을 살펴보면 환인과 환웅과 환검이다
- ② 갑자에 천부삼인을 잡고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왔다
- ③ 오사를 주관하니 첫째는 곡식, 두 번째는 명, 세 번째는 병, 네 번째는 형벌, 다섯 번째는 선악이고 인간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
- ④ 삼천단부를 두었다
- ⑤ 신(神)으로써 교(敎)를 베푸니 대종(大宗)이라 한다
- ⑥ 이에 백성들에게 머리를 땅고 머리에 쓰개를 하는 법을 가르쳐, 비로소 군신과 남녀의 나뉘고 음식과 거처의 절도가 있게 되었다
- ⑦ 무진에 나라 사람들이 임금을 세우니 이가 단군이다. 성은 환씨이고 이름은 임검이고 나라는 배달나라이고 태백에 도움을 세워 임검성이라고 일컬었다
- ⑧ 경인(庚寅)에 평양에 도움을 하고 국호를 정하여 비로소 조선이라 칭하였다
- ⑨ 비서갑(匪西甲) 신녀(神女)에게 장가들어 부인을 삼았다
- ⑩ 아들 부루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 ⑪ 작은 아들 부여에게 부여를 맡게 했다
- ⑫ 세 아들[三郎]로 하여금 혈구에 성을 쌓게 하였다
- ⑬ 항상 혈구의 바다 마니산의 언덕에서 하늘에 제사지냈으며 산등성이에 성을 파고 단을 쌓았다
- ⑭ 팽우에게 명하여 국내 산천을 다스리어 백성들이 살 곳을 정하게 하였다
- ⑮ 또 고시에게 명하여 농사를 가르치게 하고 신지는 글자를 맡게 하였다
- ⑯ 여수기(余守己)로 예국(濊國)의 우두머리를 삼고 아홉 아들로 하여금 여러 고을을 나누어 맡게 하였다
- ⑰ 갑술(甲戌)에 태자 부루를 보내어 도산(塗山)에서 하나라 우임금과 회동하였다
- ⑱ 백악(白岳)의 당장경(唐藏京)으로 도움을 옮겼다
- ⑲ 경자(庚子)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다시 신(神)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등의 19개 항목이며, 외편에서 밝히고자 한 주요항목은

- ① 문화(文化)에 삼성사(三聖祠)가 있다
- ② 평양에 승령전이 있다
- ③ 영주(永州)에 목엽산묘(木葉山廟)가 있다
- ④ 봉화(奉化)에 태백산사(太白山祠)가 있다
- ⑤ 강동(江東)에 신선(神仙)의 능[仙寢]이 있다
- ⑥ 묘향산에 신굴(神窟)이 있다
- ⑦ 백두산에는 박달나무[檀木]와 신령한 집[靈宮]이 있다
- ⑧ 기씨조선(箕氏朝鮮)은 사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 ⑨ 예(濊)와 부여(扶餘)와 삼한(三韓)은 나라 도읍[國邑]에서 제사지냈다
- ⑩ 신라(新羅)와 가락(駕洛)은 신궁(神宮)에서 제사드렸다
- ⑪ 고구려와 백제는 교사(郊社)에 제사를 드렸다
- ⑫ 발해와 고려와 조선은 묘전(廟殿)에서 제사를 올렸다.
- ⑬ 단군은 동방 백성의 시조이다
- ⑭ 동방(東方)을 군자(君子)의 나라라고 이른다
- ⑮ 분야(分野)로는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에 해당한다
- ⑯ 풍속이 예법(禮法)과 의기(義氣)를 숭상하였다
- ⑰ 바다를 둘러있는 것은 오직 삼신산(三神山)이다

등의 17개 항목이다. 『단조사고』본문 내.외편은 위의 36개 주요항목을 주론(主論)으로 세우고, 그 근거와 함께 의견을 다는 3단계 방식(주론-근거-의견) 혹은 2단계 방식(주론-근거)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전통적으로 보면 강목체(綱目體)와 흡사한 것인데, 강목체란 편년체 역사기술의 하나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저자의 사관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서술하는데 용이하다. 즉 『단조사고』의 서술



방법을 살피면 주론은 강(綱)에 부합되며 근거는 목(目)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단조사고』본문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綱-주론] 신(神)으로써 교(敎)를 베푸니 대종(大倥)이라고 한다.**

[目-근거1] 『신사지』에 이르기를, “신시의 시대에 신으로써 교를 베풀었다.”라고 하였다.

[目-근거2] 고운 최치원(崔致遠:857-?)의 「난랑비(鸞郎碑)」에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라고 했으니, 신교(神敎)가 그것이다.

[目-근거3] 성호 이 익(李瀾:1681-1763)은, “우리나라의 종교(倥敎)는 잘못 지칭하여 선교라고 하나 사실은 단군이 교를 베풀었던 것이다. 종(倥)은 우리 인조 임금의 이름인데 이를 피하여 선배들이 한 획을 더 보태어 종(倥)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目-근거4]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이르기를, “종(倥)은 상고의 신인(神人)이다.”라고 하였다.

[目-근거5] 『속완위여편(續宛委餘編)』에 이르기를, “동방에 단군이 먼저 나와서 신성의 교화로 백성을 가르침에 두텁고 부지런하여 강성한 겨레가 되었다. 교의 이름은 부여는 대천교라 하고 신라는 송천교라 하고 고구려는 경천교라 하고 고려는 왕검교라 하는데, 매년 시월에 하늘에 절을 한다.”라고 하였다.

[目-근거6] 『만주지(滿洲地誌)』의 「종교론(宗教論)」에 이르기를, “만주의 전설에 주신(主神)은 온누리를 통치하는 한량없는 지능이 있고, 그 형체를 나타내지 않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 앉아있으면서 지상에 있는 작은 신을 부린다.”라고 하였다.

[目-근거7] 또 「부여족론(夫餘族論)」에 이르기를, “법률이 매우 엄하고, 종교는 하늘에 절한다.”라고 하였다.

[目-근거8] 홍만종(洪萬宗:생물미상)의 『순오지(旬五志)』에 이르기를, “일찍이 야사와 여러 문집 중에 신이한 자취를 모아 보았는데, 다만 여러 책에 흩어져 있어 참고하고 열람하기가 어려워 드디어 한편을 집성하여 해동이적(海東異蹟)이라 이름하였다. 무릇 전(傳)이 32편이고 사람이 40명인데, 세대가 멀고 오래되어 혹 다만 전에 호만 있고 그 성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혹 성은 파악했으나 이름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모두 상고할 수 없어 아래에 기록하여 해박한 선비를 기다린다. 단군.혁거세.주몽.술량.영랑.남랑.안상.옥보고.김렴효.소하.대로.참시.김가기.최치원.강감찬.권진인.김시습.홍유손.정봉.정수곤.정

희량.남주.지리산인.서경덕.정렴.정작.정초.전우치.윤군평.한라산옹.남사고.박지화.이지함.한계노승.유형진.장한웅.남해선.곽재우.이완

**[目-근거]** 홍주세(洪柱世:1612-1661)의 시에 이르기를, “들으니 오랜 옛적에 신인이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네. 백성들이 추대하여 군장으로 삼으니 국호는 조선이었지. 평양에선 천여 년이요 당장은 백여 년이네. 한번 아사달로 돌아가시니 부처도 아니요 신선도 아니라네.”라고 하였다.

**[按-의견]** 생각하건대 단군성조가 세상에 내려온 것과 나라를 세운 것이 모두 10월 3일이기 때문에 부여.신라.고구려.고려에서 매년 시월에 하늘에 절하는 것은 이를 기념하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3월 15일 교외에서 수렵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또한 단군성조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기념한 것이다. 요즘 민가에서 시월을 상달이라고 일컫는데 성조고사를 행하여 백성을 안정시켜줄 것을 기원하였다. 성조라는 것은 집과 나라를 이루어 만든다는 뜻이다. 대개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속에 단군성조를 제사지낸 것이 지극했는데, 단군신앙이 중도에 폐지되어 그 출처를 아는 자가 드물고 다만 부녀에게 말기어 한갓 무당의 허망하고 간사한 데로 돌아가게 되어 거만하고 무례함이 지극하니 한탄스럽도다.

라는 형식으로 엮어있다. 『단조사고』본문에 나타나는 36개 주요항목 중, 위의 예시문처럼 3단계(주론-근거-의견)의 형식을 취한 것이 10개 항목(내편에 9개 항, 외편에 1개 항)이며, 나머지 26개 항목은 2단계(주론-근거)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단조사고』가 강목체의 형식을 취했던 것은 저술자의 입론(立論)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내외 문헌 전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듯하다.<sup>1)</sup>

## 2) 내용

『단조사고』의 내용은 한마디로 단군의 혈통과 강역, 행적과 유속들을 통해 단군의 역사성과 대종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책 제목인 『단조사고』에서의 ‘단조(檀祖)’란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의 준말로써 대종교의 등장과 함께 대종교단에 의해 보급된 용어다.

1) 윤병석, 「박은식의 민족운동과 한국사 서술」, 앞의 글, p.84.

홍암 나철이 1909년 음력 1월 15일 대종교를 일으킬 당시, 대종교 증광을 위한 종교적 상징으로 세운 것이 '단군대황조신위'이며, 대종교의 증광선언(重光宣言)으로 내세운 「단군교포명서」에도 수없이 언급되면서 파급된 것이다. 이 「단군교포명서」에는 '단군대황조'라는 말이 무려 36회나 반복되고 있는데, 각 문단 혹은 주요 문장의 주어가 모두 '단군대황조'로 나타나 있다.<sup>2)</sup>

'배달족원류'는 단군의 혈통을 밝힌 것이며, '삼천단부'는 그 강역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내편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단군의 탄생(출현)부터 승천(어천)까지의 행적을 말하고 있고, 외편에서는 단군을 숭상하고 받든 유속들을 기록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

i) 먼저 '배달족원류(단군혈통)'라는 도표에서는 '배달(단군)족'이 여섯 지파로 나뉘어 후 최종적으로 조선족(남방)과 만주족(북방-후금)으로 귀착된다고 이해했다. 그 지파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달(단군)→조선→한(韓)→진한→신라→고려→조선

배달(단군)→조선→한→변한→가락→신라→고려→조선

배달(단군)→조선→한→마한→탐라→신라→고려→조선

조선→한→마한→백제→고려→조선

조선→한→마한→고구려→고려→조선

배달(단군)→예→고구려→고려→조선

예→고구려→발해→여진→금→후금

배달(단군)→맥→고구려→고려→조선

맥→고구려→발해→여진→금→후금

배달(단군)→북부여→고구려→발해→여진→금→후금

북부여→백제→고려→조선

북부여→규봉(圭封)→고구려→고려→조선

2) 「단군교포명서」『대종교증광육십년사』, 앞의 책, pp.80-92.

북부여→규봉→고구려→발해→여진→금→후금

북부여→동부여→고구려→발해→여진→금→후금

고구려→요→발해→여진→금→후금

고구려→정안→여진→금→후금

배달(단군)→북부여→선비→계단→요→발해→여진→금→후금

배달(단군)→옥저→고구려→발해→여진→금→후금

옥저→발해→여진→금→후금

배달(단군)→속신→읍루→물길→말갈→발해→여진→금→후금

말갈→여진→금→후금

ㄱ배달(기자)→한→삼한→신라→고려→조선

ㄱ배달(기자)→고구려

ㄱ배달(기자)→마한

등과 같이 나타나는데, 기자를 반배달족(半倍達族)으로 간주하고 우리 민족의 지파로 편입시켰다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조선족(南朝)과 만주족(北朝)을 같은 단군의 혈통으로 엮었다는 것은, 대종교적 대륙사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김교헌이 20세기 초 조선과 청나라가 모두 멸망하자, 배달민족의 국명과 국호가 남북조에 걸쳐 모두 끊어짐은 초유의 일이라고 통탄한 것도<sup>3)</sup> 이러한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배달'이라는 용어도 근대 대종교단에 의해 등장하는 명칭임이 주목된다. 즉 대종교단의 문헌을 보면 단군조 배달검신(倍達儉神) 때에 삼천단부의 영역을 통합하여 '배달'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한다.<sup>4)</sup> 또한 「단군교포명서」에는

3) 김교헌 關, 『倍達族歷史』, 大韓民國臨時政府, 1923.('자료2')(影印本), 『國學研究』제4집, 국학연구소, 1998, p.307.

4) 백봉대종사신형親閱, 『檀君教五大宗旨書』(이하 『宗旨書』로 약칭),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문서번호 古第011980號).

이 『檀君教五大宗旨書』는 구한말 백두산을 근거로 활동하던 白峯神師가 친히 교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봉신사라는 인물은 근대 단군신앙(대종교)을 부활시킨 홍암 나 철의 스승으로서, 그 분명한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책 내용 구성의 자료로 어떠한 서적을 참고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신교 전래의 五大宗旨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삼천단

“단군조 증엽에 ‘배달국’이라 칭한 말이 漢字의 뜻과 음으로 轉變하여 ‘조선’이 되었으니, 옛말에 할아버지를 일컬어 ‘倍’라 하고 아버지를 일컬어 ‘父’라 하며 빛나는 물건을 칭하여 ‘達’이라 하니, 할배의 광휘를 입은 땅이라 하여 나라 이름으로 세운 것인 바, ‘배달’은 즉 祖光이라.”<sup>5)</sup>

고 밝힘으로써, 배달이라는 말이 단군조 증엽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으로 ‘한배빛[祖光]’을 뜻한다고 적고 있다.

조선족(南朝)과 만주족(北朝)을 같은 단군의 혈통으로 여었다는 것은, 대종교적 대륙사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김교헌이 20세기 초 조선과 청나라가 모두 멸망하자, 배달민족의 국명과 국호가 남북조에 걸쳐 모두 끊어짐은 초유의 일이라고 통탄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ii) 도표 2로 실린 ‘삼천단부(단군강역)’는 배달민족의 강역형세도로서, 남으로는 탐라(제주도)로 시작하여 동으로 동해 전체와 인접되었다. 동북로는 달단해협(韃靼海峽)에 닿아 있고 북으로 흑룡강을 경계로 하였으며 서북으로 이룩호리산(伊勒胡里山)을 이고 있다. 서쪽으로는 흥안령을 경계로 산융(山戎)과 접했으며 서남 방향은 요하(遼河)를 끼고 발해와 황해에 맞닿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단조사고』에 도표로 실려 있는 ‘삼천단부’가 단순한 지도의 의미를 넘어 대종교의 전래宗旨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즉 ‘삼천단부’란 우리 배달민족의 성역의식(聖域意識)과 직결된 것으로, 고구려의 건국정신인 다물정신으로 계승되고, 그러한 영토의식이 일제하 대종교 계열의 만주독립군들에게 ‘배달국이상향’의 정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sup>6)</sup>

부(또는 多勿主義)의 역사적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 「단군교포명서」, 앞의 글, p.86.

6) 김동환, 「대종교와 흥익인간사상」 『국학연구』제7집, 국학연구소, 2002, p.305참조. ; 김승학, 『倍達族』



먼저 고구려가 다물이념을 내세워 옛 땅을 되찾으려 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건국이념인 다물주의는 고구려의 국시(國是)가 됨은 물론, 고구려 건국의 역사적 명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물의 실천을 위하여 고구려가 건국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까닭에 건국 이후 고구려의 대외전쟁이 단순히 영토 확장만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이념이나 기본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sup>7)</sup>

고구려는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국가<sup>8)</sup>가 아니다. 중국의 사서를 보면, 이미 고구려를 ‘구려(句麗)’로 부르는 것이 발견되고<sup>9)</sup> ‘구이는 동북의 이(夷)로서 고구려다’라는 기록도 보이고 있다.<sup>10)</sup> 이것은 고구려가 이미 기원전 12세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찍이 고조선의 거수국(渠帥國)으로 고구려가 있었다는 주장<sup>11)</sup>과도 일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군조와 고구려의 국가적 상관성, 즉 사상적 계승성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제왕운기』를 보더라도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집단이라고 적고 있고,<sup>12)</sup> 고조선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만주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고대국가로서 수많은 거수국을 거느린 지방분권적인 국가임과 동시에, 각 지역의 거수들은 종교·정치·경제 등의 면에서 일정한 의무를 지며 단군(檀君)을 그들의 공주(共主)로 받들었다는 내용이나,<sup>13)</sup> 풍속·언어 등에서도 고조선과 그 거수국들이 동질성이 있다는 주장에서도,<sup>14)</sup> 고조선과 고구려의 사상적 연계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의 다물이념의 배경에 고조선의 영토의식이 숨어 있음이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고구려의 동명성왕이 건국 2년만에 송양왕의 비류국을 정복하고 그

理想國建設方畧』(「자료」『국학연구』제14집, 2010. 참조)

7) 윤내현, 「고구려의 다물이념」『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p.298.

8)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시조동명성왕’條.

9) 이것은 『후한서』「동이열전」이나, 『삼국지』「오환선비동이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10) 『逸周書』卷7, 「王會」篇 ‘高夷’에 대한 註釋 부분 참조.

11) 윤내현, 「고조선의 구조와 정치」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p.441 참조.

윤내현은 한국과 중국의 옛 문헌에 고조선의 渠帥國으로 나타나는 것만도, 부여·고구려·고죽·예·맥·추·낙랑·현도·임둔·속신·청구·진번·양이·양주·발·유·옥저. 기자조선·진·비류·荇人·해두·개마·구다·藻那·朱那·한 등이 나타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12) 『帝王韻紀』卷下, 「前朝鮮記」‘檀君’에 대한 주석 참조.

13) 윤내현, 「고조선의 구조와 정치」, 앞의 글, pp.485-486 참조.

14) 윤내현, 「고조선의 건국과 민족의 형성」『고조선연구』, 앞의 책, pp.146-152 참조.

지역을 다물도라 설정한 배경<sup>15)</sup>에 대해서도, 다물의 의지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고구려가 고조선의 거수국 중 하나였던 비류국을 정복한 배면에는 고조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다.<sup>16)</sup> 정인보도 최초의 정복국인 비류국을 다물도라 명명한 배경이 그 첫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의도적 명명임과 아울러, 그 다물정신이 고구려 입국(立國)의 근본종지(根本宗旨)라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先世의 ‘땅’을 ‘물르’는 첫 功績임을 기하기 위하여 ‘復舊土’의 義로 ‘多勿’이라 하였으니, ‘多’는 ‘地’의 義 ‘따’를 譯함이요, ‘物’은 ‘還買’의 義 ‘물르’를 譯한 것이다. 잃었던 땅을 물러온 이 事가 고구려 건국의 最初業績일 뿐만 아니라, 잃었던 땅을 물르자는 것이 곧 高句麗 立國의 根本宗旨다.”<sup>17)</sup>

또한 동명성왕 스스로 송양왕에게,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내세운 점에서도 고조선의 계승의지를 뚜렷하게 살필 수 있다. 고조선의 통치자인 단군이라는 의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sup>18)</sup> 북부여를 건설한 주체인 해모수라는 말과도 통한다. 즉 해모수의 해는 하늘의 ‘해’, 모수는 ‘머슴애’를 뜻하는 것으로 해모수는 해의 아들 즉 일자(日子)를 말한다는 것이다.<sup>19)</sup> 이것은 단군과 해모수가 같은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며,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도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인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난다.<sup>20)</sup> 그리고 해모수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고구려라 칭했다는 신교사서의 기록<sup>21)</sup>을 보면 단군과 해모수 그리고 고구려의 연결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태양(광명)신앙이 바로 삼신신앙이며 유구한 우리 민족의 종교적 전통이라는 것을 다음의 기록은 말해 주고 있다.

“『조대기』에서 말하길, ‘옛 풍속은 광명을 숭상하여 해로써 神을 삼고 하늘로써 조상을 삼

15)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始祖東明聖王’條.

16) 윤내현, 「고구려의 다물이념」, 앞의 글, p.301.

17) 정인보, 「朝鮮史研究(上)」『薈園鄭寅普全集』, 연세대출판부, 1983, p.211.

18) 『三聖記(全)』下. (原文)天帝子乃號曰檀君王儉

19) 김상기, 「국사상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동방사논총』, 서울대출판부, 1984, p.6에 나오는 주)7 참조.

20) 『三國遺事』卷1, 「紀異」‘高句麗’條, 註. ; 『帝王韻紀』卷下, 「前朝鮮記」註.

21) 『檀君世紀』47세 ‘檀君古列加’條. (原文)高句麗乃解慕漱之生鄉也故亦稱高句麗也

았나니, 만방의 백성은 이를 믿고 서로 의심치 않으며 아침 저녁에 경배하며 이를 가지고 일과를 삼았다. 태양은 광명이 만나는 곳으로써 옛날부터 三神이 계시는 곳이다.”<sup>22)</sup>

즉 상고 삼신신앙의 근원이 광명(해)이라는 것과, 철학적으로는 “한(桓)은 전일(全一)이며 광명이라, 천일(天一)을 삼신의 지혜와 능력이라 하고 광명은 삼신의 참된 덕이라 하니, 곧 우주 만물에 앞섬을 말함이다”<sup>23)</sup>라고 함으로써, 한이 광명이요 곧 삼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구려의 동맹(東盟)이 본시 한맹(寒盟)을 계승한 것이라는 을파소의 말도,<sup>24)</sup> 한맹(동맹)이 ‘한’에 맹세하는 것이며 이것은 광명과 삼신께 결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고구려 다물주의 형성 배경에 고조선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고조선 거수국으로서의 고구려가, 고조선과 종교·언어·풍속 등의 동질감 속에서 형성된 이념의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특히 전래 신교사서(神敎史書)에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고구려 다물주의의 형성 배경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단군교오대종지서』에 보면, 단군조 아둔검신(阿頓儉神)<sup>25)</sup> 재위 당시 흘나사한(訖那沙翰)이라는 밝은이[哲人]가 시대적 혼란기를 맞아 대항조로부터 내려오는 종지를 정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교(神敎)의 분명한 행태가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후세 사가들이 선교(仙敎)라고 하는 것도 이 신교에서 연원한 것임을 언급했다.<sup>26)</sup>

그리고 단군조 이고랑검신(尼古郎儉神) 때, 수사로(秀斯老)라는 철인이 나타나서 흘나사한의 전통이 ‘오대종지(五大宗旨)’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7)</sup> 당시의 오대종지는 염조신(念祖神).연명성(演明性).합동류(合同類).수단부(守團部).근의식(勤衣食)인데, 그 중에서 ‘수단부(삼천단부 혹은 삼한관경을 수호할 것)’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기

22) 『太白逸史』「桓國本紀」第二.

23) 같은 책. (原文)桓者全一也光明也全一爲三神之智能光明爲三神之實德乃宇宙萬物之所先也

24) 『太白逸史』「高句麗本紀」第六. (原文)乙巴素…曰…神以化衆寒盟有律代天行功也

25) 여기서 儉神이란 임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우리의 三韓管境(삼천단부의 영역)을 말하는 倍達이라는 의미를 성스럽게 부르는 것으로도 쓰인다. 『宗旨書』. (原文)愛戴大皇祖統名三千團部之方域曰倍達當時儉神亦稱倍達聖號

26) 『宗旨書』. (原文)阿頓儉神御宇時太白山西大阿畔小團部中有一哲人訖那沙翰巡有團部…如此之事遂絶訖那沙翰自經此事後記載…大皇祖之道唱起本敎主旨以神敎著行盖自訖那沙翰哲人始也…後世史家稱本敎以仙敎者或有之而其淵源則統一之神敎也.

27) 같은 책. (原文)有哲人秀斯老…繼述訖那沙翰哲人之所記載特以文字解明五大宗旨.

(古記)』를 인용한 『삼국유사』에서도 환웅이 거느리던 ‘삼천단부’의 기록이 언급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이심전심으로 가르쳐지며 내려오던 대도대지(大道大旨:오대종지)가 마침내 수사로라는 인물에 의해 말과 글로써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이 무르익어 배달검신(倍達儉神) 때 와서는 ‘삼천단부’에 다시 대황조의 가르침이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삼천단부’의 영역을 통합하여 배달이라고 일컬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28)</sup> 단군조 중엽에 전성기를 맞아서, 그 후 수사로 철인의 제자들이 삼천단부의 지도자가 된 자가 반이 넘었고 신교의 오대종지가 오랜 기간 융성하다가, 다라검신(多良儉神) 재위 시에 양파로 분립이 된 후, 마침내 서울검신(徐鬱儉神) 때 와서는 서울(평양) 천도의 문제를 두고 단군조 초유의 분열과 대립을 맞게 된다. 이것을 신교에서는 서울사변(徐鬱事變)이라 하고 이로 인해 삼천단부의 일체감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기록이다.<sup>29)</sup>

한편 『증지서』에 나타나는 ‘삼천단부’의 기록이, 또 다른 신교사서에는 삼한(三韓). 구한(九桓). 구이(九夷). 구려(九黎). 오가(五加). 64족(族) 등 다양하게 나타남이 확인된다.

“무진년에 檀國으로부터 아사달의 檀木터에 이르니,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천제의 아들로 모시게 되었다. 이제 九桓이 모두 뭉쳐서 하나로 되었고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미치게 되었다.(古記云…戊辰唐堯時來自檀國至阿斯達檀木之墟國人推爲天帝子混一九桓神化遠)”[『檀君世紀』]

“천하의 땅을 三韓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삼한은 모두 五加 64족을 포함하였다.(區劃天下之地分統三韓三韓皆有五加六十四族)”[『檀君世紀』]

“이 때부터 九桓은 모두 三韓에 통솔되고 나라 안 천제의 아들은 단군이라 불렀다.(自是九桓悉統于三韓管境之天帝子乃號曰檀君王儉)”[元董仲, 『三聖記全』下.]

28) 같은 책. (原文)倍達儉神御宇時以秀斯老哲人之教化三千團部復見遼古之風…愛戴大皇祖統名三千團部之方域曰倍達

29) 같은 책. (原文)檀君朝中葉極盛之時代也其後秀斯老哲人之高弟爲三千團部之領帥者過半是以本教之隆昌長遠…徐鬱儉神御宇時自教門請于徐鬱儉神遷都于徐鬱地方號令三千團部…生開極以來初有之大爭鬪…遂張各立之勢斥絕關係嗚呼此本教我族之第一回大悲運也.

“모두 7일을 기한으로 삼신께 나아가 세 번을 빌어 온전하게 되기를 다짐하면, 九桓이 바로 다스려지게 됩니다.(『檀君世紀』. 三世檀君嘉勒條.)

“雄族 가운데 檀國이 있어 가장 강성했다. 왕검 역시 하늘에서 내려와 불함산에 사시니,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들어 단군으로 모시어 이를 단군왕검이라 했다. 태어나면 서부터 지극히 신묘하고 성스러워서 九桓의 三韓管境을 모두 통합하였다.(雄族之中有檀國最盛王儉亦自天而降來御于不咸之山國人共立爲檀君是謂檀君王儉也生而至神兼聖圓滿統合九桓三韓管境)“[『太白逸史』「三神五帝本紀」第一.]

“하늘에 제사 지냄에 있어 반드시 임금[韓]이 몸소 제를 지내니 그 예법이 매우 성했음을 알 수 있다. …(중략)…무릇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니, 곧 管境을 번식케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소도제천은 곧 九黎를 교화하는 근원이 되었다.(祭天韓必自祭其禮甚盛可知也…蓋爲民祈禳乃所以繁殖管境而蘇塗祭天乃九黎教化之源也)“[『太白逸史』「三神五帝本紀」第一.]

“태자(부루)는 九黎를 태산에 모으고 우나라 순임금에게 명하여 虞貢의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太子會九黎於塗山命虞舜卽報虞貢事例)“[『太白逸史』「三韓管境本紀」第四.]

더욱이 『태백일사』「신시본기」에서는

“단군은 또한 천군이라 하니 제사를 주재하는 우두머리다. 왕검은 또한 감군이며 管境의 우두머리다. 때문에 하늘로부터 밝음을 桓이라 하고 땅으로부터의 광명을 檀이라 한다. 이른바 한은 九桓을 말하는 것이다. 韓은 곧 크다는 뜻이다. 三韓은 풍백.우사.운사라 한다. 加는 곧 家이다. 五加를 말하자면 牛加는 곡식을 주관하며, 馬加는 목숨을 주관하며, 狗加는 형벌을 주관하며, 豬加는 병을 주관하며, 羊加는 선악을 주관한다고 한다. 백성은 64종족이 있었고 무리는 3,000이 있었다.”<sup>30)</sup>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족(桓族)이 모두 신시가 이끄는 삼천단부의 울타리에서 나왔음

30) 『太白逸史』「神市本紀」第三. (原文)檀君亦曰天君主祭之長也王儉亦卽監群管境之長也故自天光明謂之桓也自地光明謂之檀也所謂桓卽九桓之謂也韓亦卽大也三韓曰風伯雨師雲師加卽五加曰牛加主穀馬加主命狗加主刑豬加主病羊加主善惡也民有六十四徒有三千

을 밝히고 있다.<sup>31)</sup> 이것은 삼천단부라는 말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두 우리 민족의 울타리를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특히 관경(管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영토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란 표현이 관경을 말한다(朝鮮謂管境也)”고 단언함을 보더라도,<sup>32)</sup> 우리 민족에 있어 영토관념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경을 관리하는 철학으로 동원된 것이, 신교의 제천과 경전 그리고 소도의 관리였다는 점이다. 또한 군대와 산업의 육성은 물론, 화백(和白)의 지혜로써 무리를 통솔했음도 나타난다.<sup>33)</sup> 『고려사』에 언급되어 많이 알려진 「신지비사」의 내용도, 본디 삼한관경을 유지하기 위한 슬기로운 비책(秘策)임을 다음의 내용은 알려주고 있다.

“眞韓은 나라 안을 진압하고 길을 다스리니, 모든 것이 維新되리라. 慕韓(馬韓을 말함:인용자 주)은 왼 쪽을 보필하고 番韓은 그 남쪽에 대비하여 험준한 바윗돌이 사방의 벽을 에워쌌과 같으니라. 聖主(檀君達門을 말함:인용자 주)께서 新京에 나아가심은 마치 저울 추, 저울의 그릇과 같음이라. 저울 그릇은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며 저울추는 안덕향이니, 앞뒤가 균형이 잡혀 평균을 이뤄 나란히 있고 덕을 신뢰하고 神精을 지키며 나라를 일으켜 태평을 유지하니라. 정사를 베풀매 70국을 항복시키고 길이 三韓의 뜻을 간직하니라. 왕업은 일어났다가 망하는 법, 興廢를 함부로 말하지 말지니라. 정성은 오직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있느니라.”<sup>34)</sup>

이것은 당시 신지(神誌)였던 발리(發理)가 쓴 서효사(誓效詞)에 나오는 내용으로, 『고려사』에 김위제가 상소문에서 인용한 「신지비사」의 원문으로도 추정 할 수 있는 글이다. 한마디로 삼한관경의 수호원리로, ‘수미균평위흥방보태평(首尾均平位興邦保太平)’의 이치를 저울 원리에 비유하여 설명했으며, 그 핵심이 ‘하느님을 섬김에 있다(在

31) 같은 책. (原文)盖我桓族皆出於神市所率三千徒團之帳 ; 『揆園史話』「檀君記」. (原文)盖出於神市所率三千團部之裔

32) 『太白逸史』「三韓管境本紀」第四. 馬韓世家下.

33) 元董仲, 『三聖記全』下. (原文)桓雄天王肇自開天生民施化演天經講神話大訓于衆自是以後治尤天王關土地採銅鐵兵與產時九桓皆以三神爲一源之祖主蘇塗主管境主責禍與衆誠一歸爲和白

34) 『檀君世紀』. 六世檀君達門條. (原文)眞韓鎮國中治道咸維新慕韓保其左番韓控其南巖遠四壁聖主幸新京如秤錘極器白牙岡秤鞞蘇密郎錘者安德鄉首尾均平位賴德護神精與興邦保太平朝降七十國永保三韓義王業有興隆興廢莫爲說誠在事天神



事天神)고 적고 있다.

나아가 『태백일사』에서는 저울대 부소량이 진한의 옛 서울을, 저울추 오덕지가 변한의 옛 서울을, 그리고 저울그릇 백아강은 마한의 옛 도읍지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와 백성을 보존할 수 없으므로, 삼신고제(三神古祭)의 서원(誓願)<sup>35)</sup>은 삼한관경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sup>36)</sup> 이것은 『종지서』에 나오는 '수단부(守團部:삼천단부를 유지.수호하는 것)'의 종지가 전래의 삼신신앙의 원리와 땄 수 없음과 일치하는 것이며, 다물주의의 사상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한의 무리가 삼신을 뿌리로 삼는다는 기록이나,<sup>37)</sup> 삼신께 빌면 구한이 바로 다스려진다는 가치 인식에서도,<sup>38)</sup> 다물주의 역시 삼신신앙과 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채호가 주장한 다음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三朝鮮이 이렇게 同時에 崩壞됨은 何故이뇨. 三韓은 원래 天-地-太-의 三神說에 의하여 人民들이, ‘말한’은 天神의 代表, ‘불한’은 地神의 代表, ‘신한’은 天보다 높고 地보다 큰 宇宙唯一神의 代表로 信仰하여 오다가, ‘말’·‘불’ 兩‘한’이 ‘신한’을 叛하여 각기 ‘신한’이 라 自稱하여, 三大王이 竝立하여 智力으로 地位를 獲得하매,...(중략)... 三神說을 破壞함에 이름이 그 原因이요, 歷代의 三韓이 한갓 三神의 迷信으로만 人心을 維繫함이 아니라, 매 양 外寇를 斥逐하고 國土를 擴大하여 天下가 다 그 威靈에 戰慄케 하더니, 이제 三國의 ‘신한’들로서, 匈奴와 支那의 迭次 侵寇를 抵抗치 못하여 國土가 많이 割棄되매,...(중략)... 三‘한’의 神嚴을 否認함에 이름이 그 近因이니, 三神說의 基礎 위에 세운 三‘한’인즉, 三神說에 破綻이 생긴 以後에야 崩壞하지 않을 수 있으랴.”<sup>39)</sup>

상고의 삼한이 삼신설(三神說)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삼신설에 대한 믿음이 파탄나

35) 李陌이 『太白逸史』에서 말하는 三神古祭誓願이란, 達門檀君 때의 神誌 發理가 지었다는 誓效詞를 일컫는 뜻하다.

36) 『太白逸史』「蘇塗經典本訓」第五. (原文)曰秤榦扶蘇樑者是謂辰韓古都…曰錘者五德地者是謂番韓古都…曰檀器白牙岡者是謂馬韓古都…三者缺一衡不秤物國不保民也三神古祭之誓願惟在三韓管境允悅民衆之義也

37) 元董仲, 『三聖記全』下. (原文)九桓皆以三神爲一源之祖

38) 『檀君世紀』. 三世檀君嘉勒條. (原文)三神執盟三忽爲侄九桓爲保蓋其道也

39) 신채호, 「조선상고사」『단재신채호전집(上)』(개정판-이하 ‘개정집’이라 약칭),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2, p.109.

면서 붕괴일로로 치달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삼한관경(삼천단부)을 유지했던 사상적 배경이 삼신설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삼신설이 단순한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침략자들을 전율케 만드는 준엄한 정신이었다는 주장은, 삼신설과 국토수호의 상관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단군교오대종지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군신앙과 ‘수단부’가 흥망성쇠를 같이했다는 점과도 일맥한다.<sup>40)</sup>

이렇듯 ‘삼천단부’라는 말 속에는 ‘삼천단부’에 속한 집단들의 정신적 동류의식에서 배태된 영토관념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그 사상적 배경에는 대종교의 오대종지 계율과 삼신사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후일 고구려의 다물주의와 일제 하 대종교인들의 배달국이상향 역시 이러한 가치의식의 연장 위에서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조사고』에 ‘삼천단부’라는 지도를 삽입한 것은 단순한 지도의 의미를 넘어 대종교의 종교적 이상향을 드러낸 것이며, 고토의식에 대한 향수의 반영임과 아울러 대종교적 대륙사관 전개에 필연성을 현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대종교단에 의해 저술된 『단조사고』의 본문(내편·외편) 역시 대종교의 교리·역사·문화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백두산문화의 세계중심설이나 범동이민족주의(凡東夷民族主義), 또한 대륙주의 역사관이나 신교계승설 등을 표방하는 대종교의 인식<sup>41)</sup>과 그대로 합치한다.

우선 『단조사고』내편 첫 시작이, 다음과 같이 대종교 신관의 중심을 이루는 ‘삼신설(三神說)’의 옹호로 출발한다는 점이다.

“삼신을 살펴보면 환인과 환응과 환검이다.”

삼신설이란 우리 민족 상고의 신앙 체계다. 옛 임금들이 단군삼신을 공경하여 섬기

40) 이러한 사실은 『宗旨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우리 민족이 ‘삼천단부’(삼한관경)을 옹골게 유지하면서 전성을 누릴 때에는 ‘守團部’(삼천단부의 관경을 옹골게 지킴)의 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천단부의 붕괴로 인해 삼한관경을 많이 상실한 고구려 시기에는 ‘完基土’(잃어버린 땅을 옹골게 만들자는 다물정신)의 정신으로 드러났으며, 국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구한말에 와서는 ‘安圍基土’(다물을 통하여 배달국이상향을 건설함)의 사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41) 한영우, 「1910년대 민족주의 역사서술-이상룡·박은식·김교헌. 『단기고사』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서울대출판부, 1980 참조.

는 것을 도로 삼았다는 기록이나,<sup>42)</sup> 인(因).웅(雄).검(儉) 삼신이 비로소 나라를 세운 공덕을 늘 전해 외우고 잊지 않았고, 중국 사람들도 삼신을 받드는 자가 있어 동북에 신명지사(神明之舍)가 있었다는 내용에서도<sup>43)</sup>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가 천.지.인 삼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과도<sup>44)</sup> 연결되는 부분이다.

특히 정인보는 중국문헌에 보이는 고구려의 영성(靈星).사직(社稷).수신(隧神).제천(祭天) 등이 별개가 아니라 모두 제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정했다. 특히 영성제(靈星祭)야말로 다른 제사가 아닌 삼신하느님에 대한 제(祭)로 단정하고 있는데, 『사기(史記)』「봉선서(封禪書)」에 고구려의 ‘천신삼신’을 ‘태일삼성(太一三星)’으로 잘못 옮겨 번역했음을 다음과 같이 공박했다.

“封禪書에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太一三星’이라 하고 또 太一三星을 象한 旗를 ‘靈旗’라 하고 또 太一峰注에 ‘徐光曰, 天官書曰, 天極星明者, 太一常居也, 斗口三星, 命曰太一’이라 하였으니, 이 靈星은 農祥의 靈星과 全然 關係없는 天神三神에 대한 移譯으로 太一三星의 星宿的 意義를 붙여 쓴 것이요, 이 天祭가 高句麗 全國的 大典이므로 거기다가 漢族의 郊祀인 社稷 二字까지 붙여 靈星社稷이라 한 것이니, 이를테면 三神國祀라는 세움이어늘 後漢書가 이를 誤倒하였다. 그런 즉 ‘祠靈星社稷’과 ‘十月祭天’을 나눈 것은 그네들이 이 쪽 真相을 모르고 譯文의 前後移動을 가지고 分着한 巴요, 隧神迎祭云云도 十月國中大會의 일이니, 이 곧 祭天儀式의 一이거늘 後漢書는 ‘亦以’ 二字를 妄加하였다.”<sup>45)</sup>

오히려 정인보는 우리 삼신신앙의 전통이 한나라에 옮겨져 그들의 사책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sup>46)</sup> 까닭에 정인보는 우리의 천제와 중국 한족(漢族)의 교사(郊祀)가 서로 다르므로,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진(秦).한(漢)시대 훨씬 이전에, 산동부

42) 『揆園史話』「檀君記」. (原文)敬事上帝即一大主神也及檀君三神因以爲道

43) 같은 책. (原文)因雄儉三神之開創肇定之功德常傳誦而不忘…(中略)…漢土之人有慕於神化者必推崇三神至有東北神明之舍之稱焉

44) 윤내현, 『商時代 崇帝思想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1988, pp.12-14참조.

45) 정인보, 「朝鮮史研究(下)-典故甲-」, 앞의 책, pp208-209.

46) 정인보, 「朝鮮史研究(上)」, 앞의 책, p.54.

“三神의 古祭 진작부터 流寓朝鮮人의 行事로 좃아 漢俗에 옮기고 三神의 古傳이 오래두고 流寓朝鮮人의 談說로 좃아 漢人이 떠든 것이니, 漢武晩年에 長生을 求하던 수선이 三神의 遙影을 그 史冊에 남기게 하고 屈氏의 感憤을 아무데나 寄託한 것이 東方信仰의 點片을 그 歌題로 뒤지게 되는 것도 奇蹟이라 하려니와, 古朝鮮人의 어디를 가든지 自를 自로 지키던 그것을 이런 데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에서 조선족과 한족 간에 치열한 종교적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sup>47)</sup>

아무튼 이러한 삼신설은 대종교 신관의 근간으로써, 조화주로서의 한인과 교화주로서의 한웅 그리고 치화주로서의 한검의 행적을 밝힌 「신사기(神事記)」<sup>48)</sup>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sup>49)</sup> 또한 삼신설은, 삼신인 한인·한웅·한검이 별개의 위상이 아니라, 쓰임에서만 셋으로 나타날 뿐 몸으로서는 하나라는 삼신일체설(三神一體說)과 동일한 의미다. 다음과 같은 대종교단의 이해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우리들이 신앙하는 神位는 삼신일체 하느님이시니, 하늘에 계셔서는 조화주이신 桓因이시요, 세상에 내려오셔서는 교화주이신 桓雄이시요, 또 치화주이신 桓儉이시니, 인간 사회에 계셔서는 아버지시며 스승이시며 임금이므로, 삼신일체 하느님이시다.”<sup>50)</sup>

『단조사고』에서도 나철의 「신리(神理)」를 인용하여 삼신일체의 의미를 옹호하고 있으며, 특히 대종교 혹은 김교헌의 의견이라 할 수 있는 안(按)에서는 삼세설(三世說)을 부정하고 삼신설의 타당함을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개진했다.

“생각하건대 이씨 종휘와 정씨 약용이 모두 환인·환웅·단군으로써 할아버지·아들·손자의 삼세를 삼았는데, 이것은 『고기』와 『유사』 및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책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책에 또한 스스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다. 여러 책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신인이 태백산에 내려왔는데 이가 단군이 된다고 했으니, 어찌해서 제석의 서자가 환웅이 되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 된다고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이다. 이미 신시라고 말하고 이가 단군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또 어찌하여 신시에서 인간의 몸으로 변화하기를 기도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두 번째이다. 임금이 된 자는 단군이고 천부삼인을 받은 자는 신시이니, 어찌 천부삼인을 받은 자가 즉위하여 임금이 되지 않고 따로 임금이 된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그 단목에 내려온 것은 한 가지이니, 또 누가

47) 정인보, 「朝鮮史研究(下)-典故甲-」, 앞의 책, p.193.

48) 이 「神事記」라는 책은, 나철이 대종교를 일으키기 전인 1905년에, 백봉신사가 이끌던 단군교단으로부터 전해 받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조화기(造化紀)·교화기(教化紀)·치화기(治化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인이 큰 덕으로 조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한웅이 큰 슬기로 교화의 능력을 부렸으며, 한검은 큰 힘으로 치화의 능력을 행했다 한다.

49) 「신사기」『역해종경사부합편』, 앞의 책, pp.73-102.

50) 강수원 편, 「대종교란 어떤 종교인가」『대종교요감』, 대종교총본사, 1983, p.138.

먼저이고 누가 뒤라고 하겠는가. 그 의심스러운 것이 세 번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동방에 처음 군장이 없었는데 태백의 산 아래에 내려온 것은 신인뿐이다. 신인이 먼저 나왔는데 어찌 이른바 서자라는 것이 있겠는가. 그 의심스러운 것이 네 번째이다. 대개 삼신일체와 일성삼신의 묘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는 바에 따라 억지로 이름을 붙여 혹은 둘로, 혹은 셋으로 하고 심지어 삼세라고 지적하고 있으니 미혹된 것이다. 그렇다면 환인은 하나의 단군이고 환웅도 하나의 단군이고 신시씨도 하나의 단군이 된다. 낱음과 이름에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몸과 쓰임에 말미암아 이름이 혹 다르니 그 변화를 헤아리지 못한다. 『신리』에 말이 수록되어 있다.

또 생각하건대 성스러운 이름과 호칭이 여러 책에 나타나는 것을 상고해보면, 환인.환웅.환검.단인.단웅.단군.임검.왕검.천신.천선.천왕.천군.천제.상제.단제.제석.신인.신시씨.단신.산신.삼성.성조신.기수가한(奇首可汗) 등으로 말했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아니다. 대개 역대의 언어와 예속에 따라서 시대마다 같지 않으나 사실은 한 가지이다.”

다음으로 『단조사고』내 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론(主論) 19개 항목 가운데, 대부분의 항목이 대중교의 종교적 상징 혹은 교화치적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먼저 ②항에 나오는 ‘천부삼인’과 ‘태백산 단목(檀木)’은 그 종교적 상징성이 뚜렷하다. 즉 단목은 신단수(神檀樹)로 우주수(宇宙樹)이며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신앙의 보편적 상징물로 이해되고 있다.

‘천부삼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지상에 홍익인간을 구현할 수 있는 천권(天權)의 상징이요 인치(人治)의 천부(天符)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단적으로 말한다면 지상의 인간세를 홍익할 수 있는 신교적(神敎的) 신기(神器) 또는 경전(經典) 내지는 부적(符籍)이 바로 천부삼인일 듯하다.

‘천부삼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지상에 흥익 인간을 구현할 수 있는 천권(天權)의 상징이요 인치(人治)의 천부(天符)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부인(符印)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인이 옛날 우리 환족(桓族)이 가진 고유한 세 가지의 특징 요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때, 불교에서의 인계(印契)나 도교에서의 부적(符籙)과 같이 신앙과 연결된 주물[呪物(Fetich or Fetish)] 내지는 주부[呪符(Amulet or Tailsman)]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sup>51)</sup> 좀더 단적으로 말한다면 지상의 인간세를 흥익할 수 있는 신교적(神敎的) 신기(神器) 또는 경전(經典) 내지는 부적(符籙)이 바로 천부삼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항에 나오는 ‘오사(五事)’ 역시 대종교적 의미가 남다르다. ‘오사’란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의 인간 주요 생활과 관련된 오사통치(五事統治)를 말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삶 속에서의 위계(位階).삶의 생노병사(生老病死).삶의 질서.삶의 도덕과 윤리 등을 관장한 통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전래 신교사상(神敎思想)에서의 다섯[五]은 교화와 관련된 숫자로서, 대종교단의 교화경(敎化經)으로 분류되는 「삼일신고」 역시 ‘다섯 가르침[五訓]’으로 구성된 경전이다. 특히 「신사기」<sup>52)</sup>에서는 치화주 한검(桓儉)이 오사[五事(곡.명.병.형.선악)]를 관장하여 ‘인간세상을 흥익(弘益人世)’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고,<sup>53)</sup> 백포 서일은 오사통치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심고 거둠을 때맞춰 하여 백성은 주림이 없고(주곡-인용자 주), 행하고 본받음이 마땅함을 얻으니 백성은 어김이 없고(주명-인용자 주), 병 빌미를 알고 미리 막아 백성은 천명을 지키고(주병-인용자 주), 간사한 무리들이 머리 들지 못하니 백성은 訟事가 없고(주형-편집자 주), 상과 벌이 분명하여 백성은 죄를 범함이 없느니라(주선악-인용자 주).”<sup>54)</sup>

51) 최남선, 「壇君神典의 古義」, 앞의 책, p.198참조.

52) 「神事記」는 흥암이 대종교를 중광하기 전인 1906년 1월 24일, 당시의 서대문역 근처에서, 백봉신사의 道弟인 두암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받은 대종교 전래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대종교중광육십년사』, 앞의 책, p.9

53) 「神事記(敎化紀)」, 앞의 책, p.92. (原文) 欽稽治化主曰桓儉主五事弘益人世

54) 서일, 「회삼경(三神)」『역해종경사부합편』, 앞의 책, p.122. (原文) 稼穡以時而民无飢行效得宜而民无違預施以道而民无札姦宄不興而民无訟勸懲必信而民无犯



또한 ③ 항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 함도 남다른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대종교에서의 ‘삼백 육십 여사’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떠나 질서의 완성, 교화·치화의 실현, 이상향 구현이라는 의미와 밀접하다. 즉 홍익인간을 숫자의 운도로 가장 크게 표시한다면 삼백 육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홍익인간을 한글자로 표현한 ‘한’을 어음적으로 고찰하더라도 ‘한’은 ‘크다[大]’에서 출발하여 ‘하나[一]’라는 개념에서 종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하나’는 다시 ‘큰 하나[畵]’를 수반하기에 그것은 곧 ‘온[畵]’이며 ‘온[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기 ‘하나[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홍익인간사상인 것이다.<sup>55)</sup>

대종교단의 주경전인 「삼일신고」의 전문(畵文)이 삼백육십 여사로 이루어져 있고 『참전계경』도 삼백육십 여사로 짜여져 있음도 종교적 연관성이 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사기」에서 치화주 한검(桓儉)이 여러 신관들에게 직분을 나눠주어 삼백 육십 여사를 다스리게 했다는 기록<sup>56)</sup> 역시 종교적 의미가 깊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서일은 “太元의 수가 삼백육십육이니 하늘의 도수에 합하고 해의 자리에 응하며 대종의 도가 섬이 이에 말미암음이며 대종교가 거듭빛남[重光]도 이에 즘음함이니, 이를 대회<sup>57)</sup>라 이른다.(太元之數三百六十六 合天之度 應日之躔 大道立極由於是 大道重光際於是 此之謂大會)”<sup>58)</sup>고 밝히면서, 다음의 「회삼경」을 통해, 삼백 육십 여사의 종교적 완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5) 최창규, 『韓國의 思想 - 그 主體性과 本質』, 앞의 책, pp.23~24참조.

56) 「神事記(教化紀)」, 앞의 책, p.93. (原文) 命三僊四靈 敬授職 主治人間三百六十餘事

57) 서일은 또 다른 글에서, 大會(삼백 육십 - 종교적 완성)가 위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數理로 설명하고 있다.

“先天之數는 처음에 하나로 가운데 다섯이 되며 아홉에 마치고, 後天之數는 처음에 둘로 가운데 여섯이 되며 열에서 마치나니, 하나.다섯.아홉을 이르되 세 홀수요, 둘.여섯.열을 이르되 세 짝수라. 홀수는 가지런하지 않고 짝수는 마주하여 만나니,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고 마주하여 만나는 것은 합하는지라, 세 홀수가 맨 처음(太元)에 모여 합하는 도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두 번 불어나(二衍) 일흔 둘로 작은 모음(小會)이 되고, 여섯 번 불어나(六衍) 이백 열 여섯이 가운데 모음(中會)이 되고, 열 번 불어나(十衍) 삼백 예순이 큰 모음(大會)이 되느니라. 하늘님이 내리심은 큰 모음에 합하고, 오르심은 가운데 모음에 합하고, 거듭빛남(重光)은 작은 모음에 합하느니라.(先天之數 始一中五 而終於九 後天之數 始二中六 而終於十 故 一五九 謂之三奇 二六十 謂之三耦 奇即不齊 耦即對待 不齊者差 對待者合 故 三耦爲太元會合之道 故 一衍而七十二 爲小會 六衍而二百十六 爲中會 十衍而三百六十 爲大會 神降印乎大會 返御印乎中會 重光印乎小會)”( 서 일, 「회삼경(三會)」『역해종경사부합편』, 앞의 책, pp.230-233. )

58) 서일, 「眞理圖說」『대종교중광육십년사』, 앞의 책, p.130.

“삼백 예순 여섯은 天數가 크게 붙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 물건이 붙어서 삼백 예순 여섯 가지[種]이 되고, 다섯 가르침이 붙어서 삼백 예순 여섯 말[言]이 되고 다섯 일이 붙어서 삼백 예순 여섯 일[事]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삼백 예순 여섯 목숨을 기르며 삼백 예순 여섯 몸을 마르재며, 삼백 예순 여섯 고동[機]을 돌림은 造化의 공적이요, 삼백 예순 여섯 뼈를 바꾸며 삼백 예순 여섯 혈[穴]을 돌리며 삼백 예순 여섯 도수로 모음[會]은 教化의 공적이요, 삼백 예순 여섯 행함을 가지며 삼백 예순 여섯 고이[德]를 쌓으며 삼백 예순 여섯 일을 지음[做]은 치화의 공적이니라.”<sup>59)</sup>

다음으로 ⑤ 항에 나오는 ‘신(神)으로써 교(敎)를 베푸니 대종(大倥)이라 한다’는 주론은 대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디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출발(1909년 1월 15일)하여 대종교로 개칭(1910년 8월 5일)했는데, 순수 삼신일체 하느님 신앙으로의 환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60)</sup> 또한 대종(大倥)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단군신앙의 교의(敎義)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檀君의 神道를 大倥이라 일컬음은, 하나는 敎門을 부흥하는 光武.隆熙 연간에 있는 어떠한 시대 사정에 인한 것이거니와, 또 하나는 倥이란 字義를 端的으로 표현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倥은 고대의 神人을 의미하는 字요, 또 人과 宗을 합하여 구성된 자형을 보건대 人의 祖宗이 되는 神人임을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러한 神人은 檀君이 되실 밖에 없습니다. 또 종교 이론상에 있어서는 神人의 同格이 그 고등인 계단이요, 또 神人の 合一이 그 究意의 歸趣 인데, 檀君 古道는 이론이 아니라 그 사실에 있어 神人無間을 출발점 또 귀착점으로 하는 터이니까, 이 실지에 부합하는 명칭은 倥으로써 가장 적합할 것이며, 大의 字는 道の 존엄성을 보인 것인 양 합니다.”<sup>61)</sup>

또한 ⑨ 항에 나타나는 비서갑신녀나 ⑭ 항의 팽우, ⑮ 항의 고시와 ⑯ 항의 여수기 등은 「신사기」에 나오는 대종교 치화행적의 주요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

59) 서일, 「회삼경(三神)」, 앞의 책, pp.126-127. (原文)三百六十六者 天數之大衍也故五物衍而爲三百六十六種五訓衍而爲三百六十六言五事衍而爲三百六十六事故養三百六十六命裁三百六十六體幹三百六十六機者造化之功也換三百六十六骨湊三百六十六穴會三百六十六度者教化之功也持三百六十六行積三百六十六德做三百六十六事者治化之功也

60) 신철호, 『韓國重興宗教敎祖論』, 대종교총본사, 1979, p.49.

61) 최남선, 「朝鮮常識問答」『육당최남선전집』3, 앞의 책, pp.58-59.

이다.<sup>62)</sup> 특히 ② 항의 ‘갑자에 천부삼인을 잡고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왔다’는 내용과 ⑩ 항의 ‘경자(庚子)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다시 신(神)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주론은, 대종교의 2대경절인 개천절(開天節)과 어천절(御天節)의 근거가 되는 주장들이다.

한편 『단조사고』 ‘외편’에 실린 17개 항목의 주론 역시, 단군과 관련된 종교적 유적과 제사.유풍(遺風)에 관한 것들로서, 대종교의 성지(聖地).제례.예법의 골대를 이루고 있다.

즉 ‘외편’ ① 항 문화(文化)의 삼성사(三聖祠).② 항 평양의 승령전.③ 항 영주(永州)의 목엽산묘(木葉山廟).④ 항 봉화(奉化)의 태백산사(太白山祠).⑤ 항 강동(江東)의 선침(仙寢-단군릉).⑥ 항 묘향산의 신굴(神窟-단군굴).⑦ 항 백두산의 박달나무[檀木]와 영궁(靈宮).⑦ 항의 삼신산(三神山) 등과 ‘내편’ ⑬ 항의 마니산 제천단은, 대종교의 주요 성지로 추앙되는 곳들이다.

또한 ‘외편’ ⑧ 항 기씨조선(箕氏朝鮮)의 사당제.⑨ 항 예(濊)와 부여(扶餘)와 삼한(三韓)의 국읍제(國邑祭).⑩ 항 신라(新羅)와 가락(駕洛)의 신궁제(神宮祭).⑪ 항 고구려와 백제의 교사제(郊社祭).⑫ 항 발해와 고려와 조선의 묘전제(廟殿祭) 등은 대종교단의 역대제례에서 빼놓지 않는 행사들이다. 더불어 ‘외편’ ⑬ 항 동방 시조로서의 단군.⑭ 항 동방군자(東方君子)의 나라.⑮ 항 분야(分野)로는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에 해당.⑯ 항 예법(禮法)과 의기(義氣)를 숭상하는 풍속 등도 단군신앙의 유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듯 『단조사고』 ‘내.외편’의 전부가 단군의 행적과 유적.제례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또한 전래 단군신앙의 교사(敎史).교의(敎義).문화(文化)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는다. 이것은 『단조사고』가 대종교단으로부터 출간된 것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그 출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조사고』는 단군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구명하는 내용들로, 대종교의 역사와 문화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3호에 계속)

62) 『신사기(치화기)』, 앞의 책, pp.92-100참조.

아름다운 생각 | 隨想

# 단군묘중건기

檀祖廟重建記

湖石 姜虞(1862~1932)



호석 강우 선생 존영

무릇 우주 간 만물이 그 근본을 배양하지 않고서 가지가 퍼지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물은 그 근원이 막히면 천 갈래 만 갈래의 흐름이 크고 넓어지지 못하고 자연 말라 버리며, 나무는 그 뿌리가 끊기면 천 가지 1만 잎이 울창하지 못하고 자연 말라 버리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이 근본을 잃으면 백자(百子) 천손이 번식 창성하지 못하고 자연 멸망하게 되는 것은 원래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 대황조 단군께서 지금부터 4천 3백 8십 5년 전 갑자 10월 3일에 천신(天神)으로서 사람으로 화하시어 태백산 박

달나무 아래 강림하시사 인물을 생육하시고 산천을 개척하시니, 아득하고 희미함이 비로소 트이고, 인류문화가 처음으로 열렸으며, 4천 2백 6십 1년 전 무진 상달 3일에, 3천 단부 백성들의 추대로 영궁(靈宮)에서 임금 자리에 나아가시고 나라를 처음으로 세우시니, 이 날이 곧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살게 된 날이다.

풀로 가리운 자를 옷 입게 하시며, 나무 열매 먹는 자를 밥 먹게 하시며, 구멍에 거처하는 자를 집에 거처하게 하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화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먹게 하시니 곧 동방 생민의 시조이시며, 시사(始師)이시며, 시군(始君)이시다. 그러므로, 삼신(三神)이라 하며, 삼성(三聖)이라 한다.

“

근대에 와서는  
갑자기 근본을 잊고  
근원을 배반하여  
사책(史冊)이 다 없어졌으며,  
항사를 철폐하고 수위를 폐지하여  
전각이 황량하게 되었으니,  
우리 겨레의 실성(失性)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게 되었는고  
아아 슬픈지고

”

아, 우리 3천만 신성한 후예들은 신성한 천조(天祖)의 넓은 은혜, 큰 덕을 4천년 간 기념하여 잊지 않으며, 각처에 단사전묘(壇

祠殿廟)를 설립하고 일심으로 숭봉하니 태백산의 삼신전과 대송전(大崇殿)과 보본단(報本壇)과 단목영궁(檀木靈宮)과 마니산의 제천단과 천제암(天祭菴)과 구월산의 삼성사와 평양의 승령전과 목업산의 천신묘(天神廟)와 장백산의 성제묘(聖帝廟)와 갑산(甲山)에 망백단(望白壇)이 있어, 추원보본하는 제전(祭典)을 대대로 이어 받들었으며, 배달나라의 무천(과 옥저·속신의 배천(拜天)과 삼한의 소도와, 고구려의 수(隧), 동맹과, 신라의 천군(天君), 천왕당(天王堂)과 백제의 교천(郊天)과 발해 고왕의 영단보궁(靈壇寶宮)과 요태조의 예화락(豫和樂)과 금태조의 건영곡(乾寧曲), 홍녕곡(洪寧曲)과, 고려의 왕검성과, 조선의 남교(南郊), 남단(南壇)과 만주의 태고단신(太古壇神)의 제사 이름이 대대로 이어져서 큰 제전의 성대한 의식이 백겁이 지나도록 일관하였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갑자기 근본을 잊고 근원을 배반하여 사책(史冊)이 다 없어졌으며, 향사를 철폐하고 수위를 폐지하여 전각이 황량하게 되었으니, 우리 겨레의 실성(失性)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게 되었는고. 아아 슬픈지고.

백성은 신의 주인인데 주인이 없으면 신이 앞으로 어디에 의지하며, 신은 백성의 명을 맡았는데, 신이 노하시면 백성은 앞으로 어디에 힘입으리오, 지금 우리 민족은 누가 제사를 주관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둘러보며 살펴볼지어다. 조상신이 기뻐하면 백성이 반드시 복되는 것이요, 조상신이 노하면 백성

이 반드시 화 입는 것인데, 어찌하여 다른 신, 다른 조상은 잘 공경하고 잘 제사 지내면서 우리 조상은 공경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는가. 이러므로 신은 의지할 데가 없고, 백성은 힘입을 데가 없게 되었다. 신과 사람이 회합하지 않음으로 하여 혹독한 벌에 걸리고 생명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대저 누구를 원망하고 허물하리오.

생각하면 우리 단군은 천신이시며 시조이시다. 인민이 하늘을 어찌 배반하며, 자손이 조상을 어찌 잊으리오. 오늘날 화해(禍海)에 빠져 들어간 민족으로서 괴로움을 피해 낙으로 나가려 한다면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존중함만 같은 일이 없고, 미로에 방황하는 인민이 진실로 근원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단(壇)을 설치하고 사당을 세움만 같은 일이 없다. 아, 우리 신묘(神廟)는 천조(天祖)께서 의지하는 바와 신족(神族)들의 돌아갈 곳이라, 대길상한 생로(生路)이며, 대광명한 각문(覺門)이니 그 건설이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급하지 않은가.

신묘의 중건은 곧 우리 민족의 거듭나는 날이다.

모든 우리 종족(宗族)제씨는 보본(報本)하는 성심을 일제히 분발하여, 위로는 시조의 명령을 봉안하고 아래로는 동족의 힘을 협찬하여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신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지성으로 바라고 지성으로 비나이다.

무진년(1928) 1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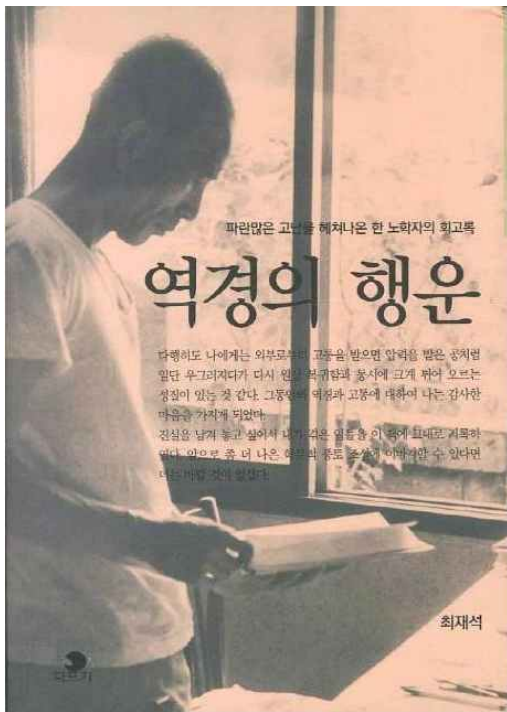
책으로 사색하다 | 책소개

## 『역경의 행운』

지은이 / 최재석

출판사 / 다모기

출판연도 / 2011년



이 책은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의 고대 한일관계사를 연구한 최재석(고려대 명예교수)의 논문을 비롯한, 그 간에 겪은 역경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논문은 한국사에서의 씨족의 출현시기와 한국가족사에서의 17세기의 변화, 백제왕이 사람을 일본에 파견하여 그곳을 경영한 사실을 다룬 6세기 백제-일본 관계와 일본열도의

한국 고지명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최재석은 가족제도사를 전공한 사회사학자다. 그는 1985년 무렵 가족제도사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던 중 『삼국사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사학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후 그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정사인 『일본서기』 연구에 매달려 지난 26년간 150편의 논문과 이를 묶은 11편의 고대 한일관계 연구서를 내놓았다. 이들 논문의 상당수는, 일본 사학자들의 주장을, 정확한 사료를 근거로 반박한 내용이다.

최재석은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통해 "고대 일본은 한국의 직할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호주가 영국의 지명을 딴 것처럼, 일본 여러 도시의 27가지 지명, 즉 다리, 절, 산, 나루터, 항구, 고개, 들판, 저수지, 섬 등의 지명이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의 지명을 사용했다"며, 그의 논문들을 통해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대 일본은 항해술이 형편없어 신라 송사(送使)를 거쳐야 중국으로 갈 수 있었으며, 7세기 말 야마토왜 [大和倭]의 영역은 독립국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몇 개 군(郡)을 합친 정도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백제의 무령왕(501~553)이 두 장군과 오경(五經) 박사를 파견해 일본을 경영했고, 성왕(523~553)은 일본에 백제불교를 포교하면서 14회에 걸쳐 백제관리를 파견했다며 이런 관리 파견은 위덕왕(554~597)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백제가 일본(야마토왜)에서 징집한 군대, 인부와 징수한 물품을 징수했다는 기록, 백제 본토에서 야마토왜로 후



퇴한 장군들이 구축한 백제산성, 법릉사의 불상 제작 경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는 양심적인 사학자도 있다"면서 이시와타리 신이치로(石渡信一郎)의 저서(『백제에서 도래한 오오진천황』)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최재석은 자신의 업적을 "일본은 기마민족의 성립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언급 없이 '북방민족이 한반도를 통과해 일본을 지배했다'고 대충 넘어간 부분을 뒤집는 연구서"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꺼내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단원을 지목하면서, 어떻게 문화만 단순히 건너갔다고 기술할 수 있는냐는 논리를 편다.

그는 "그 동안 『역사학보』, 『진학학보』, 『한국사연구』 등 3대 학회지에 논문을 보냈지만 실을 수 없었다"며 "사회학자의 외도에 주류사학계가 외면했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그는 "전공이 아니라도 하고 싶으면 해야 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주류사학계의 경직된 사고를 비판했다.

한편 최재석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삼국사기 초기기록이 조작되었다는 학계의 기존 통설을 거부하는 한편, 일본 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학계도 실명으로 비판을 가했다.

가령 이미 정년퇴직한 저명한 한국고대사학자 이기동 동국대 명예교수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 이기동 교수보다 20세 정도 연상이니 내 사후가 아니라 생존 시에 나의 비판에 대해 회답을 주기 바란다. 내 생전에 침묵을 지키다

가 사후에 가서 이러쿵저러쿵해서는 안 될 것이다."(247쪽)

최재석이 거는 비판의 칼날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비록 익명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학계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같은 학과 동료 교수를 대놓고 비난하는가 하면, 외국의 저명한 한국사 연구자로 꼽히는 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영국 런던대 교수에 대해서는 "내 책을 몽땅 표절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대학 분교 교수가 된 자기 제자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폭력을 가하겠다"는 폭언을 듣는 봉변을 겪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같은 대학 역사교육과 김모 교수에 대해서는 "한국사를 일본사에 예속시키고 일본서 학위를 얻었다"고 직서하기도 한다.

『역경의 행운』 「서문」을 보자.

"심적 고통을 받을 당시나 그 후에 그러한 고통을 상기할 때마다 나는 더욱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것처럼 장기간의 지속적인 연구에 열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최재석의 연구가, 평생 견제와 외면,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이루어진 결과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 2014년 정기학술대회

2014년도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서대문구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호석 강우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특별히 호석 강우선생의 고손 사위되는 오송만(미술교사)님이 참석하여 인사하였다.

당일 발표주제는 아래와 같다.

제1주제: 호석 강호석 부자의 대종교 신앙과 민족운동

제2주제: 강우의 대종교 활동과 남도본사

제3주제: 강우의 대종교관- 『종리문답』 과 『자애진결서』 를 중심으로-

제4주제: 호석 강우의 사상관- 『백두산28경찬문』 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은

제1주제: 발표 박결순(충북대)

토론 이숙화(한국외대)

제2주제: 발표 신운용(한국외대)

토론 김병기(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제3주제: 발표 최윤수(국방과학연구소)

토론 조남호(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제4주제: 발표 김동환(사)국학연구소

토론 운용남(성신여대)



### 본연구소 제39차 정례연구발표회

2014년도 4분기 정례발표회(39차)가 지난 12월 17일 오후7시 한국외대 본관 109호에서 있었다. 본연구소 임찬경 연구원이 ‘이병도의 한사군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반인과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65주년 기념학술회의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65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지난 2014년 12월 15일(월)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 2층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학연구센터가 주최하고 한민족학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홍익인간 건국이상과 ‘국가개조’ 과제”라는 대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었다.

당일 발표주제 및 발표는 다음과 같다.

기조발표: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세상과 삶(정영훈 현대한국학연구센터 소장)

제1주제: 최근의 국가개조론의 배경과 추이, 그리고 과제(정수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주제: 홍익인간사상의 사회경제적 실천방안(유경문 서경대)

제3주제: 홍익인간의 윤리학적 해석(박병기 한국교원대)

제4주제: ‘인간을 위한 정치’와 국가 정체성-‘홍익인간’과 현대 한국정치의 이념적 초상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제5주제: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교육목적-홍익인간을 중심으로-(최봉영 한국항공대)

제6주제: 단군 홍익인간 사상과 21세기 한국경제(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제7주제: 한국사회의 공공성 빈곤과 홍익인간 사상(최문형 성균관대 겸임)

(발표 자료는 연구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 속의 나라이름과 겨레이름2 학술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학연구센터 2014년 제 6회 학술회의가 ‘한국사 속의 나라이름과 겨레이름2’ 대주제로 2014년 12월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지난 10월 1일 열린 개천절 기념학술회의 ‘한국사 속의 나라이름과 겨레이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는 총 8주제를 나누어 발표하였다.

주제와 발표는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부여계 국가들의 국호 기원(이도학 전통문화대)
- 제2주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각국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호 영문표기(정용욱 서울대)
- 제3주제: 전고려 후고려 고려 국호의 계승과 의의(조경철 나라이름연구소)
- 제4주제: 위만의 조선 국명 채택과 단군왕검과의 관계(김남중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 제5주제: 국호를 통해본 보덕국의 실체(정원주 경민대)
- 제6주제: 당의 발해 국호 명명 배경(최진열 카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
- 제7주제: 마진 연구 시론(정진헌 고구려발해학회)
- 제8주제: 배달의 유래와 의미, 그 의식 확산에 대한 고찰(김동환 (사)국학연구소)

(발표자료를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